2024-CR-01
작은연구 좋은서울 24-06

도시재생지역에서 반려동물을 통한 제3의 장소 형성하기 – 해방촌에서의 반려견 친화공간 설계

구기환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도시재생지역에서 반려동물을 통한 제3의 장소 형성하기

– 해방촌에서의 반려견 친화공간 설계

연구책임

구기환 고려대학교 도시재생협동과정 박사수료

연구진

구정환 경기대학교 건축학과 학사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목차

01 머리말 1

1_연구 배경 및 목적 1

02 이론적 자원과 관련 논의 검토 4

1_제3의 장소 4

2_반려견과 보호자 관계의 고찰 7

3_도시 속 반려견을 위한 공간 형성 9

03 분석 전략 및 연구의 수행 체계 12

1_연구 대상지 12

2_연구 방법 14

04 현지조사 16

1_현지조사의 개요 16

2_현지조사의 결과 16

05 설문조사 27

1_설문조사의 개요와 기초분석 27

2_교차분석: 반려견 크기와 국적에 따른 비교 31

06 실용적 질적 연구: 사례 연구와 사진유도면담 40

1_심층면담의 개요 40

2_사례 연구 42

3_사진유도면담 방법을 통한 물리적 환경 및 계획 평가 84

07 공간설계 및 프로그램 제안 103
1_물리적 공간설계 103
2_프로그램 계획 119

08 맺음말 131
1_연구 요약 131
2_반려동물 친화 도시를 위한 제언 132

참고문헌 136

표 목차

[표 5-1] 설문참여자의 기본정보에 대한 빈도분석표 27
[표 5-2] 설문참여자의 반려견 기본정보에 대한 빈도분석표 28
[표 5-3] 산책횟수와 산책 선호 시간대에 대한 빈도분석표 29
[표 5-4] 산책시간에 대한 빈도분석표 30
[표 5-5] 반려견 크기에 따른 〈A구역〉 선호도의 교차분석표 32
[표 5-6] 반려견 크기에 따른 〈B구역〉 선호도의 교차분석표 32
[표 5-7] 반려견 크기에 따른 〈C구역〉 선호도의 교차분석표 33
[표 5-8] 반려견 크기에 따른 〈D구역〉 선호도의 교차분석표 34
[표 5-9] 반려견 크기에 따른 〈E구역〉 선호도의 교차분석표 34
[표 5-10] 국적에 따른 반려견 크기 교차분석표 35
[표 5-11] 국적에 따른 품종견 선호 교차분석표 35
[표 5-12] 국적에 따른 〈A구역〉 선호도의 교차분석표 36
[표 5-13] 국적에 따른 〈B구역〉 선호도의 교차분석표 36
[표 5-14] 국적에 따른 〈C구역〉 선호도의 교차분석표 37
[표 5-15] 국적에 따른 〈D구역〉 선호도의 교차분석표 37
[표 5-16] 국적에 따른 〈E구역〉 선호도의 교차분석표 38
[표 6-1] 질적 연구 참여자의 기본적 정보 41

그림 목차

[그림 3-1] 해방촌 도시재생사업 사업구상도 13
[그림 3-2] 연구의 수행 체계 14
[그림 4-1] 신흥시장의 도시재생 결과물 18
[그림 4-2] 108계단 엘리베이터 19
[그림 4-3] 해방촌의 정비된 계단들 20
[그림 4-4] 서울정원박람회에서 조성된 해방촌의 정원들 22
[그림 4-5] 해방촌 녹색골목길 안내도 23
[그림 4-6] 흔적 여행길 안내도 24
[그림 4-7] 해방촌 카페들의 반려견 전용 메뉴 포스터 25
[그림 4-8] 해방촌의 반려견 배설물 경고 및 수칙 안내물 26
[그림 6-1]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분한 해방촌 산책구역 지도 84
[그림 6-2] 사진유도면담에서 제시된 해방촌 흔적 여행길 마스터플랜 89
[그림 6-3] 사진유도면담에서 제시된 해방촌 다문화흔적 여행길 표지판 90
[그림 6-4] 사진유도면담에서 제시된 서울정원박람회 안내지도 92
[그림 6-5] 사진유도면담에서 제시된 해방촌의 정원 사진들 93
[그림 6-6] 사진유도면담에서 제시된 남산의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97
[그림 6-7] 사진유도면담에서 제시된 해방촌 민간 건물 및 공영주차장 건물 102
[그림 7-1] 남산 중·소형견 놀이터의 위치 105
[그림 7-2] 남산 중·소형견 놀이터 설계안 106
[그림 7-3] 남산 대형견 놀이터의 위치 108
[그림 7-4] 남산 대형견 놀이터 설계안 109
[그림 7-5] 공영주차장 옥상 놀이터의 위치 110
[그림 7-6] 공영주차장 옥상 놀이터 설계안 111

[그림 7-7] 반려동물 지원센터의 위치 113
[그림 7-8] 반려동물 지원센터 설계안 115
[그림 7-9] 미국 네쉬빌 시내의 Commerce street pilot parklet 렌더링 117
[그림 7-10] 반려동물을 위한 툴킷(좌: 음수대, 우: 배변봉투함)과 안내판 117
[그림 7-11] 미국 뉴욕의 반려견 분변 수거통 118
[그림 7-12] 목줄거치대와 그늘막을 제공하는 뉴질랜드의 베이베어 쇼핑센터 118
[그림 7-13] 서초동물사랑센터 교육 프로그램들 120
[그림 7-14] 미국 웨이크카운티 반려동물 서비스 사이트 123
[그림 7-15] 미국 스트리터빌의 반려동물 핼로윈 파티 포스터 125
[그림 7-16] 해방촌 강아지 맵 포스터와 지도 128
[그림 7-17] 서울 반려견 순찰대 모집 포스터 130

01. 머리말

1_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한국에서 진행 중인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은 주민 참여형 지역 회복에 그 목적이 있다. 여기서 지역이란 단순히 지리적 경계를 넘어, 그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의 경험 및 관계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도시재생은 파편화된 인간관계를 하나로 모으고, 그 공동체의 힘을 통해 죽어가는 지역을 인간적 연대를 통해 다시금 회복되게 한다. 하지만 기존까지의 도시재생에 주민이 참여하긴 하지만 주민 매개적 역할은 한정적이었으며, 파괴된 이웃 공동체의 개념이 재생되는 부분보다 외부의 시선과 평가를 의식한 사업들이 주류라는 비판이 많다는 점에서 개선 방향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공동체를 유지·재건하는 도시재생 사업지의 주민 매개체로 반려동물에 주목한다. 사회적으로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하며 보편화하고 있다. 현재 한국 사회의 반려동물 보급 상황은 상당한 수준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의하면 국내 반려동물 시장은 2022년 기준 62억 달러(약 8.5조 원)로 추산되며, 10년 뒤인 2032년에는 152억 달러(약 2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데일리벳, 2024). 또한, 농림 수산 검역 검사 본부에서 실시한 '동물 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는 약 600만 마리의 개 및 약 260만 마리의 고양이가 길러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 가구의 27.7%, 전국 추정 시 약 6,381,249가구를 차지한다(농림축산식품부, 2020). 이렇듯 매해 반려동물 사육 인구는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며 이제 한국에서 반려동물은 상당히 보편적인 요소가 되었다.

특히 이 연구의 연구 대상지인 해방촌의 인구 사회적 특징을 살펴보면, 주변의 이태원

등 문화지대로 인한 청년층, 외국인 1인 거주민이 많고 노령인구 역시 다수 존재하고 있다. 해방촌의 1인 가구는 35%(1,711가구)로 서울시 평균을 상회하고, 노령화지수 역시 129.5%로 104.2%인 서울시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특별시, 2017). 또 2023 인구총조사 결과 해방촌(용산2가동)의 내국인은 9,715명(86%), 외국인 1,336명(14%)도 외국인 비중 역시 높은 편이다(통계청, 2023). 게다가 해방촌이 위치한 용산구의 반려동물 수는 자치구 인구 대비 규모에서 서울시 1위를 기록하였다(이진한, 2021). 따라서 상술한 지역적 특성들을 고려했을 때, 해방촌은 주민들의 외로움을 달래는 목적으로 반려동물이 많은 것을 파악할 수 있고, 실제로 해방촌을 방문하면 반려동물을 흔하게 목격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는 지역에서도 비슷한 현황일 것으로 보인다. 반려동물을 찾는 사람들이 외로움을 위로할 대상을 찾는다는 점에서 고령 인구 혹은 1인 가구를 이루는 청년층에서 흔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거주지가 낙후된 도심지의 재생 지역에 주로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자 한다. 즉, 상대적으로 혼자 사는 사람들의 반려동물 돌봄은 어렵고, 주변 이웃과의 갈등 요소 역시 흔하게 보인다. 이러한 갈등 지점에서 지역 주민의 연결과 이웃 관계 회복의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있는 것이다.

도시재생은 단순히 낙후 지역을 고쳐 쓴다는 개념을 넘어서 잊혀진 이웃의 개념을 되찾고 삶의 터전을 함께 만들어가는 의미로 바라보아야 한다. 위의 논의를 종합해, 이 연구에서는 반려동물과 동반하는 공공공간을 계획해 도시재생 사업지에서 주민의 매개를 촉진하는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도시재생의 목적이 단순히 낡은 공간을 새롭게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 주민 간의 공동체를 보존하는 방향안에서 낙후된 도시에 생기를 더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반려동물 공공공간은 그 기능을 예측할 수 있다. 공공공간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만나 교류하는 '제3의 장소'의 기능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다.

2) 연구 목적

이 연구에선 지역 내 학부모끼리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되고 공동체가 성립되듯, 새로운 주민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Oldenberg (1989)의 '제3의 장소(third place)'이론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에서 고려할 수 있는 공간적 측면을 파악하고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인 구역 내 새로운 기능적 제3의 장소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공공사업뿐만 아니라, 민간 주도 사업에도 접근이

가능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도시재생지역 내 반려동물을 기르는 주민들은 평소 동물의 산책이나 관련된 우연한 만남 혹은 공동체 활동을 통해 상호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공적 공간으로의 반려동물 공간은 지역 내 자연스러운 주민 교류의 장으로 지역공동체의 친밀성을 촉진하는 공간적 특징을 가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도출할 수 있다.

"해방촌 도시재생지역 내 반려견과 보호자들의 특성은 어떠하며, 여기서 주민 간 교류를 촉진하는 제3의 공간으로 기능하는 공공공간 설계에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가?"

02. 이론적 자원과 관련 논의 검토

1_제3의 장소

1) 제3의 장소의 개념

Oldenburg(1989)는 가정이나 일터에서 주어지는 사회적 역할만으로는 본연의 욕구를 충족할 수 없기에 그것을 충족시키는 비공식적 공공 생활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목적 없는 접촉'과 '거름망 없는 폭넓은 대인관계'를 통해 지역사회를 구축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제3의 장소(the third place)'는 '제1의 장소'인 주거공간과 '제2의 장소'인 사무공간 혹은 일터와 대조되는 공간이다. Oldenburg에 의하면 '제1의 장소'은 가족과 기거하며 편안한 삶을 유지하려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제1의 장소'은 집이지만 절대 좋지만은 않다.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 가지를 신경 써야 하고 맞춰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결코 개인의 안식처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다음으로 '제2의 장소'는 직장을 의미한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익숙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지만, 그만큼 부담을 가지게 되며 불편하다. 아무리 꾸며놓고, 편안하게 만들어 놓아도 그곳은 일터이며, 나만의 공간이라고 하기도 힘들다.

Oldenburg는 Richard Sennett의 중산층 미국인들에 대한 관찰을 인용하며, 미국인들의 삶에서 독일인이나 프랑스인들과 같은 비공식적 공공 생활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에 대한 대안이 '제3의 장소'이며, 집처럼 편안하면서도 다른 이들과 즐겁고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인데, 이를테면 펍이나 카페, 커피하우스 등이 이 안에 포함된다.

특히 이러한 '제3의 장소' 개념은 마케팅과 함께 하면서 소비를 노리는 공간으로 전환된다. 스타벅스의 CEO Howard Schultz가 스타벅스에 내세운 개념도 '제3의 장소'

이다. 즉,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에서 벗어나 그러면서도 편안하게 자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비공식적 공공장소의 역할을 스타벅스 카페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다(문근이·류호창, 2013)

특히 젊은 1인 가구나 노령인구가 많은 경우, 생산 활동을 할 시간이나 개인적 시간에 반려동물은 집에 혼자 있게 되고, 특히 노령인 경우 정보 부족 등으로 사육에 어려움을 경험한다. 또 반려동물을 동반해 외출하기에는 아직 반려동물 동반 공공공간이 많지 않다. 더불어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쉽게 교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 간 연결고리의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산책하다가 길에서 개들이 만나 서로의 체취를 맡으며 교류하고, 자연스럽게 주인들 간 인사와 대화가 시작되는 모습은 낯설지 않은 모습이다.

2) 다양성: 제3의 장소의 조건

'레벨러(Leveler)'는 지위와 계급을 폐지하고 사람을 평등하게 수용하는 모든 것을 통칭하는 표현으로, 제3의 장소의 대표적 이미지인 커피하우스가 레벨러의 오랜 표상이다. 신분이나 계층과 상관없이 모두가 와서 격식 없이 교류를 나누고 하나의 집단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레벨러로서 기능하는 공간은 모두를 포용하는 장소여야 하며,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배제하는 기준이 없어야 한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비슷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지만, 공식적인 모임은 이를 제한하는 반면 제3의 장소는 이를 넘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제3의 장소는 지위에 상관없이 개인의 매력과 개성을 중시하며, 기존의 사회적 구분을 벗어나 다양한 사람들과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러한 공간에서 형성된 관계는 직장이나 가족 관계에서 느끼지 못했던 만족감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레벨러로 작용하는 제3의 장소의 특징은 첫째, 중립적이고 수평적이면서 다채로운 '대화'가 이루어지며, 둘째, 언제가도 아는 사람들이 있고 홀로 편안하게 방문이 가능한 '접근성과 편의성'이 있는 곳이고, 셋째, 하나의 친밀한 무리로써 '단골'이 있어야 하며, 넷째,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기 적합한 수수하고 검소한 분위기의 '소박한 외관', 다섯째, 웃고 떠들썩한 분위기 가운데 심각함이라곤 존재할 수 없는 놀이터 같은 '장난스러운 분위기', 마지막으로 여섯째, 다정하고 따듯하고 편안한 요소를 가지면서 사람을 뿌리내리게 하는 '또 하나의 집'으로서 기능한다(Oldenburg, 1989).

이렇게 레벨러로서 도시의 거리와 지역에 다양한 기능을 풍부하게 조성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이 핵심이 된다. 구체적으로 네 가지 중요한 도시 다양성의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각 구역은 두 가지 이상의 주요 기능을 담당해, 서로 다른 시간대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공통으로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블록은 짧고, 코너를 자주 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야 한다. 셋째, 경제적 다양성을 위해 오래된 건물과 새로운 건물이 혼재되어 있어야 하며, 이들은 가능한 한 밀집해 있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단순히 주거 목적일지라도 충분한 인구 밀도가 유지되어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Jacobs, 1961).

3) 공공장소의 도시설계적 맥락에서 이론적 틀의 적용 가능성

상기 논의와 같이 '제3의 장소'는 사람들이 '가정(제1의 장소)'과 '직장(제2의 장소)' 이외에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공간을 의미하며, 사회적 존재인 인간에게 중요한 사교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이론은 공간이 사용자에게 주는 경험의 질을 규명하는 강력한 이론적 틀로 작용하며, 특히 이 연구와 같이 특정 지역 공동체에서 공공공간을 통해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요소들을 고찰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개방성과 접근성이 좋은 제3의 장소는 누구나 긴장 없이 방문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장소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 도시설계는 그 지향점이 단순히 물리적 편의성에 국한되지 않으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고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촉진 요소를 통합해 제시한다. 특히, 도시의 공공장소가 제3의 장소로 기능할 때는 사용자가 자유롭게 교류하고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가 유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공간은 단순한 물리적 시설, 덩그러니 도시 한복판에 놓인 건조물이 아닌 유기적인 사회적 연결의 플랫폼으로 기능하게 된다. 따라서 이 연구와 같은 도시설계 연구에서 제3의 장소 이론을 설계의 자원으로 삼으면, 설계자의 주관적 감각이나 개인마다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는 지리적·물리적 환경, 사회적·문화적 환경이라는 정성적 요인들을 하나의 이론적 틀을 적용해 객관적으로 통합해 바라보게 된다. 즉, 이 연구에서 제3의 장소 이론은 공공장소에 단순한 물리적, 기능적 요소만을 고려하지 않고, 사용자 간 관계와 공동체 형성에 미치는 사회적, 심리적 요소까지 포함하도록 설계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이 연구의 도시설계는 도시재생 지역이라는 맥락을 가지고 있고, 그 특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장소성(placeness)' 이론과도 연결이 된다. 즉, 공간이 사람들에게 단순한 물리적 배경을 넘어 의미와 정체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며, 이러한

장소는 그곳에 얽힌 역사, 문화, 사람들의 기억과 정서적 경험을 통해 고유한 성격을 가지게 된다(Relph, 1976; Tuan, 1977). 이렇듯 도시설계에서의 이론적 자원의 활용은 설계의 방향성을 강화하고, 설계가 제공하는 경험의 깊이를 더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유익한 접근이라 할 수 있다.

2_반려견과 보호자 관계의 고찰

1) 반려견과 인간의 긍정적 상호작용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은 인간에게 다양한 장점이 있다. Serpell과 그 동료들(1991)이 비 반려동물 보호자와 최근 새로운 반려동물을 키우기 시작한 사람들을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기 시작한 사람들에게서 가벼운 수준의 건강 문제가 비 보호자에 비해 크지 않고, 그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려견 소유자가 개가 아닌 다른 반려동물 소유자들보다 신체 활동, 특히 걷기 활동이 증가했다고 보고되었다. 반려견과 함께하는 산책은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요소를 포괄해 인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며, 비 반려견 보호자들에 비교했을 때 반려견 보호자들의 건강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난다(Bauman et al. 2001; Ham and Epping, 2006; Coleman et al. 2008). 일본의 선행 연구들도 비슷한 현황이 보고된다. 건강 관련 삶의 질에 관한 연구에서 반려견 보호자가 비 보호자에 비해 신체적, 사회적 영역에서의 삶의 질(QOL: Qaulity of Life)이 더 높은데, 이는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면서 더 많은 신체 활동을 하기 때문으로 드러났다(早川·荒尾, 2017). 특히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사람들이 반려견을 산책시키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른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들보다 이웃들과 더 많은 활동에 참여한다(Koohsari et al, 2021). 이는 반려견 산책이 이웃 간의 만남을 촉진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요소는 이 연구가 반려견들을 통해 주민 간의 경계 없는 접촉을 촉진하고, 서로 어울릴 수 있는 제3의 장소를 형성하려는 지점을 지지해 준다.

반려견은 이렇듯 인간의 삶 속에서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 사람들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반려견을 키우는 것은 이와 같이 직·간접적인 긍정적 영향을 받기 때문일 것이다.

2) 애완견에서 반려견으로의 전환

'반려동물 양육(pet parenting)'은 '반려동물-보호자(pet-guardian)' 관계의 일환으로, 인간 사회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양육 혹은 돌봄 관계에서의 방식을 적용하여 반려동물을 돌보는 것을 말한다. 돈과 감정과 시간을 투자해 개나 고양이를 키우고, 친부모와 같이 양육하는 것이다(Volsche, 2021; Barina-Silvestri, 2024). 즉, 우리가 애완견이라는 표현을 더 이상 쓰지 않고 어느 순간 반려견이라 부르기 시작한 것, 주인과 보호자 사이에 묘한 언어적 긴장 관계, 가족으로 포용 되기 시작하며 단순한 '개'를 넘어서기 시작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반영한다.

이러한 현상은 도시화, 교육 수준의 향상, 합계출산율의 감소,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데 목적이 있는 생식적 삶이 아닌, 외적인 삶의 지향으로 특징지어지는 '제2차 인구 전환(STD: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을 겪고 있는 문화에서 점점 더 흔해지고 있다(Lesthaeghe, 2014). 제2차 인구 전환 아래 사람들은 자유로운 선택으로 생식을 통한 부모 되기를 포기하고 그 대체물로 반려동물을 선택한다. 이들에게 반려동물은 인간 자녀와 온전히 동일하다. 이들이 인간, 생물학적 자녀를 낳아 키우는 부모보다 어떤 면에서 반려동물에게 더 많은 애정을 쏟는 모습들은 반려견이 생물학적 자녀의 절충이며 대체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 연구의 대상지인 해방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대부분의 기혼 연구 참여자는 결혼 이후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자녀가 없었고, 반려동물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참여자에 의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자녀 대신 반려견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지점에서, 이 연구는 연구에 사용되는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자 한다. 먼저 연구 대상인 '개'는 객관적인 대상으로만 칭하며, 일반적으로 집에서 키우는 개로 통용되던 '애완견'은 '반려견'으로 호칭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견주', '주인' 등 대신하여 '보호자'로 호칭한다. 사실 연구 참여자들 역시 개, 애완견, 견주, 주인, 보호자 등의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하긴 하나, 반려견과 보호자라는 용어가 더 중립적이면서 현상을 명확히 보여주는 표현으로 판단하여 이렇게 정의하고자 한다.

3_도시 속 반려견을 위한 공간 형성

1) 외국에서의 반려견 공간 연구들

반려견과 함께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자와 행인들 사이에서 주로 대화 주제는 반려견이고, 이러한 행인들은 반려견 보호자가 반려견 없이 방문하더라도 반려견과 관련된 주제를 언급하면서 대화한다(Rogers et al., 1993). 이렇듯 반려견 공원은 반려견 보호자들에게 유효한 주민 상호작용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나아가 신체적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반려견 공원에 관한 최근의 외국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Middle(2019)은 호주에서 목줄 없는 오프리시(off-leash) 반려견 공원이 신체 활동, 사회적 상호작용, 스트레스 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사례 연구를 통해 분석했다. 그 결과에 의하면 반려견 공원은 신체 활동을 증진하는 데 있어 잠재력이 낮았으나,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데 있어 높은 가능성을 보였다. 스트레스 회복에 대한 결과는 명확하지 않았으나 긍정적인 가능성을 시사했다. 결과적으로 반려견 공원의 설계와 위치 선정에서 '질보다 양'의 접근 방식을 제안하며, 미활용된 공원 부지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반려견 공원 활용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반면 미국에서의 선행 연구(Evenson et al, 2014)에 따르면, 반려견 공원은 반려견 보호자들에게 중요한 목적지가 될 수 있지만, 신체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여러 도시 및 교외 공원에서 관찰을 통해, 반려견 공원 방문자가 주로 백인 또는 기타 인종/민족에 속한 성인 여성인 경우가 많았으며, 걷기나 격렬한 신체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원을 더 자주 방문하거나 짧은 시간(1시간 이하) 동안 머무르는 사람들, 혼자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주로 반려견과 함께 걷거나 지켜보는 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반려견 공원이 반려견 보호자의 신체 활동에 일부분 기여할 수 있지만, 중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을 촉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Kase와 Koda(2024)는 일본에서 반려견 친화 구역을 포함한 도심 공원의 이용 행태를 관찰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들은 특히 반려견 보호자들과 일반 이용자들이 함께 공원을 사용하는 방식에 주목하였다. 이들의 관찰 결과, 반려견 보호자들은 해당 구역을 머무르거나 산책 중 경유지로 자주 활용하며, 공원 이용자들은 규칙을 준수하

면서 공원을 잘 관리된 상태로 이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공원은 반려견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이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도시 내 다기능 공원의 개발 및 유지 관리에 있어 모범 사례로 확인되었다.

2) 국내에서의 반려견 공간 연구들

반려동물 문화가 한국 사회에서 주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면서 많은 반려견 연구가 진행되어 있지만, 아직 반려견과 공간 연구들은 많이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다. 선행 연구들은 주로 공공주택에서 반려견과 공유하는 공간에 관한 연구나 놀이터, 산책 등과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먼저 이 연구와 가장 맞닿아있는 맥락의 연구는 송진경과 그 동료들(2022)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반려인들을 대상으로 근린생활권에서의 반려견 산책 활동과 물리적 환경 만족도를 조사하고, 반려견 놀이터에 대한 비용의 지급 의사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47.8%가 하루에 최소 한 번 이상 산책하며 주로 집 근처 산책로나 공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인들은 반려견 산책이 자신의 신체 활동 및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했으나, 산책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낮았다. 특히 목줄 없이 반려견이 운동할 수 있는 놀이터에 대한 수요가 높았으며, 지급 의사 금액은 평균 85,618원으로 추정되었다. 연구는 산책 빈도와 반려견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지급 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며, 반려견 산책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려동물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 방안을 모색하는 정민영(2024)의 연구 결과, 반려견 보호자와 비보호자 양측 모두 공공공간의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반려동물 보호자는 반려동물 친화적 시설을 선호하는 반면, 비 보호자는 별도의 공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반려동물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비 반려동물 보호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간 분리와 반려동물 보호자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 더불어 반려동물 보호자와 비보호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공존하는 도시 환경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한지영과 한혜련(2023)은 서울의 반려견 놀이터에 공공공간 디자인 요소가 적절히 적용되었는지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서울의 반려견 놀이터들은 접근성과 위치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편안함과 편의성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접근성, 편안함, 편의성, 개방성, 연결

성 등을 고려한 디자인 개선이 반려견과 견주 모두에게 적합한 공간 조성에 필수적이라고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반려견 보호자 가구와 비보호자 가구 두 집단이 아파트와 같은 집합주택에서 공존할 수 있는 공공공간의 효과적인 계획 방안을 탐구하고자 한 연구(김혜연. 2024)는 이 연구의 공간계획과 완전히 같진 않지만, 한국적 맥락에서의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해 소개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반려견 보호자 가구와 비보호자 가구 모두 공용 공간 및 부대시설에서 다양한 불편을 겪고 있으며, 불편의 원인과 필요성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음이 드러났다. 반려견 보호자 가구와 비 반려견 보호자 가구 모두가 필요로 하는 시설로는 반려견 엘리베이터 안내 버튼, 방음 시설, 쓰레기 처리 공간, 반려견 출입 방지 울타리, 예절 안내표지판, 목줄 걸이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아파트 단지 개선 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며, 본 연구는 양측의 요구를 고려한 설계 및 관리 방안이 필요함을 암시한다.

03. 분석 전략 및 연구의 수행 체계

1_연구 대상지

1) 문제해결의 대상지: 해방촌 일반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이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된 구역 내의 반려동물 인구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해방촌 권역을 연구 현장으로 한다. 이 지역은 노후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서울특별시의 근린 재생 일반 구역으로, 2021년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었다. 이 지역은 청년층과 외국인, 노년층이 어우러져 거주하는 인구적 다양성이 높은 지역으로. 따라서 각 세대와 문화권 별 차이를 염두에 둔 연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지역적 특성이 강한 해방촌에서는 더 문화적 다양성이 가미된 연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더불어 해방촌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많은 인구가 유입되었고, 방문객 역시 증가하여 지역의 활력이 되살아났다는 점에서 도시재생의 모범적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했을 때, 해방촌을 대상으로 하는 이 연구는 도시재생 지역 내 반려동물과 제3의 장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해방촌 지역의 특성 및 도시재생사업의 현황

해방촌은 해방 이후 피난민들의 정착지로 특히 산업화 시대 지방 이주민 거주지가 되면서 규모가 커졌다. 해방촌은 근처에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밀집 지역인 이태원 및 용산 미군 부대와 가까웠다는 특징에서 외국인 비율이 높은 문화의 용광로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곳의 지리적 특성은 재개발이 불가능한 구릉지 지형으로, 노후화된 지역의 상황에 대비해 한정적인 수준의 정비사업만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서울균형발전포털, 2021).

해방촌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전략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기반 시설의 정리, 노후주택

개량 및 관리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지역 자산을 활용한 마을 가치 향상, 주민 중심 공동체 네트워크 형성 지원 등을 전략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의 목표로 원주민, 공동체, 외국인 등이 융화되는 '해방촌 공동체 활성화', 지역상권 회복, 건강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다음 세대를 위해 오랫동안 살기 좋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명시하여 사업을 진행해 왔다(서울균형발전포털, 2021).

자료: 서울시청, 2017, 해방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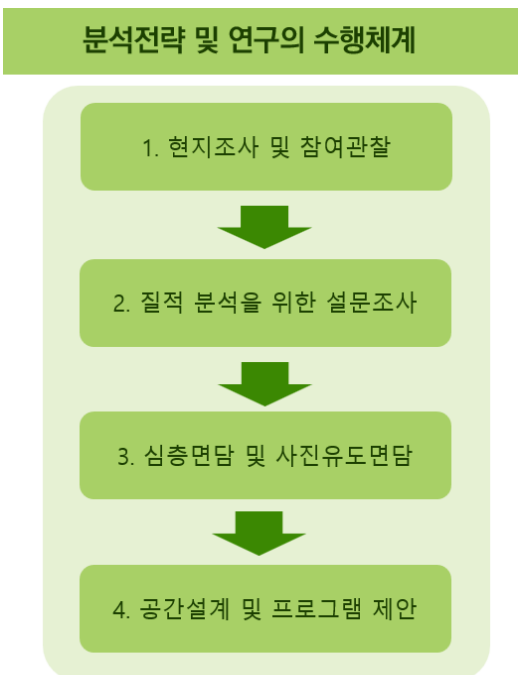
[그림 3-1] 해방촌 도시재생사업 사업구상도

3) 해방촌 도시재생지역의 문제점

해방촌의 도시재생성과는 성공적인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을 상대로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지원시설을 도시재생 지원센터와 겸용하는 등 주민지원시설의 미비, 매년 떨어지는 주민참여율 등으로 인해 주민협의체의 비활성화, 아스팔트 재포장, 시장 천창 설치 외에 주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사업 방식으로 인해 사업 만족도의 저하, 주민보다는 상권 위주의 재생 및 관광지화 등의 문제들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데일리안, 2020).

2_연구 방법

이 연구는 방법론적으로 질적 연구 방법, 즉 참여관찰과 현지조사, 인터뷰 등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질적 연구적 접근은 변수 중심의 양적 연구에 비해 도시 안에서의 다양한 맥락적 흐름을 발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Abbott, 1997).



자료: 연구자 직접 제작, 2024,

[그림 3-2] 연구의 수행 체계

이 연구의 첫 번째 분석 전략은 현지조사와 참여관찰이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해방촌 전역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지리적 조사를 진행하였다. 해방촌 곳곳을 직접 경험하며 유용한 설계적 자원을 발견해야 할 필요성과 더불어, 문제가 되는 지점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면담 참여자가 원하는 경우에 반려견 산책 동반을 함께 진행하였다. 본래는 면담과 산책을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안내해 표집을 하였으나, 면담이 진행되던 시기가 무더운 한여름이라는 기후적 특성으로 산책과 면담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또 반려견의 성격에 따라 동반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

다. 이러한 배경으로 원활한 산책 동반 활동이 어려워 산책은 신청자에 한정하여 진행하였다. 연구자들은 산책 참여관찰을 통해서 반려견과 보호자의 행동 패턴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개의 특성에 대한 이해도도 매우 높아졌다. 더불어, 산책경로를 다니면서 부가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유용한 접근방식이었다.

두 번째 분석 전략은 질적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이다. 이는 인과적 분석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해방촌 지역 반려견과 보호자들의 산책 패턴과 특징을 일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사전적 조사의 의미가 있다. 처음 연구를 시작하면서는 오로지 질적 분석을 통해 풍부한 이야기를 수집해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하지만 연구를 진행하며 민족지적 방법(ethnography)을 활용하기 어려웠던 지점과 더불어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유용한 설계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해방촌 반려견과 보호자의 특성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설문조사를 수행하되, 이 연구의 지향을 보존하기 위해 변수 위주의 인과 분석은 제외하는 방향으로 계획 및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분석 전략은 사례 분석을 위한 심층면담과 사진유도면담(photo-elicitation interview) 방식이다. 사진유도면담은 연구를 면담에 사진을 활용하여 구술을 통한 논의를 이끌어내는 방법이다. 여기서 사진은 연구자가 제시할 수도 있고, 참여자가 가져올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연구 참여자에 의해 촬영된 사진을 가지고 면담을 진행하는 경우는 포토보이스(photo voice)라고 구분 지어지며, 이 연구에서는 연구자들이 사진을 제시하여 면담하는 것으로 진행하였다(Harper 2002; Bigante 2010; Thomas 2009; Shaw, 2020). 사진을 활용한 유도면담은 참여자의 기억을 더욱 생생하게 해주고,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한다(Shaw, 2020). 특히 사진은 면담을 더 깊고 폭넓게 진행하도록 도와주며, 전통적인 인터뷰에서 흔히 겪는 피로감과 반복 문제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다(Collier, 1957). 이 연구에서 해방촌 반려견 보호자들을 전수조사할 수 없기에, 연구자의 이론적 민감성에 의지해 이론적 포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수준에서 실용적 질적 연구로 면담하며, 여러 장면의 사진을 보고 이야기하는 방식도 적용하고자 하였다.

상기 내용 이외에 이 연구에서 수행한 분석에서의 방법론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각 연구 결과 장에서 개요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04. 현지조사

1_현지조사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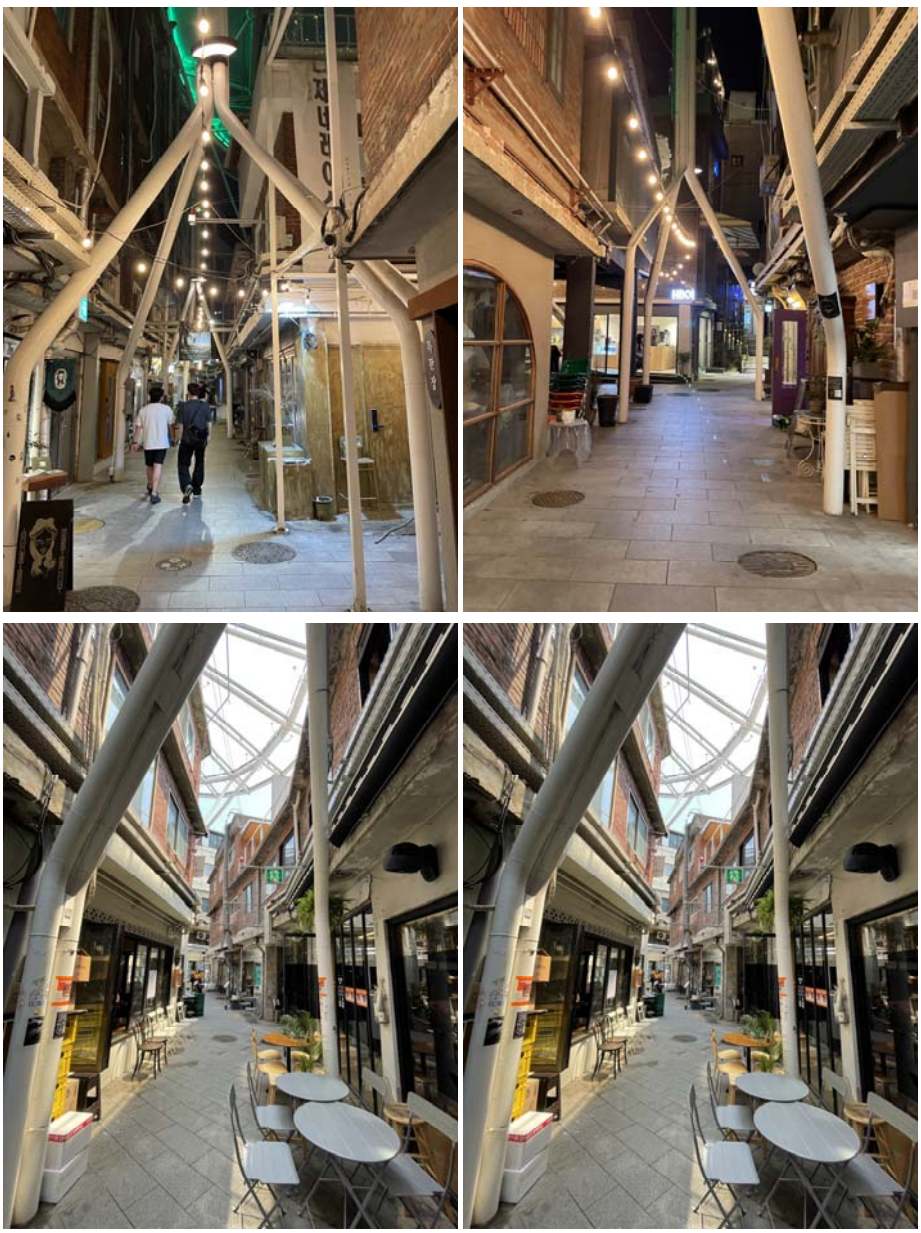
경험적 연구에 들어가기에 앞서, 연구 대상지인 해방촌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는 연구자들이 해방촌에 거주한 경험이 없다는 측면에서 설계를 할 만한 충분한 지식이 갖춰져 있지 않기에, 사전적인 배경 조사로 연구 현장을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해방촌의 지리적 현황을 포함한 물리적 환경을 조사해 해방촌의 반려동물 친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도시설계 접근에서의 자원을 확립하고, 경험 연구에 필요한 사전적 조건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현지조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현지조사는 연구에 착수하기 시작한 2024년 4월부터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다. 처음에는 목적지 없이 해방촌의 이곳저곳을 다니며 살펴보는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이러한 기초조사를 통해 발견된 해방촌의 특징적 요소 중, 연구를 위해 확인해 볼만한 자원들(e.g. 도시재생사업의 결과물; 산책로; 흔적 여행길; 정원들)을 직접 찾아 확인하는 방식으로 나머지 조사가 진행되었다.

2_현지조사의 결과

1) 해방촌의 환경과 도시재생사업

연구를 위해 해방촌을 여러 차례 답사하면서, 해방촌의 도시재생사업이 언론에서 보도된 부정적 평가들보다 긍정적으로 보이는 요소들이 많다고 판단되었다. 아래는 해방촌 도시재생계획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신흥시장의 도시재생사업 결과물로서, 기존 건축물들을 보존하면서 천장에 캐노피를 설치해 보행성을 높인 점은 공간의 접근

성을 상당히 향상시키고 있었다. 쾌적한 공공 화장실을 설치해 불편성이 줄어들었고, 입주한 가게들 역시 적절한 시장성과 지역성(locality)를 모두 담고 있어 적절한 구성으로 판단되었다(그림 4-1).



자료: 연구자가 직접 촬영, 2024

[그림 4-1] 신흥시장의 도시재생 결과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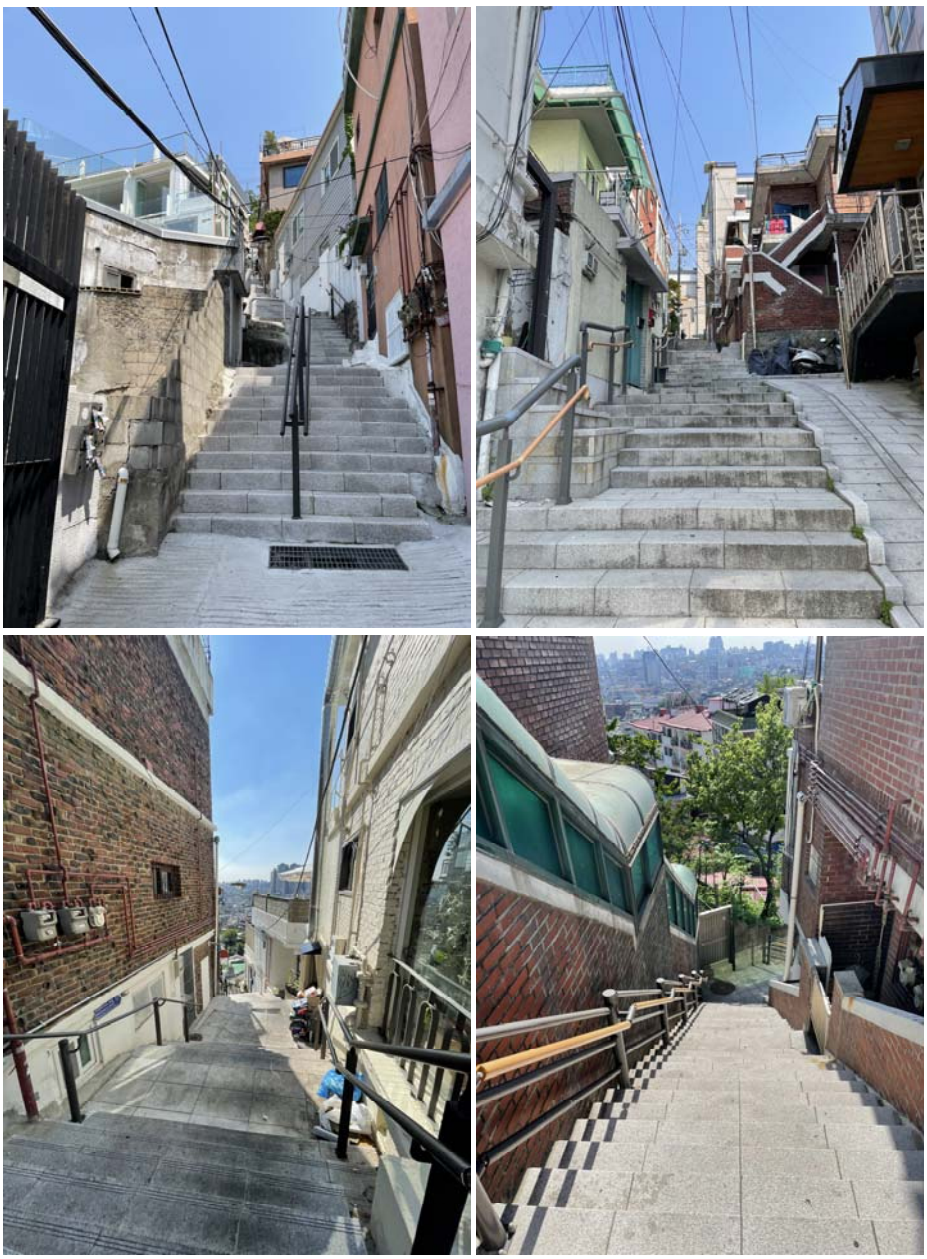
해방촌 도시재생사업에선 구릉지의 지형과 저층 주거지 위주의 주택 배치로 인한 불편성을 완화하기 위한 각종 기반 시설의 개선 역시 진행되었다. 아래의 [그림 4-2]에 나오는 엘리베이터는 해방촌의 108계단 지역의 보행성 개선을 위해 설치된 모습이다. 이러한 엘리베이터는 많은 주민, 특이 어린이와 노인에게 매우 편리한 시설임을 관찰할 수 있었다. 비록 각자의 집으로 가는 골목골목은 매우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한계가 있지만, 버스정류장에서 연결된 공간에 엘리베이터가 제공된 덕에 접근성이 향상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자료: 연구자가 직접 촬영, 2024

[그림 4-2] 108계단 엘리베이터

해방촌은 구릉지 지역답게 매우 가파른 면이 많아 보행에 장애가 되는 부분이 있다. 아래의 사진에 나오는 계단시설 구비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중심가 지역이 아니지만, 매우 가파른 지형으로 계단이 구비되지 않으면 불편이 상당한 지역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곳에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보행성을 향상하는 계단시설이 설치되었다. 특히 이들 시설은 쾌적한 공간이 되도록 공간적 배치에 신경을 쓴 덕분에, 이곳에 앉아 휴식을 취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하는 주민 혹은 방문객도 종종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종합하면 계단시설은 이 연구가 제안하고자 하는 제3의 장소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주민 매개 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다(그림 4-3).

하지만 이러한 공간이 절대적으로 많다고 하기는 어렵다. 특히 연구자들 역시 연구를 위해 방문할 때마다 이들 구릉지 지형을 오가기는 쉽지 않은 점이 많았다. 특히 골목이 좁고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공간이 많은데 이런 지형적 한계를 극복하고 반려동물과 사람이 안전하게 산책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한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되는 지점 역시 존재했다. 따라서 이 연구의 주민대상 조사의 진행에 있어서는 공간적 시설 현황에 대한 주민들 대상의 조사가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사진유도면담 방법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자료: 연구자가 직접 촬영, 2024

[그림 4-3] 해방촌의 정비된 계단들

2) 해방촌의 작은 정원들과 흔적 여행길

더불어 해방촌에는 다양한 주민 매개적 공간으로서의 잠재력이 있는 공간들이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었다. 가장 먼저, 2019년 개최된 해방촌에서의 정원박람회는 해방촌 지역 전역의 작은 공간들을 정원으로 형성해 왔다. 연구자는 이러한 정원박람회에서 형성된 정원 공간들을 조사했는데, 기대처럼 매우 잘 구성되어 있는 정원이거나 위치적으로 방문이 편리한 곳이 아니라는 한계는 있었다. 그렇지만 삭막한 공간 가운데 뜻밖의 행운처럼 발견된 작은 정원은 매우 좋은 연결망의 노드(node)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정원박람회 이후에도 서울시에서 담당 정원사를 배치해 지속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정원 공간을 이 연구의 장소 계획에 활용할 경우 기존 시설을 잘 활용한 도시재생적 측면이 더욱 도드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그림 4-4).

자료: 연구자가 직접 촬영, 2024

[그림 4-4] 서울정원박람회에서 조성된 해방촌의 정원들

다음으로, 해방촌은 녹색골목길이라는 골목길 계획이 되어있다는 특성이 있다. 이는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의 일환인 녹색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의 결과로 서울시와 용산구가 조성한 것으로, 역사탐방로, 녹색골목길, 안전골목길, 화단 및 담장 녹화, 모자이크 타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4-5).

자료: 연구자가 직접 촬영, 2024

[그림 4-5] 해방촌 녹색골목길 안내도

구체적으로 역사문화탐방로는 역사적인 공간인 해방촌성당, 교회, 일본 호국신사터 등을 연결하는 역사적인 공간으로 아스콘 포장, 야간 경관조명 등을 통해 정비했고, 다문화 흔적 여행길은 외국인들과 함께 성장해 온 해방촌의 역사적 장소들을 대상으로 보도 포장, CCTV 설치 등을 진행했다. 마을 흔적 여행길의 경우 마을전망대와 스토리 안내사인 등을 설치하고 마찬가지로 계단 정비와 경관조명 등을 설치했다. 해방촌 곳곳에서는 이러한 탐방로나 골목길 안내표지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정비와 관리가 들어가는 곳이라고 하기에 지나치게 가파르고 이동성이 높지 않다는 한계는 있다. 또 이 공간들은 주민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겠지만, 외부인들을 위한 산책 경로로서의 기능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주민들의 연결고리로서 기능을 고려하는 이 연구에서 기존 탐방길의 활용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고려 대상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이곳에 여러 한계점이 존재하긴 하나, 녹색골목길이 이 연구의 설계계획과 연계해 활용하기에 매우 적절한 산책로의 초안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그림 4-6).

자료: 연구자가 직접 촬영, 2024

[그림 4-6] 흔적 여행길 안내도

3) 해방촌의 반려견과 그 보호자들

이 조사 결과의 서술에서 보조자료로 반려견과 보호자들의 사진은 초상권 문제로 생략하고자 한다. 먼저 해방촌의 반려동물을 관찰해보면, 특징적으로 주인이 젊고 옷차림이 매우 화려한 편이다. 이는 동물과 함께 산책하는 이들이 이곳의 주민인지 방문객인지 판단하기 어렵게 한다. 물론 매우 복잡한 주거지 골목의 산책 중인 반려견과 주인은 그곳에 사는 주민일 수 있으나, 상업지에서 볼 수 있는 반려견의 경우 그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반려견들의 품종 역시 다양해 지역의 개성적인 특색을 드러내고 있었으며, 중·대형견이 많이 보인다는 특징 역시 파악되었다. 따라서 구체적인 주민 대상의 설문조사와 질적 연구에서는 이런 지점들까지 포함해 심층면담이 진행되었다.

다음 사진들은 해방촌의 반려동물 현황을 보여주는 사진들이다. 전자의 경우 해방촌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반려견 동반 카페와 아이스크림 가게의 반려견 전용 메뉴에 대한 안내 포스터 등이고(그림 4-7) 아래의 사진들은 해방촌에서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반려견 배설물 투기에 대한 경고 및 예절 수칙에 대한 안내문들이다(그림 4-8).

자료: 연구자가 직접 촬영, 2024

[그림 4-7] 해방촌 카페들의 반려견 전용 메뉴 포스터

해방촌에는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있는 휴게음식점이 많다. 일반적인 동네에서도 종종 보이는 강아지 카페나 고양이 카페 등 반려동물 특화 카페가 아닌 일반적인 카페에도 반려견과 보호자가 함께 있는 장면은 매우 흔하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저 사람이 먹는 것만 파는 카페나 아이스크림 가게처럼 보이지만, 가게마다 특화된 반려견 메뉴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강아지 전용 아이스크림이나 케이크, 빵 등은 육포나 뼈, 생선 간식 정도만 알고 있던 연구자들에게 매우 놀라운 장면이었다. 흔히 보기 어려운 메뉴들을 통해 해방촌의 반려동물 친화성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더불어 해방촌 곳곳을 다니면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경고물들은 해방촌에서 반려동물 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갈등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 해방촌을 다니면서 의외의 장소에 반려견 배설물들이 투기되어 있는 장면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렇듯 공공기관의 안내 지침 외에도 살벌한 표현으로 경고하는 경고문들을 통해, 반려견 수칙 문제가 반려견 친화 공간에 있어 중요한 축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자료: 연구자가 직접 촬영, 2024

[그림 4-8] 해방촌의 반려견 배설물 경고 및 수칙 안내물

05. 설문조사

1_설문조사의 개요와 기초분석

해방촌의 반려견 현황과 그들의 산책 등 활동 패턴을 확인하기 위해 총 표본 수 108명의 반려견 보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조사는 2024년 7월부터 9월까지 수집되었다. 설문조사 방법은 해방촌 내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가에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수행하였다. 설문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이 제공되었다. 108명의 응답자 중 78.7%가 한국인이었으며, 21.3%가 외국인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해방촌의 인구조사 결과 전체의 14%가 외국인(통계청, 2013)이라는 결과를 고려했을 때 적절한 구성으로 판단된다. 연령대는 30대가 49.1%, 40대가 25.9%, 20대가 11.1%가 그 뒤를 따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설문조사에서 다소 젊은 층 위주의 표집이 된 배경에는, 노령 산책 주민이 조사 당시에 적었고, 노령 주민의 응답 거절 빈도가 높은 문제가 있었다. 성별은 여성 응답자가 61.5%로 남성보다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표 5-1).

[표 5-1] 설문참여자의 기본정보에 대한 빈도분석표

(단위: 명, %)

구분		빈도	%
국적	한국인	85	78.7
	외국인	23	21.3
	전체	108	100
연령	10대	1	0.9
	20대	12	11.1
	30대	53	49.1
	40대	28	25.9

구분		빈도	%
	50대	3	2.8
	60대	8	7.4
	70대	3	2.8
	전체	108	100
성별	여성	69	63.9
	남성	39	36.1
	전체	108	100
양육두수	1마리	86	79.6
	2마리	18	16.7
	3마리	4	3.7
	전체	108	100

반려견에 대한 기본정보로는 가구당 양육 두수, 성별, 나이, 품종 등이 포함된다. 전체 반려견 표본 수 134마리 중 양육 두수의 경우, 79.6%의 응답자들이 1마리의 반려견을 키우고 있으며, 2마리 이상의 반려견을 양육하는 응답자는 20% 이하로 나타났다. 반려견의 성별 분포는 수컷이 55%로 조금 더 많고, 암컷이 45%를 차지하고 있다. 반려견의 나이는 1~6세 사이가 대부분이며, 7세 이상의 노령견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을 보였다. 품종에 있어서는 믹스견과 순종견이 각각 49%와 51%로 거의 동일한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선호되는 반려견 품종이 매우 다양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려견의 크기는 소형견이 37%로 가장 많으나, 대형견도 34%, 중형견도 29%로 균형적인 크기 선호의 분포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5-2).

[표 5-2] 설문참여자의 반려견 기본정보에 대한 빈도분석표

(단위: 마리, %)

구분		빈도	%
성별	암	60	45%
	수	74	55%
	전체	134	100
견령	1	19	14%
	2	12	9%
	3	15	11%
	4	12	9%

구분		빈도	%
	5	7	5%
	6	13	10%
	7	10	7%
	8	12	9%
	9	10	7%
	10	7	5%
	11	6	4%
	12	2	1%
	13	3	2%
	14	2	1%
	15	4	3%
	전체	134	100
품종견 여부	믹스견	65	49%
	순종견	68	51%
	전체	133	100
크기	소형견	50	37%
	중형견	39	29%
	대형견	45	34%
	전체	134	100%

산책 빈도와 선호 시간대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루 2회 산책이 39.8%로 가장 흔했으며, 하루 3회 산책은 25.9%, 하루 1회 산책은 24.1%로 나타났다. 산책 시간대에 대한 선호는 아침 산책이 73.1%로 가장 높았으며, 저녁 산책이 66.7%, 낮 산책이 33.3%로 나타났다(표 5-3).

[표 5-3] 산책횟수와 산책 선호 시간대에 대한 빈도분석표

(단위: 명, %)

구분		빈도	%
산책횟수	1회	26	24.1
	2회	43	39.8
	3회	28	25.9
	4회	8	7.4

구분		빈도	%
	5회	3	2.8
	전체	108	100
아침산책선호	비선호	29	26.9
	선호	79	73.1
	전체	108	100
낮산책선호	비선호	72	66.7
	선호	36	33.3
	전체	108	100
저녁산책선호	비선호	37	66.7
	선호	71	33.3
	전체	108	100
밤산책선호	비선호	57	52.8
	선호	51	47.2
	전체	108	100

산책 시간에 대한 조사 결과, 30분 이내의 산책을 선호하는 경우가 35.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시간 이내가 28.7%, 1시간 이상이 27.8%로 장시간 산책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45분 이내의 산책은 23.1%, 하지만 15분 이내에 산책은 6.5%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응답자 대부분이 반려견에게 긴 산책 시간을 제공하려고 함을 알 수 있었다(표 5-14).

[표 5-4] 산책시간에 대한 빈도분석표

(단위: 명, %)

구분		빈도	%
15분 이내	아니오	101	93.5
	예	7	6.5
	전체	108	100
30분 이내	아니오	70	64.8
	예	38	35.2
	전체	108	100
45분 이내	아니오	83	76.9
	예	25	23.1

구분		빈도	%
	전체	108	100
1시간 이내	아니오	77	71.3
	예	31	28.7
	전체	108	100
1시간 이상	아니오	78	72.2
	예	30	27.8
	전체	108	100

2_교차분석: 반려견 크기와 국적에 따른 비교

실용적 질적 연구로 넘어가기에 앞서, 국적에 따른 반려견 크기 및 품종견 선호도와 반려견의 크기에 따른 산책 구역 선호 요인과 패턴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외국인과 한국인 주민 간 인식과 행동의 차이가 있는 이유를 탐색해 볼 필요가 있으며, 반려견 크기가 해방촌 내의 산책 패턴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 반려견 크기에 따른 선호도 차이

지도 위에 주민이 직접 산책 경로를 그리는 조사 결과, 해방촌 산책로는 크게 5개 권역으로 나눌 수 있었다. 이를 두고 반려견의 크기와 국적을 준거로 두고 교차분석을 수행했다. 이는 반려견의 크기는 활동성, 체력, 성격 등에 영향을 미쳐 산책권역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해서이며, 더불어 국적에 따라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나 선호하는 지리적 특성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녹사평역에서 해방촌으로 들어오는 〈A구역〉의 경우 전체 보호자의 54%, 구체적으로 소형견 보호자의 45%, 중형견 보호자의 70%, 대형견 보호자의 49%가 산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이유는 이 구역에 동물병원 두 곳이 있고, 반려견 친화적인 가게들과 다양한 식당 등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결과를 보면 특히, 중형견 소유자가 〈A구역〉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A구역〉의 환경이 중형견에게 더 적합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중형견 보호자들이 구역의 공간적 여건이나 시설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소형견과 대형견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비슷한 비율로 선호와 비선호가 나뉘어, 해당 구역이 모든 견종에게 최적의 환경은 아닐 수 있음을 보여준다(표 5-5).

[표 5-5] 반려견 크기에 따른 〈A구역〉 선호도의 교차분석표

(단위: 명, %)

분류		비선호	선호	전체
소형견	빈도	21	17	38
	%	55%	45%	100%
중형견	빈도	10	23	33
	%	30%	70%	100%
대형견	빈도	19	18	37
	%	51%	49%	100%
전체	빈도	50	58	108
	%	46%	54%	100%

반면 〈B구역〉에서는 전체 보호자의 18%, 소형견 보호자의 16%, 중형견 보호자의 12%, 대형견 보호자의 24%만이 이곳에서의 산책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대형견 보호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대다수의 응답자가 이 구역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결과는, 〈B구역〉이 반려견 산책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B구역〉은 후암동으로 가는 방향 일대이다. 이 연구의 심층면담에서도 가게나 편의시설 등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며, 특별히 매력적인 공간으로 평가되진 않는다. 특히 해방촌 거주지역 특유의 좁은 도로나 관광객이 많은 이유로 생기는 보행 안전 문제, 녹지 부족 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보인다(표 5-6).

[표 5-6] 반려견 크기에 따른 〈B구역〉 선호도의 교차분석표

(단위: 명, %)

분류		비선호	선호	전체
소형견	빈도	32	6	38
	%	84%	16%	100%
중형견	빈도	29	4	33
	%	88%	12%	100%
대형견	빈도	28	9	37
	%	76%	24%	100%
전체	빈도	89	19	108
	%	82%	17%	100%

다음으로 〈C구역〉에 대해서 전체 보호자의 34%, 소형견 보호자의 37%, 중형견 보호자의 18%, 대형견 보호자의 46%가 산책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C구역〉은 해방촌 내에서도 매우 가파른 지형으로 유명하다. 가파른 지형은 개의 신체 구조상 중·소형견보단 대형견에게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구릉지 지역은 대형견들에게 어렵지 않은 산책 조건임을 알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더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독특한 점은 이곳이 소형견 보호자들도 어느 정도 선호하는 구역으로 나타났다는 것인데, 이는 기본적으로 주택 밀집지역이라는 점에서 소형견 보호자들이 거주하면서 주변 위주로 산책하러 다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표 5-7).

[표 5-7] 반려견 크기에 따른 〈C구역〉 선호도의 교차분석표

(단위: 명, %)

분류		비선호	선호	전체
소형견	빈도	24	14	38
	%	63%	37%	100%
중형견	빈도	27	6	33
	%	82%	18%	100%
대형견	빈도	20	17	37
	%	54%	46%	100%
전체	빈도	71	37	108
	%	66%	34%	100%

남산 녹지 축인 〈D구역〉에서는 전체 보호자의 63%, 소형견 보호자의 68%, 중형견 보호자의 48%, 대형견 보호자의 70%가 이곳에서의 산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산공원과 백범광장 등 녹지공간이 풍부한 〈D구역〉이 모든 크기의 반려견에게 적합하다는 점을 시사하며, 모두에게 이상적인 산책 환경을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D구역〉은 그 자체로 산과 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자연 친화적이라는 측면에서 개들에게 다양한 자극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적 요소이다. 또 차량 통행이나 인파로 인한 교통안전 문제를 겪는 해방촌 내부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안전하면서 쾌적한 공간으로 인식된다. 이렇게 자연 친화적인 환경은 해방촌 자체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대체하는 기능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표 5-8).

[표 5-8] 반려견 크기에 따른 〈D구역〉 선호도의 교차분석표

(단위: 명, %)

분류		비선호	선호	전체
소형견	빈도	12	26	38
	%	32%	68%	100%
중형견	빈도	17	16	33
	%	52%	48%	100%
대형견	빈도	11	26	37
	%	30%	70%	100%
전체	빈도	40	68	108
	%	37%	63%	100%

〈E구역〉은 전체 보호자의 26%, 소형견 보호자의 18%, 중형견 보호자의 30%, 대형견 보호자의 27%가 이 구역에서의 산책을 선호한다고 답변했다. 〈E구역〉은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반려견 보호자에게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인다. 이러한 점은 이 구역의 반려견 산책 환경이 열악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면담조사에서도 해당 구역은 많은 경우 가파른 언덕이 많고, 특별한 매력이 없어 지루하다는 평가를 받곤 하였다. 반면 조용하다는 특성이 장점이기에 자주 방문한다는 참여자들도 확인할 수 있는 점에서 보호자들이나 반려견의 성격에 따른 취향이 극명한 곳으로 판단하였다. 이곳은 반려견 친화 공간적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구역으로, 놀이터 등 반려견 친화적인 시설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표 5-9).

[표 5-9] 반려견 크기에 따른 〈E구역〉 선호도의 교차분석표

(단위: 명, %)

분류		비선호	선호	전체
소형견	빈도	31	7	38
	%	82%	18%	100%
중형견	빈도	23	10	33
	%	70%	30%	100%
대형견	빈도	27	10	37
	%	73%	27%	100%
전체	빈도	81	27	108
	%	75%	25%	100%

2) 국적에 따른 선호도 차이

[표 5-10] 국적에 따른 반려견 크기 교차분석표

(단위: 마리, %)

분류		소형견	중형견	대형견	전체
한국인	빈도	44	33	29	106
	%	42%	31%	27%	100%
외국인	빈도	6	6	16	28
	%	21%	38%	57%	100%
전체	빈도	50	39	45	134
	%	37%	29%	34%	100%

다음의 표들은 국적에 따른 반려견 특성의 차이 및 해방촌 내의 산책 구역 선호의 차이를 확인해 보고자 교차분석을 진행한 결과이다. 먼저, 외국인들은 57%가 대형견을 키우지만, 한국인은 27%에 불과하다(표 5-10). 이는 한국인과 외국인의 큰 차이점 중 하나이다. 품종견 선호 결과의 경우, 한국인은 믹스견이 39%, 품종견이 61%로 품종견 선호 경향이 더 높으나, 외국인은 82%가 믹스견을 키우고 있다는 점에서 품종견 선호현상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표 5-11).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조사 결과에서 해방촌 지역의 한국인이 키우는 믹스견 비율이 39%라는 것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점일 것이라는 것이다. 타 도시지역에서 대부분 유행하는 품종견 위주로 반려견이 선택되는 것과 달리, 해방촌을 구성하는 반려견 품종은 매우 다양하다는 측면에서, 해방촌의 한국인 보호자들은 품종견 여부에도 더 유연한 태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표 5-11] 국적에 따른 품종견 선호 교차분석표

(단위: 명, %)

분류		믹스견	품종견	전체
한국인	빈도	41	63	104
	%	39%	61%	100%
외국인	빈도	23	5	28
	%	82%	18%	100%
전체	빈도	64	68	132
	%	48%	52%	100%

다음으로 국적에 따른 산책 구역 선호의 교차분석 결과, 〈A구역〉의 경우 한국인의 48%와 외국인의 74%가 산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한국인보다 〈A구역〉을 훨씬 더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외국인들이 이 구역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곳은 '다문화흔적 여행길'로 지정될 만큼 다양한 외국인들이 모여 살면서 관련 업소들 역시 많다는 특성이 있다. 이 근방이 아마도 해방촌에서 가장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거주지역이라는 측면에서도 이곳은 주요한 산책 구역으로 판단된다. 또 외국인과 외국인이 운영하는 업소들이 많아 언어·문화적 차이나 생활 습관의 차이로 인한 불편함이 줄어들기에 외국인들이 〈A구역〉의 환경적 요인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표 5-12).

[표 5-12] 국적에 따른 〈A구역〉 선호도의 교차분석표

(단위: 명, %)

분류		비선호	선호	전체
한국인	빈도	44	41	85
	%	52%	48%	100%
외국인	빈도	6	17	23
	%	26%	74%	100%
전체	빈도	50	58	108
	%	46%	54%	100%

후암동 방향의 〈B구역〉은 한국인의 20%, 외국인의 9%만이 산책 경로로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대부분 〈B구역〉을 선호하지 않는 비율이 매우 높으며, 이는 이 구역의 산책 환경이 반려견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표 5-13).

[표 5-13] 국적에 따른 〈B구역〉 선호도의 교차분석표

(단위: 명, %)

분류		비선호	선호	전체
한국인	빈도	68	17	85
	%	80%	20%	100%
외국인	빈도	21	2	23
	%	91%	9%	100%
전체	빈도	89	19	108
	%	82%	18%	100%

반면 해방촌의 구릉지 지형의 특색이 잘 나타나는 〈C구역〉에서는 한국인의 32%, 외국인의 44%가 산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들이 한국인보다 〈C구역〉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외국인들이 이 근방에 많이 거주할 것이라는 점과, 이 구역의 시설이나 환경적 요소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5-14).

[표 5-14] 국적에 따른 〈C구역〉 선호도의 교차분석표

(단위: 명, %)

분류		비선호	선호	전체
한국인	빈도	58	27	85
	%	68%	32%	100%
외국인	빈도	13	10	23
	%	57%	44%	100%
전체	빈도	71	37	108
	%	66%	34%	100%

남산공원을 포함하는 녹지공간인 〈D구역〉에서 한국인의 66%, 외국인의 52%가 산책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한국인의 선호도가 더 높은데, 이 구역의 녹지나 산책로의 질적인 측면이 한국인들에게 더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면담자료를 확인해 보면 외국인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파른 언덕 지형 등에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측면이 있고, 다양한 산책 경로를 시도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한국인에 비해 비교적 낮은 선호도의 배경 이해를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표 5-15).

[표 5-15] 국적에 따른 〈D구역〉 선호도의 교차분석표

(단위: 명, %)

분류		비선호	선호	전체
한국인	빈도	29	56	85
	%	34%	66%	100%
외국인	빈도	11	12	23
	%	48%	52%	100%
전체	빈도	40	68	108
	%	37%	63%	100%

마지막으로 〈E구역〉은 한국인의 22%, 외국인의 35%가 선호하고 있다. 〈E구역〉은 전반적으로 낮은 선호도를 보이는데, 외국인들의 경우 이 근방까지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면담 조사에서도 상대적으로 이곳의 고요함을 더 좋아하는 경향도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더 선호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표 5-16).

[표 5-16] 국적에 따른 〈E구역〉 선호도의 교차분석표

(단위: 명, %)

분류		비선호	선호	전체
한국인	빈도	66	19	85
	%	78%	22%	100%
외국인	빈도	15	8	23
	%	65%	35%	100%
전체	빈도	81	27	108
	%	75%	25%	100%

위의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이 설문조사 결과는 반려견의 크기 및 주인의 국적에 따라 산책 구역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달라짐을 보여준다. 중형견과 대형견은 〈D구역〉과 같은 넓은 녹지공간을 선호한다. 반려동물에게 적합한 녹지공간이 부족하기에 남산공원 권역을 선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곳 역시 반려동물 친화적 공간이라고 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반려견을 반기지 않는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주민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면담에서 확인되었다. 또 해방촌의 가파른 구릉지라는 지형적 특성은 사람에게나 동물에게나 산책이 어려운 지점인데, 인파와 차가 많고 인도가 부족한 현실로 인해 내부 권역의 산책 선호도가 떨어지는 편이라는 점에서 〈B구역〉과 〈E구역〉은 선호도가 낮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외국인 응답자들은 특정 구역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반려동물 친화 공간 설계 시 이러한 차이를 확인할 필요성과 더불어 문화적 차이에 의한 취향을 고려해 맞춤형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개방형 문항을 통해 필요한 요소들을 조사한 결과, 해방촌 구역 안에서 반려동물에게 제공될 수 있는 전용 놀이터 등을 빈 공간을 활용해 제공해 주길 원하는 요청이 다수였다. 또한, 배변 문제는 심각한 갈등을 낳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특히 배변 처리를 위한 쓰레기통이 주요 장소에 설치될 필요가 있다는 요청이 많았다.

더불어 도로의 청결 문제 역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떨어진 쓰레기 등을 개들이 섭취하는 등의 사고도 빈번하다는 것이다. 또한 개방형 문항과 더불어 길거리 설문조사에 참여한 많은 참여자에 의하면 개들은 주민들 간의 교류를 촉진하는 면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갈등을 낳는 경우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i.e. 보호자 간; 혹은 반려견 보호자와 비 반려견 보호자인 주민 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설문 참여자들 중 흥미로운 시각의 흐름이 보였는데, 보호자들 자체적으로 시민의식 개선과 반려견 행동 개선을 촉구하는 주장이 많았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 장의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06. 실용적 질적 연구: 사례 연구와 사진유도면담

1_심층면담의 개요

실용적 질적 연구의 측면에서 사례 연구를 위해 한국인 10명, 외국인 10명의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외국인의 국적은 중국 1명, 남아프리카공화국 1명, 영국 2명, 미국 6명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해방촌을 주 커뮤니티로 두는 용산2가동, 후암동, 이태원 2동 등 근방 용산구 거주민에게 한정하였다. 해방촌은 용산2가동에 위치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해방촌 권역 내에서 후암동과 이태원 등은 해방촌 주민들이 손쉽게 이주를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는 주요 인접지라는 점에서 해방촌 거주 경험을 가진 주변 지역 주민들이 많다. 더불어 반려견 친화 공간과 커뮤니티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실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해방촌(용산2가동)인 주민으로 한정해 거주민을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 주거지가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는 K10 참여자 외에 대부분 해방촌 권역에 거주 중인 참여자를 표집하였다.

처음에는 거리에서 연구 내용과 참여 QR코드를 포함한 안내 브로셔를 배부하며 홍보하였으나, 홍보 효과가 미진하였다. 표집에 어려움을 겪던 중 외국인의 경우 초기 연구 참여자가 주변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면서 다수의 연구 참여자를 모집할 수 있었고, 한국인의 경우 해방촌에 위치한 반려동물 커뮤니티 활동 담당자와 반려동물 친화 업소 주인들의 SNS 홍보 등을 통해 충분한 인원을 표집할 수 있었다.

면담은 1건(K4)의 비대면 면담 외에 모두 해방촌 권역에 위치한 카페에서 대면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연구안내서와 참가 동의서를 교부하였으며,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하였다. 면담 시간은 평균적으로 1시간 20분 정도 진행되었으며, 한국인들은 한국어로, 외국인들은 영어로 진행하였다. 각 녹취파일은 전사 작업을 통해 분석자료로 구성하였으며, 외국인 대상의 자료는 한국어로 번역하여 분석에 활용

하였다. 면담에 필요한 문항들은, 설문조사에서 도출된 반려견과 보호자들의 특성 중 확인해 볼 지점들을 위주로 구성하였으며, 더불어 개방형 문항을 통해 구해진 요소들과 연구자들의 답사 등을 통해 구성하였다. 특히 반구조화된 사례 연구용 면담 외에도 사진유도면담 방식을 활용해 해방촌의 지리환경과 공간계획에 대한 평가를 함께 진행하였다. 더불어 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반려견 산책에 연구자들이 동행하여 산책 활동을 참여 관찰할 수 있었다.

[표 6-1] 질적 연구 참여자의 기본적 정보

일련 번호	국적	성별	연령대	직업	거주 년차	양육 두수	반려견의 크기 및 품종	입양처
F1	영국	여	40대	컨설턴트	2년차	1	대형(믹스)	분양
F2	남아공	남	40대	영어교사	6년차	1	소형(믹스)	구조
F3	미국	여	40대	국제학교교사	14년차	3	소형(믹스;순종;믹스)	구조
F4	미국	남	40대	대학교수	6년차	2	중형(중형;대형)	구조
F5	영국	여	40대	대학교수	9년차	1	소형(순종)	분양
F6	미국	남	30대	자영업	4년차	1	중대형(순종)	구조
F7	중국	여	30대	직장인	4년차	1	중대형(순종)	구조
F8	미국	여	30대	영어교사	4년차	1	중대형(순종)	구조
F9	미국	남	30대	영어교사	4년차	1	중대형(믹스)	구조
F10	미국	여	30대	영어교사	6년차	1	소형(믹스)	구조
K1	한국	남	30대	요식업	2년차	1	대형(믹스)	구조
K2	한국	여	40대	자영업	3년차	1	중형(순종)	구조
K3	한국	여	30대	예술가	34년차	1	중대형(믹스)	구조
K4	한국	여	30대	직장인	17년차	1	중형(믹스)	구조
K5	한국	여	20대	직장인	3년차	1	중형(순종)	구조
K6	한국	여	40대	직장인	7년차	1	중대형(믹스)	구조
K7	한국	남	30대	직장인	4년차	2	소형(순종)	분양
K8	한국	여	30대	연구직	30년차	1	중대형(순종)	분양
K9	한국	여	30대	자영업	9년차	2	대형(순종);중대형(믹스)	구조
K10	한국	여	20대	직장인	3년차	1	중형(순종)	구조

2_사례 연구

1) 해방촌 거주선호 요인

연구 참여자들의 해방촌 거주선호 요인은 크게 (1) 저렴한 거주비와 위치적 편의성, (2) 국제적이고 다문화적인 환경, (3) 이웃 간 친밀한 마을 분위기, (4) 반려동물에 친화적인 환경의 네 가지 요소로 분류할 수 있었다.

(1) 저렴한 거주비와 위치적 편의성

연구 참여자 K1은 2024년 8월 기준,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5만 원을 지불하면서 소위 투룸(2-room) 주택에 거주 중이다. 2024년 7월 보도기사에서 서울시 원룸(전용면적 33㎡ 이하, 보증금 1000만 원) 기준의 평균 월세가 70만 원으로 보도되었다. 특히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원룸 월세가 가장 비싼 곳이 해방촌이 위치한 용산구로, 용산의 평균 월세가 94만 원으로 조사된 것과 비교하면 해방촌의 월세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임을 알 수 있다(한국경제신문, 2024). 하지만 해방촌이 갈수록 거주 선호 지역으로 되어가면서 월세가 오르기 시작해 주변 지역으로 밀려가는 현상 역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점 같은 경우에, 일단은 월세가 싸다. 월세가 싼데, 방이 이제 어느 정도 큰데도 세가 많이 싼 편이고." (K1)

"보통 집세가 더 저렴하고, 외국인들에게 더 저렴하게 제공된다는 점이 장점이죠. 보증금도 다른 곳은 1천만 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방촌은 500만 원이나 200만 원으로도 살 수 있어요. ··· (연구자: "왜 최근 이태원 근처로 이사하셨어요?") 집세가 저렴해서 이사했어요. 집주인이 자꾸 임대료를 올리더라고요. 처음에는 60만 원이었는데 70만 원으로 올리고, 나중에는 75만 원까지 올려서 더는 감당할 수 없었어요." (F5)

"부동산에서 빌라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저렴했어요. 강남이나 서초에서도 집을 알아봤지만, 그곳들은 해방촌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그래서 해방촌에서는 더 넓은 집을 상대적으로 적은 돈으로 구할 수 있었죠." (F6)

"다른 데에 비해서는 좀 그때 당시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조금 저렴했으니까

부동산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았으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렴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새집들은 비싸요. 근데 이제 예전 집인데 그냥 이렇게 그러면 이제 뭐 그래도 좀 저렴하긴 하죠. ··· (연구자: "주택 매매 시세는 어떤가요?") 그냥 그냥 천천히 오르고 있는데,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 오히려 외곽에 있는 동네 정도? 그거보다 조금 높은. 아무래도 요즘에 유명해져서. 그래서 세가 올라갔어요. 그전엔 안 그랬어요. ··· 거기(녹사평역 인근)로 가거나 보광동으로 가거나, 다 그쪽으로 그렇게 가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 왜냐하면, 요즘에 올라가니까 이게." (K7)

K8 참여자는 원래 후암동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다 다시 후암동에 집을 구해 독립한 경우이다. 그러다 해방촌이 인근 후암동에 비하면 월세가 저렴하고 또 반려견에게 친화적이라는 이유로 후암동에 살다 용산2가동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특이한 점은, 이처럼 이 지역에 오래 거주한 '토박이' 거주민들은 가족과 기존 이웃이 없는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고려할 법도 하지만, 워낙 거주만족도가 높아 K4 참여자와 같이 기존에도 가족과 같이 살던 해방촌에서 자신만의 다른 집을 얻어 독립하기도 한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후암동의 집이 잘 안 나올뿐더러, 가격대도 잘 안 맞기도 하고. 의외로 집주인들은 개 있는 걸 싫어하세요. 그래서 이제 개 기르는 게 된다 하는데 또 이렇게 찾다 보니까, 가격이 맞으면 개가 절대 안 그래서 이제 해방촌까지 굴러가긴 한 거죠." (K8)

이렇듯 해방촌을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는 위치의 장점이다. 해방촌은 편의시설도 많고 무엇보다 교통적으로 강남과 강북, 강동, 노원 등 서울 어디를 가더라도 딱 중간에 있다는 장점이다. 물론 "지하철이 편리하지 않다는 점"(F9), 주차 등으로 "교통적인 면이 제일 불편"(K7) 하다는 평가도 있는 점에서 일부 이견도 있지만, 대부분 이곳의 위치나 시설, 교통에 만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저는 그 프리랜서다 보니까, 되게 여기저기를 다 많이 돌아다니는데, 돌아다니면 돌아다닐수록 느낀 점이 교통의 요지라서 교통이 진짜 좋거든요. 별의별 게 다 있고, 서울역, 용산역 가깝고. 버스, 지하철 다 있고 하니까. 어딜 가든지 일로 가든 동서남북 어디로 가도 시간대가 다 비슷하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이 최대 좋은 게 저는 장점이라는 장점이고." (K3)

"여기가 교통도 너무 편안하고 강남 가기도 너무 편하고···" (K4)

"일단 교통 진짜 좋아요. 강남 가기 좋고 종로로 빠지기도 좋고, 지하철도 가깝고. 서울역이 일단 가까우니까, 공항 가기도 편하고 다 교통은 진짜 짱인 것 같아요." (K8)

"교통이 일단 좋고요. ··· (남편의 직업적 이유로 인해) 강남이든, 용산이든, 강북이든 어디든 가야 되는데. 여기가 딱 가운데다 보니까. 딱 한 30~40분 거리 내외 어디든지 갈 수 있어서. 일단은 그게 만족도가 좋은 것 같아요. 위치가." (K9)

"처음 이곳으로 이사 왔을 때의 장점 중 하나는 이 지역이 매우 편리하다는 것이었어요. 주변에 많은 음식점과 바가 있고, 교통이 편리해 서울 내 이동이 용이하였죠." (F2)

"이곳은 많은 곳으로 이동하기에 매우 중심적인 위치에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점이 좋아요." (F8)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것도 마음에 들어요. 예를 들어 잠실이나 일산에 가야 할 때도 양방향으로 너무 멀지 않아서 좋거든요." (F9)

(2) 국제적이고 다문화적인 환경

해방촌은 등록 인구 대비 외국인 비중이 15%인 이태원2동과 함께 14%의 외국인 비중을 보인다. 특히 중국이나 동남아 등 아시아계 이주민들이 많은 다른 지역과 대비해, 서구권 출신이나 중동 출신 등 그 배경이 다양하다는 특성이 있다. 한국인인 K7 연구 참여자의 다음 진술은 해방촌과 이태원 권역이 가지는 고유의 국제화된 특성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그냥 영어가 기본인 것 같아요. 하루에 3분의 1은 외국인을 보고 ··· 그러니까 여기는 한국어가 안 돼도 살 수가 있는 동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약간 좀 뭔가 사람들이, 국제화 도시는 어디다? 인천 송도. 이렇게 그거는 비행기 왔다 갔다 하는 동네고. 실제로 사람이 살면서 국제화돼 있는 건 정말 이태원이랑 해방촌 이쪽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있던 곳은 또 이태원이고 여기 오다 보니까, 거의 맥락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태원 쪽은 다양한 진짜 국가의 분들이 계셨는데. 거기는 좀 이슬람이랑 아랍 쪽 분들도 꽤 있었어요. 근데 이쪽으로 딱 오면서 오히려 흑인 분들은 되게 많아요. ··· 그래서 여기는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인식 어디 가도 이런 거를 그러니까 경험해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서울은 아니다. 그 여기는 해방촌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만의 약간 진짜 국제화된 동네다. 여기는 만약에 한국어로 말하다가 말 안

되는 순간 바로 그냥 영어로 얘기하든지, 아니면 다른 말로 한다든지 해줘야 되는 그런 동네인 거." (K7)

외국인 연구 참여자들은 10년 전후로 한국에서 장기 거주한 경우가 많았다. 이들의 경우 한국에서의 첫 거주지가 해방촌인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일산이나 시흥, 수원 등의 경기도 지역이나 전주나 강릉 등의 지방 도시, 혹은 강남구나 서초구 등 서울 내 다른 지역에서의 거주 경험도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그들이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해방촌으로 오게 된 것은, 결국 외국인이 많고 영어가 통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선호하는 식당이나 카페, 술집이 많다는 점에 있었다.

"우리가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필요했어요. 한국어 실력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이태원에 있다는 점이었죠." (F1)

"이곳은 외국인 친화적인 지역으로 명성이 있었고, 많은 외국인들이 이곳에 살고 있었죠. 저는 이곳에서 매우 만족하고 있어요. 이곳은 매우 긍정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고, 좋은 장소와 좋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F2)

"솔직히 말해서, (이전에 살던 지역들보다) 해방촌이 가장 편리했던 것 같아요. 여러 곳으로 이동하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제가 반려견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반려견과 함께할 수 있는 장소를 찾는 게 훨씬 쉬웠어요. 강남에서 살 때는 그런 게 쉽지 않았어요. ··· 저는 이 지역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정말 좋아해요." (F8)

"농담으로 한국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말해요. 처음에는 경기도에서 살았고, 그곳은 매우 한국적인 동네였죠. 외국인이 거의 없었어요. ··· 지금은 거의 외국인만 있는 곳에 살고 있는 셈이에요. ··· 가장 큰 장점은 의사소통이 훨씬 더 쉽다는 겁니다. 제 한국어 실력이 좋지 않아서 영어를 구사하는 수의사나 이사센터를 찾는 것이 이 동네에서는 훨씬 더 수월하거든요." (F9)

"처음 해방촌에 이사 왔을 때는 이곳이 외국인들만 사는 동네처럼 보여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 그리고 지금은 개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이 동네가 아주 반려견 친화적이라고 느껴져서 계속 살고 있어요." (F3)

해방촌은 대부분 서구권 국가 출신이 많고, 아프리카, 중동 출신 등의 외국인까지는

종종 보인다. 하지만 동양계 외국인은 만나기 쉽지 않다. 중국인인 F7 참여자의 경우, 한국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동북3성(길림, 흑룡강, 요녕) 출신의 중국인과 달리 중국의 남동부지역 출신이다. 그에게 동북 지방 출신의 중국인들은 어떤 면에서 오히려 외국인보다 이질적인 느낌이며, 따라서 서울 내의 다른 중국인 밀집 지역에 터전을 마련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오히려 정서가 다른 타지 출신의 중국인보단, 다양한 외국인들과 어울릴 수 있는 해방촌이 더 편안한 곳이라는 것이다.

"(연구자: "대림 같은 중국인 밀집 지역도 있는데, 왜 이곳으로 이사를 오셨나요?") 제 고향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저는 동쪽 출신인데, 한국에 온 많은 중국인들은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라 공유되는 언어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과 깊이 연결되지 않는 느낌이죠. (연구자: "동북지방 출신 중국인들과는 불편함을 느끼시나요?") 네, 동북 출신들과는 관련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북쪽, 동쪽, 남쪽 사람들은 모두 다르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해방촌을 선택한 것도 그런 문화적인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어서였습니다. 또 이미 해외에 나와 살고 있는데 굳이 내 나라 사람들만 있는 곳에서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F7)

(3) 이웃 간 친밀한 마을 분위기

면담을 진행한 해방촌 주민들은 모두 이곳에 대해 이웃 친화적이며, 서로 친밀감을 느끼고, 소통과 교류가 빈번하며, 아파트 밀집지와 다른 마을 같은 분위기를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해방촌에 매력을 느끼고 계속 거주하게 하는 중요한 매력 요소로 작용한다.

"일단 이웃분들이, 굉장히 좀 다른 동네들보다는 좀 더 친화력이 또 있다고 느껴져요.(연구자: "교류를 이전 지역보다 많이 하시나요?") 교류라기보다는, 그래도 뭔가 작은 그런 스몰토크들을 ··· " (K1)

"주로 조용한 동네 같은 느낌이 있고, 비록 때때로 매우 붐비긴 하지만, 이곳은 여전히 작은 지역처럼 느껴지며, 주변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되죠. 큰 도시에서 이러한 작은 지역적 친밀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에요." (F2)

"저는 오래 살았어 가지고 뭔가 바뀌는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조금 연차가 쌓이는 가게라든가, 사람이라던가 그냥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친밀도 친밀감이 느껴져서. 저로서는 좀 오래 산 사람으로서는 좋아요. 그런 친밀도 그런 것들이." (K3)

"여기 마을 같은 분위기? 이렇게 보면 어르신들 나와서 놀이터에 계시면서 애들도 뛰놀고, 강아지 다녀도 막 뭐라고 잘 안 하시고." (K8)

다른 지역에서, 아파트에서 살면서 이웃 간의 교류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연구 참여자들은 해방촌에서 이웃과의 관계맺기와 친밀감을 통해 이 지역에 계속 살고 싶다는 정주의향을 형성하게 된다. 즉, 이 지역 특유의 마을 분위기는 동네가 주거만 하는 곳이 아닌, 불편함을 감수할 만큼 생활의 만족과 행복감을 주는 대상으로 인식되게 한다. 특히 이웃들을 통해 인간관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소속감과 애착이 되어 계속 해방촌에서 살아갈 힘이 되는 것이다.

"뭔가 다른 동네에 살 때는 뭔가 이웃 간의 교류라든가, 그런 것 약간 북적북적 동네 같다라는 느낌은 잘 없었거든요? 그냥 딱 그 집은 제가 주거만 하는 장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동네 와서는 ··· 이제 동네 사람들과의 교류 같은 것들도 좀 생겼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2년만 살고 다른 동네로 갈까? 하다가, 이제 해방촌에서 후암동으로 이사 와서 2년을 더 살기로 마음먹게 된 거였어요." (K5)

"어렸을 때부터 계속 아파트에만 살았던. 이제 와서 여기 왔잖아요. 그 불편함을 다 감수를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웃 간의 소통이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런 게 아예 없었어요. ···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 한 동에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보다 이 동네에 있으면 만나는 게 더 많아요. 빈도수가 더 높아요. 그리고 만났을 때의 얘기하는 시간 자체가 다르죠. 아파트는 엘리베이터 왔다 갔다만 하지, 대화할 수 있는 장소 사실상 없잖아요. 밖에 나와갖고 이제 얘기한다고 해도. 강아지 키우고 강아지가 친화력이 좋으면 이야기하지만. 이 동네는 그래도 대화는 많이 되는데 ··· 집(주택)을 살면, 집 주변에 이제 이웃들이 있잖아요. 이건 정말 이웃 주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파트는 아니고. 아파트는 앞집도 잘 안 만나잖아요. 여기는 이웃 주민이라고 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 나가고 오가고 할 때, 여기가 내 생활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생활하는 게 집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집 주변에 청소도 하고 뭐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눈 오면 이 골목길에 아무도 안 치워요. 그러면 이제 나와서 치우게 되면은, 자기네들도 걸어 다녀야 되니까 나와서 치우거든요. 그럼 같이 치우게 되면서 좀 친해져요. 그런 일을 한다든지. 만약에 쓰레기 같은 게 있고 막 뭘 해야되고, 염화칼슘 뿌려야 되고 막 그냥 이제 공동의 약간 일들이 생기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얘기하게 되고. 만약에 그리고 뒷집에다가 얘기를 해야 될 일이 생기면 뒷집에다 사람 불러놓고 같이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집 옥상으로 불러서 바베큐 같이 구워 먹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카페 가고. '오늘 여기서 한번 봐요'

하면서. 마음이 맞아서 그렇게 하는 집은 한 두세 집 정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불러서 우리 집 불러서 같이 밥 먹거나, 아니면 그냥 옥상에서 같이 뭘 먹든지. 아니면 그 집 가고 얘기하는지. 그래서 오히려 아파트 사는 사람들보다는 교류가 많다." (K7)

(4) 반려동물에 친화적인 환경

해방촌은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도 많고, 또 나이대도 어느 정도 좀 비슷하면서, 뭔가 강아지와 그런 균형 잡힌 생활을 좀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는"(K1)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인용문은 앞으로 제시될 다른 참여자들의 맥락과 궤를 같이한다. 즉, 이곳에는 젊은 반려견 보호자들이 많이 살고 있고, 반려견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조화시키려는 보호자들이 많다. 그러한 결과로 해방촌에는 반려견 친화적인 가게들도 많고,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주민들과의 갈등도 크게 경험하지 않으며 서로 공존할 수 있다.

"해방촌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강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동네의 많은 가게들이,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카페처럼, 강아지 동반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했어요. 강아지 친화적인바, 레스토랑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강아지와 함께 생활하며 그들의 애완동물을 집에 두는 대신 데리고 다니려고 하죠." (F2)

"어디든 강아지를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곳은 거의 없는 것 같고, 강아지들이 가면 보통 물 같은 경우도 막 강아지 그릇에 물을 주시는 경우가 되게 많고. 여기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편의점 이런 데 다 강아지 데리고 들어가거든요.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는 분도 없고. 그런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가게들 … 그리고 저희 단골 카페도 있거든요. 거기는 강아지 간식도 엄청 주시고 항상 그런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해방촌은 제가 다니는 산책길은 그렇게 엄청 좋다라고 느끼지는 않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공간이 너무 좁고 차도도 너무 좁고 이제 그런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가게들 어디든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거 너무 좋은 거 같아요." (K6)

"제 남편이 약간 해방촌 쪽에 그 식당이나 바 같은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데 계속 가자 그러고 그럴 때마다 강아지 저 혼자 두고 가기가, '어쩌지?' 하다가, '거기 가도 된데, 괜찮네'라고 하면서 동반 가다 보니까, '어! 여기도 되네, 오! 저기도 되네' 약간 이렇게 되게 된 거예요. … 저희동네는 약간 이런 업체가, (반려견 동반해서) 갈 수 있는 카페나 식당들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해방촌에 살면 저도 사실 맨날 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 시간 친구를 만나러 가도, 손님 데리고 나갈 수 있을.

근데 저희 동네에서는 어디를 나가려고 해도 되게 큰마음을 먹고. 약간 저는 남편이 읍내(해방촌) 나간다고, 읍내 나갔다 올게." (K10)

"품종도 다양하고, 그리고 사회성이 대부분 좋은 것 같아요. 항상 카페, 식당, 공원, 소품샵도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에서 살기에는 진짜 좋은 공간이고. 그리고 되게 잘 적응을 다들 하는 것 같아요. 강아지들 자체가." (K9)

"특히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더 편리한 곳이기도 하죠. 큰 개와 함께 생활하기에도 다른 지역보다 훨씬 편리했어요. ··· 해방촌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갈 수 있는 카페가 있지만, 녹사평역 근처로 가면 더 찾기 어려워지고요. 이태원 쪽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편이에요. 그래서 이 도로 구간은 반려견과 함께 갈 수 있는 카페나 식당이 있는 몇 안 되는 곳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이곳의 주요 지역 외에는 더 찾기 어려워요." (F8)

이렇게 반려견 친화적인 분위기는 단지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할 수 있는 가게가 많은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다른 지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배려와 친절, 따뜻한 눈빛과 이해는 이 지역에서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큰 무형적 가치가 된다.

"제가 이제 이사를 사실 많이 다닌 편이긴 한데. 다른 동네에 비해서, 이제 강아지에 대해서 약간 조금 긍정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데는 사실 카페를 되게 제가 자주 가는데. 산책하다 보면 또 자주 가게 되고, 근데 사실 강아지가 안 되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오히려 여기는 카페도 그렇고 편의점도 그렇고, 잠깐 들어오는 거 괜찮다고 쉬었다 가라고 막 물도 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펫 프랜들리하다고 느꼈고." (K2)

"다 이제 나이 드신 분? 아니면 저희처럼 좀 강아지를 키우면서 사는 젊은 부부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용산구가 강아지 등록 반려 등록 개체가 가장 많은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아지 키우기에도 너무 좋은 환경이고, 강아지를 키우면서 뭐랄까? 이제 서로서로 이해해 주시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 댁에 간다거나 그러면 이제 막 아파트촌이거든요. 그러면 확실히 이제 저희 강아지를 보는 시선이 굉장히 다른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저희 강아지는 이제 시골개 같은, 이제 시골에서 마당에서, 이제 집 지키는 개같이 생겨가지고. '이런 개가 왜 여기 있지?' 약간 그런 느낌부터. 이제 강아지를 이제 좋아하는 분들도 많지만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분들의 시선이나 이런 게 확 다르고. 확실히 여기는 이제 서로서로 이제 그런 걸 다 이해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어서." (K6)

"오히려 외부에서 이제 놀러 오시는 분들이 '저렇게 큰 게 왜 입마개도 안 해?'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얘기 잘 안 하죠. 익숙하니까." (K8)

"개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이 동네가 아주 반려견 친화적이라고 느껴져서 계속 살고 있어요. 많은 다른 동네들과 비교해도 꽤나 개들에게 친화적인 곳인 것 같습니다." (F3)

K9 참여자는 다른 지역에 살다 이 지역으로 이사를 오게 된 이유가 반려견 때문이다. 기존에 살던 곳에서는 대형견을 불편해하는 이웃들로 인해 갈등이 많았던데다가, 자주 해방촌과 그 인근 지역들을 방문하면서 그 호의성 때문에 해방촌에 이주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아무래도 강아지 대형견 때문에. 처음에 이사 오게 된 계기가, 반려견 동반 식당이나 반려견 동반 카페를 이제 서칭을 하다 보니까, 다 이쪽 이태원이나, 경리단길이나, 이쪽 해방촌만 뜨는 거예요. 동반되는 곳이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자주 이렇게 놀러 오게 되다 보니, 이럴 바에는 그냥 이사를 오는 게 더 낫겠다 싶어가지고. ··· (이전에 살던 곳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왜 대형견 키우냐부터 해서 특히 제가 아무래도 여자인데 대왕견을 키우고 있으니까, 조금 어르신들이 한 소리씩 꼭 하고. 그러니까 이게 편견이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저희 남편이 데리고 다닐 때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제가 꼭 데리고 다닐 때 어르신들이 한 소리씩 하셔가지고. 이 동네는 완전 반대죠. 오히려 너무 이쁘다. 어르신들이 오히려 이해해 주시고, 많이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호의적인 거 같아요." (K9)

"제가 속상해서 가끔 전화하거든. 나 못 살겠다고 이러면서 강아지 때문에, 강아지 싫어하는 그런 아줌마들이랑 내가 막 싸웠다. 그러면 저희 부모님이 '그나마 이 동네니까 그런 거지, 네가 우리 동네에 와봐. OO는 절대 환영받을 수가 없고,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나마 너는 이 동네에 사니까 그렇게 하는 거다. 이 동네가 좋은 거다, 강아지가 살기. 엄마가 항상 이렇게 위로해 주시거든요. 저희도 사실은 이사를 좀 가볼까 하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근데 강아지 때문에 못 가게 돼요. 이미 강아지 친구들 다 이 동네에 있고. 강아지를 맡기는 분도 여기에 있다 보니까 여기 멀리는 못 가는 거예요. 이사를.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긴 해요. 이사 가기도 좀 쉽지 않겠다. 이 동네를 벗어날 수는 없겠다." (K6)

2) 해방촌의 인구사회적 특성

(1) 다양한 직업군과 개방성, 다문화성

연구자들이 연구를 위해 해방촌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평일 낮에도 대형견과 산책하는, 무언가 한껏 차려입은 느낌이 나는 자기 개성이 강한 사람들을 자주 마주쳤다. 초기에는 이들이 해방촌의 분위기를 즐기러 온 외부인인지, 이곳에 사는 주민인지 판단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반려견 동반 산책 인구들을 대상으로 한 길거리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통해 대부분 해방촌에 사는 주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도 동일하게 느끼는 점이다. 면담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해방촌의 인구사회적 특성은 다양한 직업군과 개방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해방촌 주민들은 자신만의 확고한 라이프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며, 기존 주류의 사고 방식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지점에 대해 일반적인 직장에서 재직 중인 K6 참여자의 진술들은 매우 흥미롭다. “조금 평범한? 그냥 이렇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학군 좋은 데 가서 살고, 막 아파트 촌 이런 인프라 좋은데 살고. 이제 그런 데랑 좀 거리가 있는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좀 더 좀 자유롭고, 좀 이렇게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K6)

> *“저만 약간 따로 노는 사람 같아요…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는 되게 그냥 직장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또 그들은 또 그들대로 저를 신기하게 바라보기도 해요. 왜냐면 이제 예를 들면, 다 자기 개인 사업을 하거나, 개인 브랜드를 하거나, 프리랜서를 하거나, 뭐 이렇게 책방을 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처럼 직장인은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되게 좀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 너무 새로운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살아도 되게 재미있게 살 수 있구나. 그래서 너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좋은 동네인 것 같아요.” (K6)*

> *“동네적 특성인 것 같아요. 다른 데보다는 이제 저처럼 약간 프리랜서나 다른 본인만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이 거주하시고, 외국인 비중도 좀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도 사실 좀 편하게 다니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시도 때도 없이 산책을 하시죠. … (다른 지역은) 직장인이나 학생 이렇게 많으니까. 보통 낮 시간대는 거의 없고 아침저녁 정해진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 *출근하기 전, 퇴근하고 와서 이제 시간대에 이제 사람들이 몰리는 경향이 많은데. 해방촌은 조금 그런 시간대 다양한 것 같아요. 산책의 시간대가 본인들이 하시는 일이 조금 자유롭고, 본인이 조금 플렉서블하다 보니까 그런 산책 시간도 그런 것 같아요.” (K2)*

"디자인하시거나 아니면 저같이 가게를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다 전문직은 아니신 것 같고. 뭔가 프리랜서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 그래서 저희 남편이랑 그냥 그냥 평상시에 있는 대로 입고 광화문을 딱 갔는데 뭔가 순간 이동한, 우리만 너무 편하게 입고 그래서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은 있어요. 진짜 프리한 스타일인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확실히 많이 사니까, 좀 더 동물한테도 좀 열려 있다고 해야 하나요?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오픈 마인드인 것 같아." (K9)

"해방촌에 조금 젊은 분들도 많고,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뭔가 예술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의 보면은 강아지를 산책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네 분위기 때문에 더 사람들이 더 강아지에 관심이 있나 싶은 생각도 들긴 해요." (K4)

흥미로운 지점은 영국 출신의 연구 참여자들이 해방촌 주민들의 문신에 주목한다는 점이다. 그들은 얼굴이나 목에 문신을 한 주민들이 해방촌 특유의 예술가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으로 바라본다.

"이 지역에서는 목이나 얼굴에 문신을 한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런던에서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는데, 여기는 특히 그런 문신을 한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영국에서는 거의 보지 못한 풍경이에요." (F1)

"다양한 특징의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사는 마을에서는 예술가적인 분위기가 나요. 많은 사람들이 문신을 하고 있어서 예술가처럼 보여요." (F5)

해방촌의 젊고 자유로운 분위기는 반려견들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전에 서초구에 살던 K10 참여자는 서초구의 반려견들이 애지중지 키워지니까 긴장한 상태로 보인다고 설명한다. 왜 서초구의 반려견들은 애지중지 키워지는데 긴장을 한다는 것일까? 이러한 모순을 K1 참여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해 볼 수 있다. "내 스스로의 감정이 이 친구한테도 이제 이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보호자가 불안하다고 느끼면, 이 친구도 불안하다고 느껴요"(K1). 이러한 설명은, 해방촌 거주민의 자유도가 반려견도 편안한 분위기를 만든다는 K10 참여자의 이야기를 지지해 준다. 사회적 압박도가 높고 경쟁이 치열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사회 주류의 흐름과 벗어나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지역의 차이가 그곳에 거주 중인 주민들의 성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 주민들이 키우는 반려견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개들의 성격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볼 때마다 되게 보호자분들 되게 일단 연령대가 굉장히 젊으신 것 같고. 그리고 되게 자유로우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강아지들도 훨씬 더 자유로워, 되게 편안해 보이고 그게 서초구 살 때랑 조금 다른 지점이었던 게, 서초구 살 때 약간 보호자분들이 강아지 되게 애지중지하게 키우니까 애들이 되게 긴장된 게 보이고 ··· 이미 보호자분들 되게 편안하고 되게 약간 이미 되게 릴렉싱해 보이니까. 강아지들도 되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긴장하지 않은 되게, 편안하게 쉬고 있는 애들 되게 보이고." (K10)

(2) 해방촌에 왜 다양한 사람들이 유입되는 것일까?

그렇다면 왜 이런 사람들이 해방촌으로 유입되는 것일까? 토박이 정체성을 가진 연구 참여자들은 왜 갈수록 개성 있는 젊은이들이 해방촌으로 몰리는지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에게 이곳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요소가 무엇일지에 대해 다양한 해석들을 들을 수 있었다. 먼저 미군 부대, 이태원으로 이어지는 국제적인 분위기를 그 배경으로 파악하는 경우가 있다. 외국인들이 많이 살면서 이 지역이 무언가 자유롭고 개방적이라는 이미지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되게 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제가 한 10년 전이라고 그래야되나? 10년 전까지는. 이제 뭔가 제가 아는 주변 지인 멋쟁이 형, 누나들 같은 경우에는 다들 뭔가 해방촌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많았고, 실제로 뭔가 그런 작은 공방이라든지 뭔가 아기자기한 그런 커뮤니티들이 많이 형성이 되고, 또 가장 큰 포인트는 이제 미군 부대가 이제 있으면서, 좀 자연스럽게 국제적인 뭔가 문화가 정착이 좀 많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뭔가 멋쟁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 또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 곳 같아요." (K1)

"약간 진짜 마을, 마을이 주는 이미지도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태원의 바로 옆에 붙어서, 이태원, 경리단, 해방촌이. ··· 이게 점점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 그러면서 좀 더 뭔가 자유분방한 느낌이 많아서 그래서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 그리고 좀 더 뭔가 외부 외국인들이 그런 시선을 좀 더 신경 안 쓰는 게 있다 보니까, 그것들을 보는 이 동네 사람들도. 계속 교체되는 젊은 사람들이 비슷하거나 혹은 여기에 오래 있던 사람들도 '그래 쟤네들 저러는데' 뭐 그러면서 그런 것도 이게 좀 더 자유롭고 뭔가 개방적이고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싶어요." (K3)

한편으로는 주변 월세가 오르면서, 이태원 등에서 저렴한 세를 찾아 해방촌으로 밀려오는 것이라는 시각들과 더불어, 자연환경이 큰 영향요인이라고 판단하는 시각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릴 때는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 마을 같은 느낌. 어느 순간 이렇게 사람들이 더 모인 것 같아요. 해방촌이 딱 이렇게 외국인들 많이 살고, 오히려 좀 위험하고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이제 점점 뭔가 바뀐 것 같아요. 많이 왜 바뀌었지? ··· 이게 이태원에서 약간 밀린 것 같기도 해요. 너무 세가 비싸니까, 싼 데를 찾아서 오기도 하고. 또 여기 외국인들 거주하시는 분들 알음알음 이렇게 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인맥들로 이렇게 오지 않았을까" (K8)

"(연구자: "왜 최근 들어 해방촌으로 사람들이 이사를 올까요?") 그러니깐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여기 오게 된 거예요. ··· 조용한 동네 그냥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몰려와서, 사람들 아니 저는 약간 T여서 그런가 봐요. 아니 그렇게 살기가 그렇게 좋은 동네는 아닌데. 앞에 무슨 체육센터가 있어, 무슨 병원이 좋은 게 있어 뭐 그런 것도 아닌데. 진짜 덩그러니 내세울 거는 자연환경밖에 없는데. 근데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자연환경이. ··· 결국에는 이 자연 환경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이거를 이 산책 코스를 누리기 위해서 보시는 거. 그러다 보니까 게다가 다른 데에 비해서는 좀 그때 당시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조금 저렴했으니까 부동산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았으니까. 그래서 몰리는 것 같아요." (K7)

또 해방촌이라는 곳이 위치가 좋고, 젊은이에게 편안한 공간이기에 몰린다는 시각, 동대문과 남대문이 가까워 의류 관련 직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몰려 살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하였다.

"(연구자: "개성 있는 젊은 주민들이 언제부터 많아졌는지?") 어릴 때는 그런 거를 못 느꼈었는데, 최근에 진짜 많아진 것 같고. 제가 느끼기엔 한 5년, 4년 새에 많아진 것 같아요. ··· 그래도 동네에 보면은 그래도 은근 저렴한 집도 많고. 오래된 집이 많아서. 저렴한 집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좀 상권 자체가 쪽 젊은 사람들이 오기에 좋은 상권으로 바뀌고 나서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연구자: "그런 분들에게 매력적인 요소가 무엇일까요?") 교통도 일단 편리한 것 같고, 그리고 좀 남산이라는 게 좀 상징적이라서 그런 것도 있을까요? (연구자: "이 현상이 특이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특이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제가 제 입장 그냥 제 나이대 입장에서 봤을 때 살기가 좀 편안하다? 편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살기에 좀 좋은 환경인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K4)

"제가 옛날에 듣기로는, 여기 동대문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사신데요. 그러니까 밤에 왜 야시장 일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고 거스르고 이렇게 해서, 디자인하시거나 그런 쪽 의류 쪽 종사하고 패션이나 이런 쪽 동대문, 남대문 가깝잖아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위치적으로 또 일단은 너무 좋고,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저는 좀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K9)

3) 해방촌의 반려동물 특성

해방촌의 반려동물 특성은 (1) 구조 유기견 출신이 많다는 점, (2) 다양한 크기와 품종으로 구성된다는 점의 두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반려견 사회성의 경우 외국인들의 반려견들이 더 좋은 편이며, 한국인들의 경우 좋지 않은 경우도 많이 확인된다.

(1) 구조 유기견 출신

앞서 설문조사 결과에서 응답자가 키우는 반려견 중 49%가 믹스견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참여자 역시 20명 중 4명만이 개인 브리더나 분양업체 등에서 분양받은 개들이고, 나머지 16명의 반려견은 다 구조된 유기견들로 확인된다. 이렇게 해방촌에서 구조된 유기견을 키우는 것은 상당히 흔한 일이다. 그리고 당연하게 여겨진다.

"유기견 키우시는 분들도 은근 많으셔가지고, 강아지랑 유대감이 좀 많이 형성된 것 같아요. 더 그런 느낌이에요. 보호소에서 데려온 친구들이 좀 많은 제 주변에는 많아가지고" (K4)

"이 동네 살면서 그런 강아지를 너무 많이 접하고, 오히려 여기는 품종견보다는 이런 믹스들이 많거든요. 이 동네에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좋은 분위기인 것 같아요. 여기 밑에(카페건물) 그 강아지 주말마다 이렇게 입양해 보내는 그게 있어요. 여기 1층에 1층에 있어 약간 무슨 뭐 우리들의 무슨 뭐 뭐 해가지고 우행 이런 식으로 해서 저기 밑에 강아지들이 주말마다 와요. 그래서 막 거리 입양 이런 거 같은 거 하세요." (K6)

보호자들이 반려견을 입양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면, 유기견 보호소나 관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입양할 개를 물색한다. 어떤 경우에는 안락사의 위험에서 급박하게 입양되기도 하고, 연인으로 인해 억지로 키우게 되기도 한다. 이들에게도 안정성이 부족한 구조된 반려견을 수용하는 것은 역시 쉬운 과정은 아니지만, 결국 반려견과의 유대관계가 깊어지면서 개들의 출신으로 인한 문제점을 진술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제 강아지를 되게 입양하고 싶었어요. 이제 프리랜서로의 약간 일도 되게 안정적이었고, 그때쯤 이제 운전도 시작해서 뭔가 기동성도 생겼고. 집도 뭔가 주택 그러니까 단독주택인데, 1, 2층에 살고 그러다 보니까 해방촌에 이사도 왔고. 나는 이제 강아지를 키울 수 있겠다. 뭔가 물리적인 조건도 괜찮고. 정서적인 것도 제가 이제 좀 여유가 생겨서, 이제 막 유기견 보호소 사이트랑 이렇게 막 보다가, 이제 이 친구를 보고 이 친구들한테 이제 조언을 구했는데 친구들은 다 반대했어요. 혼자 살면서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 게 힘드니까 그거 어떻게 하려고 하냐 했는데 그냥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담받고 양주보호소 가서 이제 데려와가지고 이제 키우게 됐고" (K2)

"한 보호소에서 입양했어요. 아주 좋은 보호소였지만 그날 많은 개들이 안락사될 예정이었어요. 원래는 임시보호를 하고 싶었지만, 주거 상황이 적합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사 후에 그날 안락사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구해줬어요. 원래는 그녀를 미국에 있는 부모님께 데려다주려고 했지만, 결국 다시 한국으로 데려왔어요." (F3)

"(연구자: "개농장 구조견인가요, 아니면 그냥 유기견인가요?") 그냥 유기견인 것 같아요. OO의 엄마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녀가 유기되었는지 확실하지 않아요. OO는 보호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개농장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O의 경우는 아마 누군가가 강아지 때 귀여워서 데려갔을 거예요. 래브라도는 강아지 때는 정말 귀엽지만, 자라면 조금 다루기 힘들어지거든요. 저도 준비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O이 너무 싫었어요. 처음 1년, 어쩌면 그 이상 동안은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이 불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F4)

"5살이고, 2018년에 입양했어요. 제가 그녀를 입양했을 때 5~6개월 정도였고요. 인천에서 입양했는데, 임시보호 중이었어요. 어미 개가 구조되었고, 어미 개가 새끼를 낳았지만, 새끼들을 계속 돌볼 수 없어서 여기저기 보내졌고, 제가 입양하기 전까지 세 가정에서 지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이 안정적이지 못했죠. 제가 입양한 이후로는 6개월부터 함께하고 있어요." (F8)

"우리는 그를 보호소에서 데려왔어요. 그를 식용으로 키우던 농장에서 구출했죠. 사람들이 그를 먹으려고 했었어요. ···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저는 이전에 구조된 강아지를 키워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했고, 그 과정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그는 실내 생활에 익숙하지 않았죠. 그는 처음부터 저희에게 매우 애착을 보였어요." (F10)

어떤 경우에는 외국인에게 반려견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

었다. 외국인들이 개를 유기하고 떠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런 이유 때문에도 보호소에서 입양하는 것이 개를 키우는 보다 쉬운 방법이 된다는 것이다.

> *"저도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펫샵에서 외국인에게는 강아지를 팔지 않으려고 해요. 외국인들이 떠날 때 강아지를 버리고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호소에서 강아지를 입양하는 게 더 쉬워요." (F10)*

연구 참여자 중 일부는 임시보호 경험을 가지기도 한다. 이는 개를 좋아하긴 하지만 이전의 경험이 없는 경우, 자신들의 책임감을 시험하는 기회이면서 불쌍한 개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타성에 기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임시보호를 하다 정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 임시보호를 하던 개를 자연스럽게 반려견으로 입양하게 되는 것이다.

> *"강아지를 좋아하는데, 키워본 경험이 없어서. 우리 둘 다 우리가 잘할 수 있을지나 평생 책임질 수 있을지에 대해 모르니. 일단은 도움이 필요한 강아지들이 많이 있으니까 임시보호부터 시작을 해보자 하고 시작하게 된 거였어요." (K5)*

> *"저는 강아지를 원래 좋아하지 않는 편이었고, 되게 무서워하다가. 친언니가 이제 강아지를 입양, 강아지를 임시보호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지난번에 같이 살 때 이렇게 임시보호를 하다가. 너무 예쁜 강아지 어디 잘못 보내게 되어서, 입양을 하게 돼서 지금 3년 넘게 기르고 있어요." (K10)*

> *"그 영상을 보고, 제 동생이 너무 불쌍하다. 그러면 한 달 만이라도 데리고 있자. 집에서. 그러니까 눈 그칠 때까지, 겨울만이라도 집에서 지내게 해주자, 이래가지고 얘도 덜컥 신청한 거예요. 동생도. 그래서 처음 그 아이를 임보(임시보호)하다가 입양된 거였고" (K3)*

(2) 다양한 크기와 품종

설문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반려견 크기를 확인해 보면 소형견이 37%로 가장 많으나, 대형견도 34%, 중형견도 29%로 절대 적지 않은 비율을 보인다. 추후 논의될 해방촌에서의 반려견 갈등 역시 이러한 크기 다양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도시에서 보통 보기 힘든 중·대형견을 키운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비난을 당하는 경우들이 왜 해방촌 주민들 사이에서 자주 경험되는지를 알게 되는 크기 분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크기 다양성과 견종 다양성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해방촌 일대로의 이주의

결정요인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견종과 크기 다양성은 “해방촌의 예술적인 성격”(F9)과 “개성”(K7)을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

“아키타, 푸들, 시바, 진도, 초콜릿 래브라도, 골든 리트리버 등 정말 다양한 종류의 개들이 있어요. 어떤 개들은 너무 섞여 있어서 종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 (연구자: “한국의 일반적인 도시지역에서는 푸들, 비숑과 같이 작은 품종견을 선호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런 개들을 ‘액세서리 애완동물’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들은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그런 개들을 기르는 거예요. 반면, 해방촌에서는 작은 개들도 있지만, 중간 크기나 큰 개들이 더 많아요. 이 동네의 예술적인 성격과는 ‘액세서리 애완동물’이 잘 맞지 않거든요. 보통 대형견을 기르는 사람들은 더 자유분방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점은 하루 종일 길을 오가는 중형견이나 대형견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F6)

“개성이 강하죠.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주거 환경에 따른 거니까, 아파트에서 시끄러운 애 절대 못 키우는 거고. 여기는 진돗개들도 많고. 외국인들이 진돗개 많이 키우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제가 본 거는 진돗개를 키우고. (덩치가) 산만한 애들도 있어요. 진짜 큰 애들도 있고. 진짜 각자 개성에 맞춰서 키우는 것 같아요.” (K7)

“여기에 이제 중대형견이 많은 건 이제 말 그대로 좀 더 뭐랄까, 그런 아파트 촌에서 예쁘고 품종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분류랑은 좀 더 다른. 그냥 좀 더 강아지가 크면 어때? 약간 큰 강아지도 큰 강아지대로 사랑받을 수 있는 거지라는 마음으로 큰 강아지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확실히 이제 그런 강아지들이 더 입양이 어렵잖아요. 일반 가정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입양하는 것 같고, 특히 외국인들은 큰 강아지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별로 없잖아요. 당연히 미국이나 외국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큰 강아지를 많이 키우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더 큰 강아지들도 많이 키우시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잘 아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저는 개를 처음에 입양했을 때는 되게 크다고 생각했는데, 이 동네에서 키우다 보니까 얘는 작은 편에 속하는 거예요. 워낙 큰 애들이 많아서. 진도중에도 큰 진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눈에는 작아 보이는데, 사람들은 막 크다 그러니까. 이 작은 건데? 약간 이제 자꾸 이제 그런 주변에 큰 개들이 많아서. 보면 다 되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아요.” (K6)

“여기 강아지 주인들은 먼저, 보통 더 큰 개를 많이 키우죠. 다른 동네에서는 작은 강아지들이 많지만, 해방촌에서는 허스키나 골든리트리버 같은 큰 개를 자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강아지들은 정말 훈련이 잘되어 있죠. ··· 물론 꼭 큰 개를 선호하는 건 아니에요. 중형이나 소형견도 많이 보이거든요. 단지 한국의 다른 지역은 작은 개만 선호하는 반면,

해방촌은 다양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여기 사는 사람들이 모두 큰 개를 기르는 건 아니지만, 작은 개에만 국한되지는 않아요. 아마도 일부는 고향에서 대형견을 키우다가 여기로 이주해 왔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F9)

"전에는 진짜 오히려 조금 나이 있으신 분들이 조그마한 강아지 데리고 다니는 건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래도 젊은 분들이 강아지 진짜 종 상관없이 크게 상관없이 데리고 다니는 거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K4)

더불어 전술한 구조 유기견 입양이 성행하는 것의 결과로 해방촌 반려견 사회는 견종도 다양하게 구성된다. 보통의 순종견 선호도가 높은 사회적 현상과 달리, 이곳에서는 품종을 가진 개들도 흔하게 키워지지만, 믹스견도 못지않게 많이 키워진다. 구조된 개들의 특성상 믹스견도 흔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견종 다양성도 구성되게 되게 되는 것이다. 특정 종을 선택해 분양받은 펫샵 방식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반려견 입양 방식은, 믹스견 뿐만 아니라 해방촌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과 섞여 순종견임에도 유행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개성의 품종들로 마을을 구성한다. 어떤 면에서는 믹스견을 키우는 것이 긍정적인 유행이 되어 사람들에게 선호된다. 그리고 이 다양성은 자연스럽게 포용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다른 지역에 비해 해방촌에서 반려견, 특히 중·대형견 포용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진다.

"저는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많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여기에 많이 살다 보니까, 약간 특히 한국 믹스견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요즘 20대, 30대 여자들 약간 제가 아무래도 남자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또 약간 유행인 것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솔직히. 요즘은 약간 펫샵에서 사면 약간 좀 안 될 것 같고 약간 그런 인식이 좀 있지 않을까." (K9)

"믹스견도 많이 키우시고 중대형 견도 많이 키우시죠. … (전에 살던 곳에서) 데리고 나가면 뭐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이렇게 큰 애를 입마개도 안 하고 다니냐?' 아파트에 제가 그때 살았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면 제가 19층 사는데, 엘리베이터 안 타고 어떻게 왔다 갔다 하지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시비는 좀 덜 하죠. 왜냐하면 워낙 다양한 견종의 친구들이 살다 보니까, 뭔가 크기나 견종 때문에 시비를 당하는 경우는 좀 덜했던 것 같아요." (K2)

"저희 남편이랑 저도 막 '우리 리트리버 키우자'. 막 예쁘고 똑똑한 애들 있잖아요. 보더콜리

막 이런 애들. 근데 이제 그런 영향을 좀 받다 보니까, 그런 피드도 막 보고 하니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섣불리 강아지를 막 돈을 주고 사거나, 분양을 받거나 그런 거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저는 우리나라 강아지들이 너무 예쁘고 사실은, 그래서 입양을 하게 됐죠. 근데 사실은 제가 사진만 보고 입양을 하긴 했어서. 처음에 보고 저희도 좀 놀라긴 했어요. 너무 커서. 이렇게 왜냐하면 곧 안락사를 당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빨리 얘를 구조를 해야 된다." (K6)

더불어 해방촌에서는 순종견을 키운다고 해도, 보호소 출신임을 배제할 수는 없다. 믹스견인줄 알고 입양한 개가 알고 보니 품종견이라거나. 주변 이웃들의 품종견이 알고 보니 유기견 출신이라는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은 해방촌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또 다른 면에서 반영하고 있다.

"사실은 저는 믹스견인 줄 알았어요. 아기 때는 그래서 그냥 아기 강아지였고 드물게, 그래서 한 2~3개월경에 데려왔는데 OO이더라고요. (이웃) 보호자님들이 알았어요. 성견을 키우고 있는 OO(견종) 보호자님들이. 그래서 얘는 OO인 것 같다. 믹스라고 생각했거든요." (K2)

"사실 저는 그래서 저는 약간 제 선입견이기도, 한데 핏불, 핏불이 아니고. 퍼그 이런 애들 코 납작한 애들을 사실 안 좋아해요. ··· 그렇게 키우는 보호자들을 만났을 때, 별로 좀 색안경을 끼고 봤어요. 근데 다 보호소에서 데려오셨더라고요. ··· 걔네들은 자연 교배가 안 돼서 인공 교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개체가 계속 늘어나는 아이들인데, 저 아이들을 데리고 있다는 건 거의 90%의 확률로 어디선가 사 왔을거다라는 선입견을 아주 강력하게 갖고 있었는데. 다 데려오셨다는 보호소에서 데려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 선입견을 가지지는 말아야겠다, 이야기를 들어야 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K3)

4) 해방촌의 반려동물 문제와 갈등의 양상

사례자들을 통해 해방촌의 반려동물 문제와 갈등은 (1) 반려견 펫티켓의 부족(배변문제와 오프리시), (2) 중·대형견 중심의 반려견 혐오(특히 여성 보호자의 경우, 노인에 의한 가해), (3) 반려견 동반 업소 신고 문제 및 감소, (4) 반려견 보호자 간 갈등의 네 가지 요소로 도출되었다.

(1) 반려견 펫티켓의 부족

"나쁜 개는 없고 나쁜 주인만 있을 뿐이죠"(F1). 반려견들로 인한 문제나 반려견으로 인한 갈등은 때에 따라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사례들을 확인해 보

면 그것의 원인이 과연 개로 인한 문제라고 보는 것이 적합한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F1 참여자의 말처럼 나쁜 개는 없고, 나쁜 주인만 있을 뿐이다.

해방촌의 펫티켓 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배변 문제이다. 실제로 해방촌 곳곳을 다니다 보면, 나무나 건물 벽면, 화단 등에 '개똥'이 언급되는 경고문구를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연구자 역시 해방촌을 다니면서 많은 반려견 대변을 길거리에서 목격했다. 연구자들의 거주지역 역시 반려견이 적지 않지만, 이런 경우는 쉽게 보지 못했기에 매우 낯선 광경이 아닐 수 없었다.

"의식이 아니라 인식이 없는 거야. …왜 사람 여기다 똥을 쌌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죠. 치워야 되잖아. … 그거는 주인이 그냥 귀찮아서 안 하는 거야. 뭐 쓰레기통 만들어 줄 거야? 재정 낭비예요. … 그냥 쓰레기봉투를 갖고 다니세요. 배변 봉투 갖고 다니세요. 목줄로 하세요. 하라는 거 하면 되는 거죠. 최소한의 거는 주인이 해야 하는 거죠." (K7)

"그것 때문에 갈등이 많기도 해요. 똥을 막 싸고 다니니까 아줌마들이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만 오면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네 골목 앞에 똥 싸거나, 오줌 싸거나 그게 되게 심각해요. … 막 개똥 굴러다니고 막 여름에 막 지린내 올라오고 막 이러거든요. (연구자: "팻말이 엄청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똥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그 똥 문제가 진짜 심각해요. 여기는 사실은 강아지한테 놀기 좋은 놀이터를 만들어준다? 사실은 저희도 놀이터는 마음만 먹으면 갈 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산책길에는 많지 않을 수 있지만, 얘네들이 진짜 오프리시하고 재미있게 놀 만한 데는 요즘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이 좀 생겨야, 좀 동네도 이렇고.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분들한테도 좋은, 왜냐면 몰래 버리고 간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막 다 붙어 있어요. CCTV 추적해서 똥 버린 사람 잡아낸다거나. … 의식의 문제도 있긴 있겠죠. 버려도 크게 문제가 안 돼. 약간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로 그거를 주어도 버릴 데가 없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K6)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배변처리랑, 소음 강아지들이 짖는 거. 이제 사실 어르신들은 깜짝깜짝 놀라시니까. 그런 부분 있고 배변 처리를 제대로 안 하시는 보호자님들이 꽤 있으세요. 그게 누군지는 모르죠. 저도 산책하다 보면 왜 똥 안 치웠지 막 이런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확실하게 좀 처리를 잘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싫은 소리가 나오죠." (K2)

특히 일부 노인 보호자들은 반려견을 풀어놓고 키우는 경우도 많다. 연구자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관련한 이야기들을 듣긴 했지만, 많은 참여자들이 관리되지 않는 소

위 '오프리시 강아지' 혹은 '자율 산책견'들로 인해 더욱 동네가 지저분해지고 위험해진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오프리시 강아지가 동네에 좀 유명한 애들이 몇 마리가 있어요. 그런 애 왜 똥 안 치우지, 나이 있으신 할아버지들(이 키우는 개) 똥 싸도 그냥 가시지. 그런 문제들. 저희 입장에서도 내 집 앞에 똥 쌌는데 안 치우면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고." (K8)

"좀 젊은 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펫티켓 문제)은 잘 못 본 것 같다고 느꼈고. 근데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자율 산책하는 강아지들이 있거든요. ("연구자: 풀어 놓는 건가요?") 네. 그냥 옆에 보호자가 있지도 않아. 오프리시로 산책이 아니라, 그냥 태어나자마자 이 동네에서 자율 산책을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당근마켓에 동네 생활에 올라와. 얘 유기견 아니냐, 얘 돌아다닌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다 거기에 댓글을 달아요. 얘 이름은 뭐고, 할머니가 할머니랑 할 때도 있고. 그냥 혼자 자율 산책할 때도 있다. 저러다 집에 잘 들어갔다. 할머니가 당근에 이 친구가 올라오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 근데 그런 자율 산책하는 개들이 몇 마리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동네에서는 그런 애구나 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똥은 아무도 안치우는거에요." (K5)

(2) 중·대형견 중심의 반려견 혐오

우리 사회에서 개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일이 빈번해지고, 인구의 5분의 1가량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회로 변화하며 '짐승'인 개를 집 안에서 키운다는 부정적인 시각은 이제 보기 어렵다. 하지만 반려견 대부분이 품종 있는 소형견 위주로 소비되어 여전히 중·대형견 중심의 혐오 정서가 강하고, 이는 반려견에 친화적인 해방촌이라는 공간에서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반려견을 혐오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반려견 배변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을 유발하는 보호자들의 문제들도 있지만, 단순히 큰 개를 도시에서 키우는 것에 대한 거부감에서 오는 지점도 크다. 연구 참여자 중에는 다른 지역에서 대형견을 키우다 이 권역으로 이주해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중·대형견 보호자로 경험하는 혐오의 경험이 고백 된다.

"지나가면서 그냥 욕설을 막 갑자기 듣는다든지, 개를 데리고 다닌다. 이거 하나만으로. 그러니까 성격이 사람들이 어울리는 사람만 어울리면 솔직히 그렇게 욕 들을 일도 없고, 내가 욕할 일도 없는데. 얘를 데리고 다닌다는 이거 하나만으로 욕도 듣고 … 개를 막 할머니들도 '요즘 젊은 처자들은 애를 안 낳고 개를 키워' 이러시면서. 나 모르는 할머니가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그리고 좀 이렇게 여자가 진돗개 데리고 다니고 만만해 보이시니까 시비도 많이 걸고." (K8)

"대형견 키우는 사람이 죄인이라고. 가만히 있었는데 애가 넘어졌어, 그러면 '당신네 걔가 왜 우리 애 놀래켜서' 약간 이런 시비도 많이 붙고 그래서." (K9)
"입마개 시비가 엄청 강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컨디션이 괜찮을 때는 '입마개 하는 개 아니에요' 하고 지나가는데. 이제 컨디션이 너무 안 좋거나, 입마개를 해야지라는 워딩의 화법의 방식이 안 좋을 때는 저도 이제 싸우죠. ··· 근데 저는 그 노인조차 너무 많이 마주쳐서 괜찮아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진짜 저쪽에도 어르신들 많이 앉아 계시는데 '아이 무서워~ 무서워~' 할아버지 종일 이러시는데 '안 무서워요~~~' 진짜 지겨워가지고. '안무섭다고요~~~~' ··· 할머니랑 개가 있다 하면 제가 OO(반려견)를 무조건 안고 거기를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그 큰 개를 뭐 안고 다녀~' 막 이러세요. 그냥 안 들린다 하면서 지나가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어이구 늑대 지나가' 그냥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점점 이제 무뎌지면서 체념이 되는 거 같아요." (K3)

"강아지를 기분 나쁘게 쳐다보시는 분도 있고. '여자가 강아지를 큰 개를 갖고 다니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막 '여자가 막 강아지를 이렇게 큰 애들을 끌고 다니냐'부터 시작해서, 근데 희한한 건 저희 남편이랑 같이 다니면 아무도 태클을 걸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데리고 다니면 그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K6)

"남산공원에서 한 남자가 저한테 소리친 적이 있어요. 개가 목줄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소리쳤어요. 개에게 입마개를 하라고 했어요. 남편이랑 같이 있으면 그런 말을 안 하는데, 혼자 있을 때는 그런 일이 생겨요." (F1)

"갈등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한 어르신이 있었는데, 그분은 저에게만 화를 내고 제 남자 친구에게는 그러지 않았어요. ··· 저는 그분의 집 근처도 가지 않았는데도 우산으로 저를 때리며 소리치곤 했어요. 그런데 남자 친구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F3)

한편, 연구자도 해방촌을 다니면서 마당도 없고 평수도 그리 넓지 않은 집에서 대형견을 키우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던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과밀도시 속 넓지 않은 주택에서 큰 개를 키우는 것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생각은 어떨까?

"이제 그거죠. 190cm면 무조건 20평, 30평에서 살아야 되냐, 사람이? 그건 아니잖아요. 있을 거 다 있으면 되는 거고. 마당 있는 집에서 꼭 한 개가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보호자와 유대관계 시간을 함께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 같아요." (K8)

"이제 키워본 결과, 그러니까 얘도 이제 제주도에도 있어 보고, 저희가 마당이 있는 곳에도 이제 있고 했었는데. 이제 사실상 공간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공간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고. 물론 말도 안 되게 원룸인데 이렇게 강아지랑 산다고 하면 이렇게 큰 강아지랑 산다고 하면 그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적절한 보호자가 보호자 그 책임하에 어느 정도 공간 활용이 잘 되고, 그리고 그런 공간 그러니까 집은 사실은 노는 공간이 놀고 뛰어노는 공간이 아니고, 사실 쉬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그냥 편안하게 여름에 너무 덥지 않고, 겨울에는 또 너무 춥지 않게 이제 안락한 공간 자기 쿠션이 있거든요. 딱 그 쿠션 공간 ‥ 왜냐하면 사실 산책하고 나오면 집에서는 거의 안 움직여요. 거의 한 10시간 이상은 혼자 자거든요. 근데 다른 반려견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통 수면 시간이 12시간, 14시간 아니면 그 더 이상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공간보다는 산책의 퀄리티, 또는 산책의 빈도수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K1)

"물론 당연히 강아지가 클수록 활동 반경이 넓고, 이제 넓은 공간에서 키우는 게 좋긴 한데. 또 꼭 그럴 필요도 없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제 자주 산책을 나가신다거나, 그 아이들이 에너지를 소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 오히려 아파트에 키우는 개들은 산책을 안 하는 강아지도 되게 많거든요. 집에서만 키우고. ··· 견주분들이 워낙 산책도 많이 시키시고. 작은 집에 살아도, 그러니까 집에서는 쉬는 공간이니까. 이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는 것 같아요." (K6)

"저는 대부분의 개가 어디서든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는 대형견을 키우는 게 어려울 수 있지만, 운동과 적절한 산책을 시켜주기만 하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미국에서는 마당이 있어서 개를 마당에 내보낼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개를 많이 산책시키는 사람들을 자주 봐요. 그래서 그들이 개에게 충분한 운동을 시키고 자극을 주고 있다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제가 매일 산책하다 보면 같은 사람들이 대형견을 산책시키는 걸 자주 보거든요. 그 개들이 충분히 운동을 하고 자극을 받는다면, (연구자: "그렇다면 공간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나요?") 음, 만약에 원룸에 살면서 대형 골든리트리버를 키운다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반면에 보호소에서 대형견을 많이 보거든요. 대형견들은 입양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대형견을 입양하거나 키우고, 그 개들을 잘 돌본다면 작은 아파트에서 사는 게 보호소에서 평생 사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F3)

정리하자면, 참여자들은 결국 넓은 집이냐 아니냐의 문제보다는, 개와 보호자의 정서

적 유대와 충분한 야외 활동을 통한 에너지 발산 등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물론 아래에 인용한 영국인인 F1 참여자의 지적처럼 중·대형견은 문제가 될 소지가 더 크다. 대형견은 그 크기만큼 소형견에 비해 에너지도 많기 때문에 충분한 훈육과 발산이 없다면 공격적일 수 있다. 하지만 큰 개들이라고 무조건 입마개를 해야 할까? 연구자는 이 연구 과정을 통해 대형견이 항상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입마개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일종의 '신화(myth)'와 같이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 한국에서 중·대형견을 제대로 훈련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중·대형견이 종종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곤 한다. 하지만 그 원인은 자격 없는 보호자들이 중·대형견을 잘 관리하고 훈련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들은 중·대형견이라면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중·대형견을 키울 줄 모르는 보호자들의 문제를 모든 중·대형견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개들과 보호자들을 혐오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이 문제는 적절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부분으로 사료된다.

"대형견들이 훈련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죠. 맞아요. 훈련되지 않은 개들은 제대로 운동도 못하고, 규율도 받지 못해서 공격적으로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어떤 품종은 불법으로 지정되었고, 그 개들은 밖에 나갈 때 항상 입마개를 써야 해요. 만약 여기서도 사람들이 개를 훈련시키지 않으면, 대형견들이 문제가 될 거예요." (F1)

(3) 반려견 동반 업소 신고 및 감소

연구자들이 설문조사 기간 동네를 다니면서 설문조사를 하던 중, 한번은 카페 입구 테라스에 있는 대형견 보호자들에게 설문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 대형견 보호자와 대화하던 상대는 그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였고, 그분과 짧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카페 사장님 역시 반려견을 키우는 처지였고, 따라서 원래 카페를 반려견 동반 업소로 운영하였다. 하지만 최근 민원이 누적되어 영업정지를 당할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실내 공간의 반려견 동반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덕분에 사장님이 키우는 반려견도 주인이 운영하는 카페에 들어올 수 없다. 이러한 지점에 관해 연구 참여자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면담을 통해 질의하였다.

"단순히 그냥 악의적으로 민원을 넣으셔서 이제 막히는 거죠. 잘 갈 수 있는 공간들도. ··· 그러니까 작년 말, 올해 초에 엄청 경고를 받은 업장도 있으셨고. 그럼 이제 저희는

거기 못 가죠.
왜냐면 죄송하잖아요. 저희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근데 그거는 조금 법적인 게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 현실적인 부분을 드러, 반영이 돼서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 거기는 너무 문제가 됐어요. 너무 악의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가서. 진짜 한 번 더 민원이 들어가면 거기는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벌금을 내셔야 되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강아지 출입이 안 돼요'라고 얘기 이제 하셨던 거는 알고는 있는데. 제가 지금 다니는 공간에서는 아직은. 근데 잠재적 불안감은 사실 있죠. 이게 그냥 민원을 미친 듯이 또 들어, 제가 가는 공간으로 또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 그리고 여기도 상주견을 키우시는 카페나 음식점도 있으신데. 그런 분들은 그럼 어떻게 얘를 케어할 수 없어서 아마 데려오시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있고." (K2)

"그리고 진짜 좀 충격적이었던 게 되게, 악의적으로 카페에 강아지를 데리고 가면 그런 걸 막 신고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근데 본인이 피해를 봐서 신고하는 게 아니고 약간 타겟팅에서 완전 그러면, 이제 사장님은 대게 '괜찮아요.'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좀 눈치 보이고 괜히 피해 주는 것 같으니까 안 가게 되고 하니까 ···" (K8)

"근데 최근에 반려견 동반 식당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 최근에 제가 아는 바로는 민원을 넣었다.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 해방촌은 워낙 또 많이 상권 자체가 활성화되어 있고 막 하니까, 어르신들이 민원을 넣지 않으셨을까? 좀 너무 막 북적북적이고 막 하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경리단길은 워낙 조용하고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K9)

"이 동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좀 카페나 음식점에서 강아지가 안 되는 데가 많아졌더라고요. 원래 기존에는 있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어서, 그 부분에서도 많이 아쉬워요. 원래는 OO(반려견) 데리고도 카페도 자주 가고 했었던 데인데 좀 눈치가 보인다거나 그런 게 있었어서." (K4)

"해방촌은 특히나 한때는 정말 좋았다가, 지금은 그렇지 않게 된 곳입니다. 예전에는 강아지와 함께 술집에 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괜찮은 곳도 있지만, 예전만큼 많이 허용해 주지 않는 곳이 늘었습니다." (F6)

종합하면, 최근 들어 일부 악의적인 신고들이 많이 들어와 반려견 출입을 금지한 업소가 늘어나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에 의하면 이 문제는 아직은 심각하지 않다. 하지만 그것이 추후 광범위하게 퍼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가게에서 보호자와 함께 지내는

‘상주견’을 포함해, 반려견을 키우는 보호자 입장에서 해방촌을 사는 이유가 반려견 동반인데, 그것이 위협받고 있다. 더불어 해방촌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매우 ‘핫플’(핫플레이스(hot place)의 줄임말, 인기 명소)이 되면서 새로 진입하는 자영업자 중에는 철저하게 경영적 측면에서만 접근해, “동네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K3) 반려견 출입에 제한을 두기도 할 것이라 보기도 한다.

“여기가 요즘에 젊은 커플들? 젊은 동성 친구들과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짧은 시간 안에 무언가 사진 찍고, 핫플이라는 그런 것들을 남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솔직히 동물을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동반해서 가게 되면, 그들보다는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펫 프랜들리 가게들이 덜해지는 거지 않나? 그러니까 이 동네의 특성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새로운 업주들이 온 거죠. ··· 그러니까 완벽히 이해, 동네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업주들이 들어오면서. 또 그런 데는 또 금방 바뀌어요.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 이 지금 사람이 많아진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또 금방 상권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K3)

반려견의 업소 출입 부분은 연구 참여자들이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반려견 출입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 이해하고 수용하는 면도 있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반려견 양육 인구가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갈등을 방임하고 현실을 외면하는 공공의 역할이 지적될 수밖에 없다. 결국 관련한 부분에 있어 반려견 보호자와 비 보호자 모두를 보호하고 권리를 지키는 적절한 입법적,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음식점에는 사실 저희도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애들이 움직이면 털이 날릴 수 있고, 그게 음식이 올라가거나 하면 당연히 문제가 되고 뭔가 강아지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같은 공간에 있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K2)

“저는 그런 거를 전혀 몰랐는데, 원래 강아지가 들어오는 것도 안 되고, 강아지 음식을 팔아서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좀 충격적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업장이 엄청 많으니까. 강아지를 근데 그게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이게 뭔가. 아무것도 없다는 게 좀 충격적이긴 했어요. 한창 저희도 자주 가던 카페 사장님이 막 옆집도 신고당했다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안 좋은 건데, 소수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신고하시는.” (K6)

(4) 반려견 보호자 간의 갈등

반려견으로 인한 갈등은 보호자와 비 보호자의 문제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같은 반려견을 키우는 주민들 간에도 갈등의 여지는 매우 많다. 특히 대형견과 소형견 보호자 간의 갈등, 배변 문제로 인한 보호자 간 갈등들은 여러 연구 참여자가 지적하고 있다. 연구자는 대형견의 보호자들에게 일종의 '피해의식'이 존재한다고 여겨졌다. 대형견은 큰 개라는 이유로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이웃들에게도 배척당하고, 소형견들에게 위협적이라는 이유로 소형견 보호자에게도 배척당하는 것이다. 대형견 보호자들은 이 문제의 원인이 대형견에게 있기보단, 대부분 소형견의 사나움에 있다고 판단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반려견의 사이즈가 작아질수록 그 펫티켓에 대해서 좀 무던한 것 같아요. 이 친구가 다른 친구들에게 위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동네에서 할아버지가 데리고 다니는 소형견들이, 막 그렇게 사납게 달려들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도 제지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줄 좀 잡으라고 소리 지른 적도 있었었고, 근데 대부분 작은 아이들한테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K5)

"오히려 소형견을 키우는 보호자들한테도 기분이 상할 때가 있어요. '가지 마, 가지 마. 아유 저 무서운 애야!' 내 새끼가 뭐 했다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 새끼도 당신 새끼 무서워해요~'. 약간 이러고 싶은데. 혼자 같은 개 키우는 사람끼리 이러면 안 되지." (K3)

"제가 예전에 한 번 엄청 큰 친구가 놀자고 이렇게 하는 건데, OO(반려견)는 좀 무서워가지고 무서워했던 경험이 있어서. 간혹가다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근데 대형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매너가 더 좋은 것 같아서. (연구자: "매너가 좋으신가요?") 네, 위협이 될 걸 아시는 것 같아요. ··· 그냥 길 가다가 보면은 오히려 잘 짖는 애들이 조그마한 친구들이 더 짖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친구들도 막상 공격하는 건 아니고요. 짖는 거는 친구 그런 친구들이 많이 짖는 것 같아요." (K4)

"이제 소형견 키우시는 분들은 보호자분부터 좀 약간 겁을 먹으세요. '큰 친구가 오면 물지 않아요?' 막 이러면서. 아니 쟤가 더 짓고 있는데, 지금 왜 나한테 약간 이런? ··· 반감도 있고 피해 의식도 있고." (K8)

"사실 뭐 딱히 분리 안 돼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도 그러니까. 개를 키우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이게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전 아예 그런 뭔가 언쟁 자체를 아예 안 했으면

좋겠어서. 대형견, 중형견, 소형견 아예 딱 분리를 했으면은 서로 그러면 좋지 않을까 싶죠." (K9)

5) 반려견을 통한 이웃관계의 형성과정

일반적으로 반려견들을 통해 이웃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다음의 4단계 과정으로 도출할 수 있다. 먼저 1단계는 산책에서 자주 마주치는 단계이다. 프리랜서 직종인 경우에는 일정하지 않은 업무시간으로 인해 산책 시간 등도 일정하지 않기도 하지만, 보통은 반려견 산책에서 선호하는 시간대 및 선호하는 경로가 일관적이다. 따라서 자주 마주치는 반려견들과 보호자들이 존재하고 그들과 내적 친밀감이 형성된다. 다음으로 2단계는 반려견들 간의 냄새 맡기 등 인사를 통해 교류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보호자들이 아는 관계가 되었다고 해서 반려견들도 친하게 지내진 않는다. 반려견들은 각자 고유의 성향과 성격, 취향을 가지기에 성격에 따라 교류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조심스럽게 확인해 보는 것이다. 그리고 반려견들이 서로 친하게 지낼만한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면 3단계로 연락처(소셜미디어 계정 등)를 주고받는다. 대부분 강아지 인스타그램을 개설해 반려견들을 위한 사진이나 영상들을 올리고 교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4단계에서는 이렇게 친밀해진 이웃과 연락도 하고 함께 반려견 활동을 하며 교류가 깊어지는 단계로 접어든다. 서로 산책을 시켜주거나 단기 호텔링 등을 제공하기도 하고, 산책하러 같이 가거나 반려견 동반 공간에 함께 가서 교류를 나누는 단계이다.

"다른 집 강아지가 이제 먼저 가까이 와서, 이제 제가 인사해도 괜찮은지 '괜찮을까요?'라고 여쭤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괜찮다라고 하시면 가까이 가서 서로 코 인사부터 하고. 그러면 이제 '너무 귀여워요.' 약간 요즘 강아지 견주들 사회생활 중에 중요한 멘트가 있거든요. '아기예요?'라고 먼저 물어봐요. '노견이에요~.' 약간 이렇게 해서 일단 얘기 들으면, 이렇게 강아지가 동안이다 한 다음에, 그러면 '어, 아닌데~ 관리 되게 잘해주셨나 봐요.' 약간 견주분하고 자연스럽게 또 얘기가 되더라고요." (K10)

"강아지와 강아지가 먼저 인사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키우는 사람 먼저 인사를 하고, 이 친구들도 그 분위기를 읽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랑 그 친구랑 먼저 악수를 한다든지 뭔가 작은 스몰토크를 조금 하다가, 얘네들이 좀 진정이 된 것 같으면 그때 이제 '이제 냄새 맡아봐' 하고 이제 허락을 해주는" (K1)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보통 강아지 인스타가 있으니까. 인스타도 물어봐요. 그래서 강아지 인스타 교류해서 강아지 인스타 교류하는 경우도 몇 번 있었고. 그리고 이쪽 동네 이사 와서 똑같은 견종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길거리 그때는 놀이터 쪽이어서 좀 차랑 떨어진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살짝 줄 느슨하게 잡아보니까 둘이 잘 노는 거예요. … 저는 인스타로 종종 메시지 하고, 스토리 보면서 메시지 하고" (K5)

"가다가 보면 이제 저희 강아지가 막 관심을 보이는 상대방 강아지. 그러면 '인사해도 괜찮아요?' 해서 '네, 괜찮아요' 하면 이제 서로 이제 궁둥이 냄새를 맡다가 친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산책끼리 비슷비슷하게 이제 여러 번 마주치다 보면, 이제 그때부터는 막 서로 이제 연락처도 주고받게 되고. '누구는 잘 있나요?' 잘 지내고 인스타로 인친(인스타그램 친구)이 되면서 서로 더 친해지는 것 같아요." (K6)

"공통적인 산책 시간에 자주 만나다 보면 그때 좀 친해지는 거 같아요. 산책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산책하다가 갔는데 계속 만나. 그러면 이렇게 좀 친해지는 것 같아요…정보 교환도 하고. 이제 놀러 갈 때 한 마리 하나는 힘드니까, 이제 둘이서 각자 이제 같이 개를 데리고 놀러 간다든지. 생각보다 끈끈해요. 왜냐면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 비슷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산책을 하루에 한 번만 하지 않거든요. 특히 실외 배변은 네다섯 번 하니까. 그러면은 자기 일상이 있는데 뭐 하기 힘들다, 그러면 대신 시켜줄 수도 있는 거고. 애 대신 봐주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제일 가까운 친구 사이도 될 수 있는 거죠. 자주 보고 얘기도 많이 하고 하니까." (K8)

"보통은 이제 OO(반려견)랑 같이 이제 산책을 잘 다니는 친구들끼리는 자연스럽게 인스타 공유하고, 그러다가 이제 카톡 공유하고 이제 연락처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삼삼오오 이제 아예 모이는 멤버들이 있으면, 단톡방은 사실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고. 해방촌에서 저는 단톡방은 없어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친한 보호자님들 간에 이제 연락처 교환도 다 하고, 인스타 교환하고, 카톡하고 이러는 개별적인 그런 건 있고." (K2)

하지만 모든 반려견이 이렇게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매개체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한다. 개들도 개들의 고유한 성격과 특질이 있기에, 사회성이 떨어지는 개들이나 개들 간 성격이 맞지 않으면 관계를 맺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교류를 잘 못해요. 이제 오랫동안 한 친구는 없는데, 이제 그 이유인즉슨 이제 강아지들 성격마다 뭔가 잘 맞는 친구들도 있고 안 있는 친구들도 있고. 오고 가면서 좀 이렇게 에너지가 맞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인사를 항상 한다거나, 그냥 작은 스몰토크

정도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 한 명이 이제 ··· (외국인) 그 친구도 강아지를 이제 처음 키우게 되면서. 남산에서 이제 가다가 마주치면서 이제 친구가 된 친구가 되고 친구가 있어요. ···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아지들이 이제 인사를 시킬 때, 이제 좀 돌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가늠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보호자분들끼리도 약간 이렇게 눈치를 계속 보면서. 우리 아니면 인사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거를 먼저 이제 물어보는 추세에요." (K1)

"저는 제가 프리랜서여서, 사실 OO(반려견)도 똑같은 시간에 나가지 않아요. 시간대가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근데 주로 마주치는 분들한테는 그냥 진짜 완전 스몰톡, 한 진짜 스몰톡, 이 정도의 스몰톡은 하는데. ··· 그것도 약간 저 사람을 한 기분은 다섯 번 이상은 마주쳐야지. 다섯 번 이상은 마주쳐야 다섯 번 이상은 마주쳐야지 그냥 스쳐도 말을 갈까?" (K3)

"다가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 다가오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저희 강아지는 (어릴 땐 다른 강아지들을 좋아했지만) 지금은 또 강아지들을 싫어해서. 그렇게 하시면 저희 강아지는 좀 으르렁해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인사도 안 하시고 가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많죠." (K6)

"저희 동네 특징인지 모르겠는데, 인사를 하면 안 되는 강아지가 되게 많아요. 약간 많이 짖는 강아지들이나, 약간 공격성 있는 애들이 많아서. 거의 인사를 좀 안 시키시려고 견주분들이 많이 끌고 가시더라고요. 저희 동네에서는 그렇게 인사를 많이 못 시키는 편이고." (K10)

"길에서 개들이 만나기도 하는데, 제가 키우는 개들은 괜찮아요. 다만 작은 개를 키우는 사람이 있으면, 저의 개들이 무섭게 느껴질 수 있어서, 항상 다른 개들에게 인사하도록 놔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부 개들은 겁을 먹기도 하거든요. ···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더 쉽겠지만, 많은 한국인 주인들도 친절하고 대화를 시도하려고 해요. 개가 수컷인지 암컷인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름이 뭔지 물어보죠. 저도 그런 대화를 통해 한국어를 조금 배웠어요. 대부분의 시간 동안 모두가 친절하고, 개들도 서로 인사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갈등은 거의 없어요. 문제가 생긴 적도 없어요. 모두 친절해요." (F4)

하지만 반려견의 사회성이 낮은 경우, 싸움이나 사고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교류가 형성되기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보호자의 반려견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도 교류가 형성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느 부근에 어떤 강아지와 어떤 보호자가 살고 있고, 그렇구나. 얘네들의 산책 루트는 보통 이렇구나. 그러면서 또 이제 커뮤니티 활동하면서 보호자 인스타 알게 되고, 그러다가 서로 동물병원 같은 거를 정보를 주고받기도 하고. 이거는 조금 거기는 좀 별로예요. 거기는 좋아요, 하면서 그런 정보들이 오고 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옛날 같으면은 산책하다가 만나면 그냥 저 강아지 자주 보는 강아지인데. '안녕~' 보통 사람들끼리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기가 어색하니까 안녕 걔한테 말을 걸어요. '산책 나왔어? 그랬구나! 조심히 가~' 개한테 말을 건단 말이에요. 근데 커뮤니티 활동 때문에 보호자들이랑 인사하게 되니까, 가까이에서 인사 안 하더라고요. '어 오랜만에 봬요~' 막 이러면서 멀리서 이런 게 생기고 그래서 더 좋아요." (K3)

그렇다면 반려견 사회성 문제는 생득적인 기질인가, 생후 환경과 훈련에 의해 얻어지는 것인가? 아마도 인간과 같이 두 가지는 서로 양립하는 요소일 것이다. 이에 대해 외국인 참여자들은 사회성을 기를 기회가 부족함에서 오는 것으로 판단하기도 한다. 집에 혼자 두고, 다른 개들과 소통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기에 어울릴 기회, 이를테면 단체훈련 등으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제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직장생활로 바쁘기 때문에 반려견을 집에 혼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반려견과 산책을 할 때도 혼자 산책하는 경우가 많아서 반려견들이 다른 개들과 어울릴 기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반려견이 사회성을 기르지 못하고, 다른 개들과 상호작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F7)

"단체 강아지 훈련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려동물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다른 사람들과도 관계를 형성할 수 있잖아요." (F2)

전술한 바와 같이, 해방촌에서 반려견들은 전혀 모르는 이웃들을 연결하고 대화를 나누게 하는 매개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 참여자들은 이러한 한국인의 교류 정도가 외국과 비교하면 깊이가 낮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제 경험상, 외국의 개 공원에서는 사람들이 즉시 대화를 시작해요. '당신의 강아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저도 제 강아지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이렇게 해서 순식간에 20분 동안 대화하게 되죠." (F2)

"미국에서는 산책하다가 다른 사람이 개를 데리고 있으면, 개들이 노는 동안 5~10분 정도

대화를 나누기도 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보통 '이름이 뭐예요?', '몇 살이에요?' 정도로 짧게 대화를 나누고 헤어지죠. 그래서 미국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F8)

"이 지역의 많은 견주들이 매우 친절하고 사교적이며, 그들의 개들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몇몇 견주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개들도 그렇지 않죠. 그들은 서로 어울리지도 않아요. 반면, 매일 저녁 공원에 나오는 개 주인들은 서로 잘 알고, 주인들끼리나 개들을 위해 선물을 주고받기도 해요. 일종의 커뮤니티 같은 느낌이죠. 하지만 공원에 오지 않는 사람들은 대개 견주의 태도도 좋지 않아서, 개들의 태도도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개의 성격이 주인의 성격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F6)

6) 반려견을 통한 이웃관계 형성과 확장

"제가 되게 I의 성향인데 그냥 강아지를 키운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얘기를 되게 스스럼없이 하고, 약간 작게 이제 커뮤니티가 생기는 거죠"(K2). 이렇듯 모든 사례자는 반려견으로 인해 전에 없던 새로운 이웃 관계를 경험하고, 더 넓은 관계의 장에 참여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연구자들 역시 면담과 여러 조사 과정에서 느낀 점을 비롯해 "느슨한 연대 같은 게 있는 것 같다"(K10)는 한 연구 참여자의 표현에 매우 동의하는 측면이 많았다. 이러한 반려견을 통한 이웃 관계 확장성의 특징 중 하나는 무작위성과 예측 불가능성에 있다. "그게 정말 랜덤한 거죠. 내가 의도적으로 누구랑 친해져야겠다가 아니라. 이제 내 강아지가 산책을 가다가 그렇게 우연히 친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K6). 이러한 인간관계 방식은 인간들이 자신과 유사한 속성을 가진 타인과 관계한다는 유유상종 혹은 동종선호(homophily)의 경향을 담고 있으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그 동종선호를 넘어서는 관계를 경험하게 한다.

"(연구자: "사람 대 사람으로는 친해지고 싶지 않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강아지가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아지가 막 얘를 보면 막 너무 좋아하고 막 서로 놀려고 하면은, 그냥 약간 그 아이를 가진 부모의 심정처럼. 우리 애가 얘랑 친하니까 그냥 그게 잘 지내게 되는 그런 그런 것 같아요. 강아지가 없었으면 이제 나 말 한마디도 안 섞을 것 같고, 나랑 이제 전혀 마주치는 어떤 직장인이 아니니까. 나랑 전혀 이제 공감대나 어떤 일로서 교류가 있을 법한 사람이 전혀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이긴 하죠." (K6)

"저 사람이랑 친하고 싶은데, 애들이 너무 안 친해. 그게 이제 어쩔 수 없나 보다. 이렇게." (K8)

물론 보호자들은 반려견을 키운다는 유사 성질을 통해 친밀감이나 동질감을 느끼고 같이 어울릴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의 특성상 여러 특성 중 하나만 유사하다고 하여 지속적인 관계를 맺진 않는다. 이를테면 같은 성별, 같은 성씨, 같은 지역이나 학교 출신이라는 공통 분모를 통해 친밀성의 시작은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이 지속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다른 면에서 차이가 크면 쉽게 관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반려견을 키운다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반갑지만 한편 너무나도 흔해져서 다른 성질이 맞지 않으면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발견한 반려견의 이웃 관계에서의 매개적 역할은 타인과의 차이점으로 인한 관계 단절의 문턱을 낮추고, 관계를 지속해서 유지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즉, 이렇게 반려견을 통한 이웃관계의 확장과 유지 방식이 마을의 공동체 형성의 실마리가 될 여지를 보여준다.

"이웃들이랑 친해질 기회가 없잖아요. 사실 내가 여기에서 진짜 오래 살고, 태어나고 자라지 않은 이상… 그러니까 제가 되게 희한하다고 느꼈던 포인트가 강아지랑 강아지를 키우면서 동네 분들이랑 약간 친해지더라고요. 대화할 일이 없잖아요. 사실 그냥 뭐 직장 다니고, 그냥 회사 생활하고. 이러면 사실 그냥 출퇴근하고 가끔 의식하고 카페 가는 경우니까. 근데 강아지랑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냥 동네 분들 안 키우시는 분들이랑도 조금 대화가 되고 왜냐하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말을 거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진짜 마트 사장님들이랑도 대화하고 얘기하고, 미용실 사장님이랑도 얘기하고, 그런 게 좀 되게 진짜 이상한 경험이었어요. … 되게 신기하게 인간관계가 넓어졌어요. 되게 편협했는데, 약간 동네 인간관계가 엄청 넓어졌어요." (K2)

"그냥 지나가는 한국 이웃들에게 인사를 건네면 그들은 반응이 없어요. 한국인 견주들은 눈을 마주치고 인사도 잘해요. 심지어 작은 개를 키우는 사람들도 더 친절하게 다가와요 … 여기서는 그게(사회경제적 지위 영역을 뛰어넘는 교류) 가능하죠. 삼성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이곳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이곳에서는 내가 아니라 내 개가 중요하죠. 저희 개는 자기가 한국에 있다는 걸 모르고, 그냥 개일 뿐이에요. 그들은 이곳의 규범이나 문화도 몰라요. 그저 개로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개가 다른 개와 냄새를 맡거나 놀기 시작하면, 그게 저와 다른 사람 사이에 대화를 시작할 기회가 돼요. 그 순간에는 보통의 장벽이 없어지는 거예요." (F1)

"공원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개를 풀어놓고 그들끼리 뛰어다니는 동안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눠요. 한국인들도 저희와 잘 어울리는 경우가 많고요. …서양인들과

도 길에서 마주치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며 대화를 시작하게 되죠." (F7)

"그런 경우가 많아요. … 친해지고 그래서 막 그 집에 놀러도 가고. 또 생일파티도 같이하고. 따님이 또 결혼을 해서, 그 남편분이랑도 같이 여행을 한 번 가고 그렇게 교류가 되더라고요. 저희도 좀 신기하긴 한데. 그래서 맨날 여기 산책 다니면서, 그러니까 그런 신기한 경험을 하기는 해요. 왜냐면 예전에 이제 제가 살던 저도 이제 학교 다니고. 직장생활하면서 할 때는 이제 동네 주민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교류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정말 이제 식당에서 보면 인사할 사람도 많고, 단골 카페에도 가고. 또 저희 강아지를 맡아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산책을 전문으로 하시는. 그 이제 그분들 집에도 가끔 놀러 가고… 좀 교류가 많이 있죠, 동네 사람들이." (K6)

"근처에 새로 카페를 여신다든지, 근데 그런 젊은 사장님들 많이 계시니까. 그러면 또 강아지 때문에 카페 갔다가. (연구자: "강아지가 계속 친구를 만들어준 거네요?") 맞아요. 맞아요. 안 그러면 그렇게 직업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서로 관심사도 다 다른데, 만날 일이 없는 사람들을 산책하다 만나서 이제 교류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신기한 것 같아요." (K8)

위의 사례들을 종합해 보면, 반려견을 통해 길거리나 산책로, 공원, 카페 등 장소를 불문하고 전혀 모르던 타인들이 서로 인사하고 교류한다는 점에서, 반려견 그 자체로 움직이고 생명을 가지는 '걸어 다니는 제3의 장소'라고 칭할 수 있다. 즉, 반려견과 함께하는 그 어디든 제3의 장소가 되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공간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개들은 한국인보다 더 사교적인 경향이 있어요. 개가 사람을 더 사교적으로 만든다고 생각해요." (F6)

7) 외국인들과 한국인의 반려견 인식과 행동의 차이들

면담의 표집 과정에서 초기에 외국인들 위주로 신청이 많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우선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외국인들은 일관적으로 반려견 주인의식을 강조하였으며 그것에 대해 한국인들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곤 했다. 반려견 주인의식은 명확한 정의를 내리긴 어렵지만, 면담 내용을 종합했을 때 반려견을 책임감 있게 양육하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책임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종합

해 다음과 같이 설명해 보고자 한다.

(1) 외국인과 한국인의 반려견 주인의식과 행동 차이

한국인 연구 참여자들은 외국인들의 반려견들이 한국인의 반려견보다 훨씬 훈련이 잘 되어 있다고 평가하곤 한다. 누가 봐도 외국인이 키우는 개는 잘 배운 티가 난다는 것이다. "딱 똑바로. 주인이 걷는 대로 같이 딱딱딱딱딱 걸어가고. 앉아 있으면 딱 앉아 있고. 동물병원만 가도 알아요. 딱 그런 강아지들은 밖에다 묶어놔도 딱 가만히 있어"(K7).

> *"대부분 강아지들 훈련을 잘 시키시는 거 같아요. 한국인보다 나아요. 왜냐면은 저도 저희 강아지가 약간 이제 성격이 안 좋아지면서부터 되게 좀 강하게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강아지한테 왜 그렇게 막 이렇게 무섭게 하세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해야 강아지가 훈련되거든요. 근데 외국애들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좀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외국 애들은 보면은 되게 엄하게 시키고 그런 사람도 많은데." (K6)*

> *"만약 강아지가 누군가를 물거나, 가까이 가기만 해도, 여기서는 그 사람이 주인을 고소할 수 있고, 심지어 강아지를 안락사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매우 조심합니다. 다른 사람의 강아지가 친절하다고 하더라도, 제 강아지가 무슨 행동이라도 한다면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신중하게 행동합니다." (F3)*

외국인들은 자기 반려견들에게 비교적 엄격하지만, 긍정적 강화가 될 수 있는 방향의 훈련을 시키는 경향이 있다. 반려견으로 인한 문제가 생명의 문제와 결부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보호자들은 소위 '오냐오냐'하고 반려견에게 관대하게 행동한다. 이것을 좋게 표현하면 "조금 더 한국 사람들이 좀 더 애착을 갖는 경향이 있는 것"(K4) 이라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자신의 반려견이 엄격하게 통제해야 할 상황에 통제하고 제어한다. 규율과 통제를 제공하는 외국인들은 반려견에 대한 애착이 없는 것인가? 그들은 자신의 반려견이 자신의 통제하에 있다는 명확한 인식과 확신이 있으며, 반려견의 행동이 자신의 책임이라는 의식하에 반려견을 훈육한다. "그래서 당신의 개가 다른 개를 공격하면 그건 당신의 책임이라는 표지판을 붙여야 해요"(F5). 결국 반려견이 가족인 것은 사실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사람이 아니라 '개'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식과 같은 반려견

이라고 해서 개가 사람이 되진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아주 잘 훈련되어 있어요. 우리가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려요. 우리가 움직일 때 우리를 바라보죠. 아주 온순하고, 정말 친근한 성격이에요. ··· 우리는 그에게 입마개를 씌운 적이 없어요. 입마개가 필수적인 품종이 아니고, 사실 저는 정말로 원하지 않아요. 그가 제가 멈추면 멈추거든요." (F1)

"강아지가 짖으면 주인이 '아, 괜찮아~ 짖지 마~'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반응은 사실 강아지에게 짖는 것이 애정과 관심을 받는 방법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 제가 앞서 말했듯이, 제가 반려견이 짖었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셨죠? 반려견이 짖으면, 원하는 것을 더 이상 주지 않아요. 그는 다른 개와 놀고 싶었지만, 짖자마자 저는 그를 그 개에게서 멀리 끌어당겼어요. 이는 그가 짖으면 상황이 나빠진다는 것을 배우게 하려는 거죠. 그런데 많은 한국인 반려견 주인들은 반려견이 짖으면 (타이르는 눈빛과 따뜻한 말투로) '짖지 마~, 괜찮아~ 괜찮아~'라고 말해요. 이것은 정확히 반대의 결과를 낳습니다. 짖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짖도록 가르치고 있는 셈이죠. 이런 경우를 곳곳에서 볼 수 있어요. 물론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한국인 반려견 주인 중에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고, 서양인 반려견 주인 중에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많아요. 하지만 평균적으로 길에서 반려견들이 싸우려고 할 때, 그런 반려견들의 주인은 대개 한국인인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아마도 문화적인 차이일 수도 있고, 한국에서 반려견이 인기를 끌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려견을 잘 훈련시키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일 수도 있죠.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반려견 훈련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예요. 하지만 정부가 그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30대 한국인들이 아이 대신 반려견을 선택하고 있고, 정부는 그것을 장려하고 싶지 않을 테니까요." (F9)

"한국 주인들은 강아지 훈련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외국인 주인들은 종종 강아지를 옆에 붙여 두고 명령에 잘 따르도록 훈련하지만, 몇몇 한국 주인들은 그렇지 못하고 강아지가 뛰어오르거나 주인 통제 없이 달리기도 하죠." (F10)

결국, 이것은 훈련 부족 문제로 결부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적절한 훈련이 반려견들에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며 관련한 교육과 엄격한 반려동물 소유 제한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상당수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준비되지 않은 반려견 보호자의 몰지각한 행동이 반려견 문화

를 부정적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외국식의 자격취득 제도나 반려동물 보유세 등 쉽게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특히 훈련과 관련하여 차이를 크게 느껴요. 일부는 긍정적인 강화 훈련을 하고 있지만, 반면에 산책 중에 반려견이 무언가 잘못하면 소리를 지르거나 강하게 리드를 당기는 사람들도 봤거든요. 반려견의 행동에 대한 교육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전문가 훈련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세미나나 단기 강좌 같은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F8)

"외국 분들은 딱 인식이 정확하게 좀 있어서 다른 것 같아요. 교육. 사실 저희도 인식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애들 교육이 미비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딱 1~2년간의 잘된 교육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친화력도 애들이 있는 거고, 그거 가지고 말도 잘 듣는 건데 사실 그게 안타까운 거죠.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계속 주의하고 있는 거죠. ··· 이거는 수준의 차이예요. 수준의 차이. 이건 수준의 차이가 있어. 이건 정부 입장에서 한다든지 그런 캠페인을 좀 해야겠죠. 사실은 지금 민간에서 계속하고 있지만, 주인들은 그 생각을 못하는 거죠. '내가 이 돈을 들여갖고 해야 된다고?' 일단은 정책 자체가 강아지를 입양하는 것 자체가 그냥 손쉽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의무도가 너무 떨어지는 거죠. 그냥 내가 그냥 알아서 키우면 되지가 되는 거. 외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입양도 하면은 얘를 어렸을 때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부터 이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상태고, 지금 기간에는 뭘 가르쳐야 되고, 뭘 해야 된다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집 지키는 개였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K7)

"강아지가 아니라 보호자를 위해. 독일은 한 달 자격 취득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한 달까지 안 돼도, 일주일이든 뭐든 어쨌든 그런 게(교육과 자격 취득)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그리고 이제 아무나 개 안 키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니까. 차라리 세금을 내면은 그런 것도" (K8)

"그러니까 일단은 개를 키우는 사람들 자체가 인식이 좀 있어야지 아무래도 되지 않을까 ··· 독일처럼(허가제) 아예 그렇게 하는 것도" (K9)

(2) 한국인들의 반려견 과잉보호

남편이 유럽인인 K10 참여자는 반려견 문제에 있어 남편과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있다. 외국인들은 대부분 한국의 반려견 문화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개

는 아주 추운 겨울 산책용인 얇은 코트 정도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옷은 전혀 입히지 않아요"(F1). 이렇듯 한국에서 흔하게 입는 반려견용 의류를 입히는 것까지도 외국인들은 부정적이다. 외국인들의 눈에 한국인 보호자들은 개를 개답게 키우지 않고 있으며, 불필요한 과잉보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반려견에 대한 과잉보호 문제는 외국인과 한국인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 과잉보호 문제는 '반려견 주인(pet owner)'에서 '반려견 부모(pet parent)'로 반려동물 문화가 급변하는 현시점에서 오히려 서구인들이 여전히 주인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가지게 한다. 한국적 맥락에서는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것을 다 주는 부모가 더 익숙하기 때문이다.

"(남편이랑) 과잉보호라는 게 되게 많이 싸우는데. 그래서 처음에 유모차 이런 거 사고, 이럴 때 '강아지가 유모차가 필요하냐, 강아지 이런 거 필요 없다' 이런 걸로도 많이 싸우고, 밥 같은 것도 '뭐가 좋대, 뭐가 좋대' 막 이런 것만 다 들어와가지고 '이걸로 바꾸자 저걸로 바꾸자', 그러면 (남편은) '아니야, 아니야. 먹이던 거 그냥 괜찮으면 그냥 계속 먹여'. 그래서 이게 성격의 차이인 건지, 문화의 차이인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유럽에 갔을 때 느꼈던 거는 확실히 강아지들이 훨씬 구체적으로 약간 그냥 리드줄 없이 목줄 없이도 그냥 산책 너무 잘하고, 그런 반려견 관련된 문화가 훨씬 더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배변 처리하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훨씬 더 책임감을 가지되, 좀 더 강아지들이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나라인 것 같아서 좀 다른 것 같아요. ··· 오거리로 가는 길이 되게, 강아지 요즘 해방촌이 너무 핫해져서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기가 좀 너무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사람이 많아서. 인도는 되게 좁고. ··· 거의 가방 안에 넣어서 많이 가게 되는 위험할 때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남편이랑 또 많이 싸우는 것도 '왜 강아지 가방에 넣냐, 걸어가라' 이랬는데 그런 것도 있고" (K10)

"간혹 사람들은 유모차에 개를 태우고 다니거나 하는 걸 보면, 음, 그 개가 21살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반려견을 책임감 있게 돌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F3)

연구자들이 설문조사를 위해 해방촌 일대를 다니며 반려견과 산책하는 보호자들에게 개방형 문항을 물어보면, 일관적으로 '~를 만들어 주세요', '~를 할 수 있게 해 주세요'와 같은 요구들이 많았다. 그리고 상당수 오프리시(off leash)로 불리는 목줄 없는 자유 놀이가 가능한 공간 등을 요구하였다. 현장에서 청취하는 요구사항들을 보면, 개들

의 행복을 위해 이러한 오프리시 환경과 시설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느껴진다. 하지만 K1 참여자의 외국 공원 경험담에서 자신의 욕심대로 이해하는 보호자보단, 반려견에게 꼭 필요한 적합한 것만 제한적으로 제공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여러 경험이 쌓이면서 오프리시가 모든 반려견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는 다른 관점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게 한다. 인간의 눈과 생각, 즉, 보호자의 욕심이 아니라 반려견을 실질적으로 이해하는 가운데 반려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미국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 유럽 국가들을 보면은, 이제 공원에 제가 한번 최근에 놀랐던 게 샌프란시스코를 한번 다녀왔었는데, 거기 공원에는 오프리시를 장려하는 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가면은 이제 풀어놓는 개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또 반대로 안 푸는 강아지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주인 스스로가 이 친구를 아는 거죠. ··· 오프리시 할 수 있는 공간을 데려가 봤었는데. 막 크게 뭔가 이 친구가 정서적으로 더 좋아진다 아니면 뭐 운동을 할 수 있다? 굉장히 일시적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친구랑 얼마나 상호작용을 더 잘하면서, 오프리시 공간에만 가서 자유로운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도시 공간, 도시의 이런 카페 공간이라든지 굉장히 시끄러운 어떤 거리를 가더라도, 보호자도 그렇고 이 친구도 그렇고 불안해하지 않고 편안하게 이 도시 생활을 같이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부터가 일단은 그 불안이 없어져야 되는." (K1)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서. 아직 한국에서는 반려견 교육이 잘 돼 있는 편은 정말 아니라서. 오프리시를, 외국은 그러니까 해외의 경우에 오프리시를 해도, 아이들이 보호자와 교감과 교육이 잘 돼 있어서 막 그렇게 애들이 유실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한국에서는 '우리 개 콜 잘 돼요~'. 하지만 유실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K3)

관련하여 한국과 비슷한 동아시아 문화를 공유하는 중국 출신의 F7 참여자는 한국에서의 반려견 문화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이는 아시아 대부분의 나라에서 비슷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일본, 중국, 한국 모두 빠른 삶의 속도 속에서 외형적으로만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면보다는 외형적으로 포장된 모습을 중시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반려견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F7)

이러한 참여자들의 진술을 곱씹어보면, 일견 이것은 한국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

듯 반려견에게 행동한다는 인상을 준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반려견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간 소위 육아를 하는 엄마들을 비하하는 용어인 '맘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역시 자녀에 대한 소유의식과 거기서 나오는 내 자식만 생각하는 이기적 행태가 비난받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 *"조금 나이 있으시고 이런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시고, 그냥 무작정 이렇게 약간 들이밀고 인사시키고 이러는데. 이제 아무리 성격이 좋은 친구여도 갑자기 나타나고 막 이러면. ··· 이제 막 예뻐만 하고 이렇게 키우고, 본인의 강아지의 입장만 생각하고 남의 강아지가 저럴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못하면 배려를 못하잖아요." (K2)*

아래의 인용문에서 미국 출신의 F6 참여자가 한국인 보호자들이 반려견이 원하는 대로 대하지 않고, 보호자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는 방식으로 반려견을 훈육하는 지점을 지적하는 부분들은 한국 반려견 문화의 문제점으로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부분으로 사료된다.

> *"개를 사랑하는 건 좋지만, 주인들이 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개를 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개는 아이와 같거든요. 제대로 훈련하지 않으면 개는 나쁜 아이처럼 행동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은 한국인들이 개를 키우지만, 일부는 개를 키울 준비가 안 된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5살 된 개가 아직도 강아지처럼 행동하고, 강아지의 행동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보면 말이죠. 또한 반려동물 주인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종종 하고 있죠. 예를 들어, 개의 배설물을 거리에 그대로 두거나, 충분히 사회화하지 않아 개가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경우 같이요. 저는 반려동물 주인들을 위한 사회화와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F6)*

(3) 개를 대하는 태도와 인식의 부족

한국에서 개를 마당에서 집을 지키는 동물로, 그리고 실내에서 키우는 애완동물에서 함께 삶을 나누는 반려동물로 개념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사실 이 연구에서 지적하는 모든 갈등의 근원은 노년층에게 있는 '마당개'의 개념, 그리고 중장년층의 '애완견' 개념, 청년층의 '반려견' 개념들이 충돌하는 세대 갈등의 특성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비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개에 대한 혼재된 인식들과 섞여서 갈등과 혼란을 가져온다. 정리하자면, 대다수의 한국인이 각자의 방식으로 개를 좋아하긴 하지만, 어떻게 좋아하는 것이 적합한지 혹

은 좋은 것인지 잘 모르는 미숙한 상황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인용문에서 참여자는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개를 대하는 기본적인 예의의 범위가 차이가 있음을 지적한다. 한국인들은 어린아이들도 개를 두고 존중하고 조심스럽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섭다고 소리를 지르는 반면, 외국 아이들은 조용히 개를 존중한다. 개가 무섭다고 소리 지르는 아이들의 모습은 큰 개만 보면 왜 입마개를 하지 않느냐 소리치는 노년층 주민들의 모습과 겹쳐진다.

> *"저 많이 느껴요. (연구자: "어떤 지점에서?") 아침에 아무래도 제가 남산을 많이 가는데. 한국 어린이 유치원 애들이랑, 외국인 어린이 유치원이랑 완전 달라요. 대하는 태도가. 한국 어린이 애들은 '우와 개다. 무서워!' 개나 무서워. 선생님들이 일단 '야! 무서워, 무서워 이리 와! 이리 와!' 일단은 개는 무섭다. 이렇게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근데 일단 외국인들 유치원에서는 일단 관심이 없고요. 그리고 걷는 것 자체가 조용히 이렇게 이렇게 가자고 이렇게 해요. 선생님들이 그냥 아니면 '뷰리풀 독(beautiful dog)' 이렇게 얘기해요. 뷰리플 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한국은 개는 무섭다 그렇게 인식을 시키는데, 외국인들은 뷰리풀독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저는 교육에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특히 여기 이 동네에 와서 한국 아이랑 외국인 아이랑 걔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런 부분은 아직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K9)*

더불어 '우리 개는 물지 않아요', '우리 개는 착해요' 같이 한국 사회에서 반려견 보호자를 비하하고 비꼬는 유행어 같은 말들이 외국인들의 진술 속에도 발견된다. 앞부분에서 K2 참여자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반려견들끼리 인사시키기 위해 자기 반려견을 들이민다는 이야기는 다음의 인용문들과도 그 맥락을 같이 한다. 보호자들은 자신의 반려견을 온전히 신뢰하지만,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더불어 다른 반려견들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본능에 충실한 동물인 개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본인과 친밀한 관계의 반려견에만 집중해 다른 반려견들과 보호자들, 그리고 비 반려동물 보호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다. "〈만지지 마세요〉라고 적힌 표식을 강아지의 목줄에 달아놓았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별로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F3)"

> *"외국인 친구가 키우는 강아지랑 같이 이제 산책 훈련을 우리가 계획된 건 아니고. 이제 도저히 밤에 만나서 이제 그럼 '우리 올라가는 데 같이 한번 가볼래?' 해서 ··· 중년 남성분이 키우는 이제 레브라도리트리버 한 마리가 같이 있었는데, 이제 같은 루트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제 '우리 인사해도 되지 않나요?' 이랬는데, 근데 이 친구가 조금*

이슈가 있어서. 지금 트레이닝 중이니까 저는 인사 안 하고 싶다 했는데, 근데 그분이 되게 억지로 엄청 왜 엄청 신나 보이는데 왜 인사 안 시키냐, 그래서 뭔가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인사를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친구가 이렇게 너무 깊숙이 냄새를 맡으러 들어와서, 얘가 이제 뭐라고 그러지? 으르렁거려서 다행히 싸우지 않았는데, 이제 좀 급작스럽게 이제 줄을 당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한 번 있었어요." (K1)

"제가 겪는 문제 중 하나는, 제 두 번째 반려견은 반응성이 강한데, 사람들이 '우리 개는 친근해요'라고 말하곤 해요. 하지만 저는 '내 개는 그렇지 않아요'라고 말해야 하는 상황이 많아요. 그런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문제를 느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그런 인식 부족이 문제인 것 같아요. ··· 가끔 어떤 사람들은 제 반려견이 짖고 으르렁거리는데도 계속 다가오면서 '우리 개는 괜찮아요'라고 하곤 하죠. 그럴 때는 '그런 개가 아니라구요'라고 말해야 해요. ··· 저는 이게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자기 개가 친근하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모든 개들도 친근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개의 신호를 잘 못 읽는 경우도 많아요. 저는 '안 돼요, 안 돼요'라고 하면서 제 개를 끌어당기고 있는데도, 그들은 저를 따라오면서 계속 자기 개를 데려오려고 하니까요. 그런 일이 종종 발생해요." (F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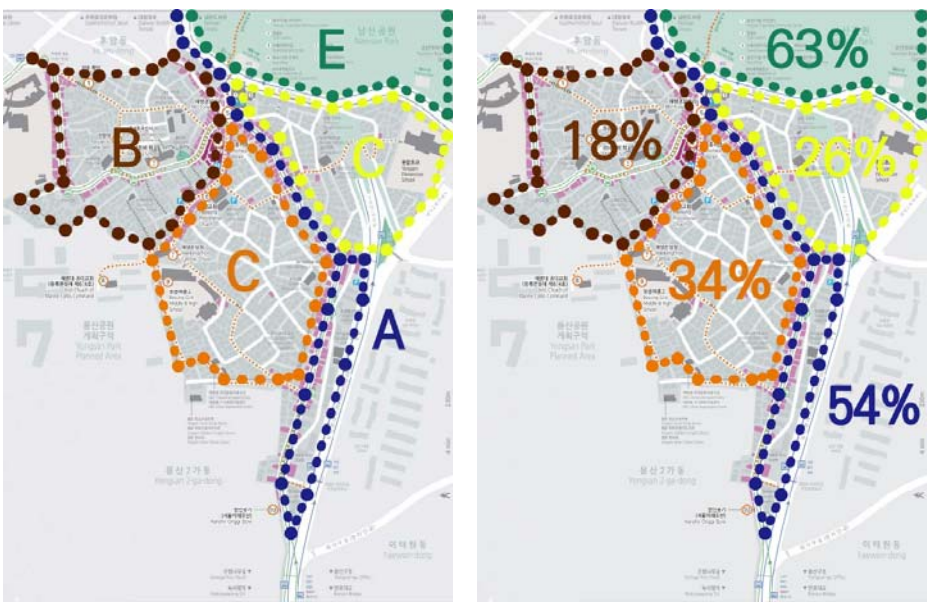
"대부분은 강아지가 귀엽다고 말해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인들이 강아지와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강아지 얼굴에 다가가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먼저 강아지가 냄새를 맡게 해야 해요"라고 말하죠. 그래서 강아지가 겁을 먹어요.' (F2)

이러한 미숙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아래 인용문에 나오는 연구 참여자의 경험은 한국인들에게 과연 '반려견', '개'라는 존재가 무엇일까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연구 참여자 K3의 반려견은 믹스견이지만 외모가 독특하다. 그런 반려견을 두고 길을 가던 이웃들이 얼마를 줬냐, 비싸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아직 우리 사회에서 반려견(마당개나 식육견이 아닌)이 '물건' 혹은 이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외국인 참여자가 지적한 '액세서리'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추정하게 한다. 물건이기에 쉽게 개를 사고, 쉽게 버린다. 그리고 내가 키우는 개를 존중하기보단, 보호자의 의사에 개를 철저하게 맞춘다. 내 소유의 물건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물론 이것이 개가 사람에게 우선하는 일부의 태도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여러 가지 진술들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집에서 키워지는 가족과 같은 개들에 대해 '반려견'이라는 명칭에 걸맞은 태도와 적절한 대우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다.

“이건 엄마가 산책하다 들은 건데, 비숑을 데리고 산책 나온 아주머니가 엄마한테 보고 ‘걔는 얼마 주고 데려오셨어요?’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네?’ 이랬더니 저희 개는 60만 원 주고 데려왔다고 ··· 그리고 저 뒤에서 저희 골목 뒷골목에 공사하시는 인부분들이 그때 ‘어우 얘는 비싸겠다’ 이래가지고 ‘똥개예요~’. 제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싼 돈을 주고 데려온 품종이라는 게, 나는 저거를 돈 주고 사 올 수 있는 재력이 있어라는 거를 은연중에 드러내는 것 같은 거죠.” (K3)

3_사진유도면담 방법을 통한 물리적 환경 및 계획 평가

1) 해방촌 산책 구역



자료: 해방촌 도시재생센터, 「해방촌 마을지도」를 연구자가 재가공, 2024

[그림 6-1]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분한 해방촌 산책구역 지도

가장 먼저 위와 같이 설문조사를 통해 구획된 5개의 산책 구역 지도를 연구 참여자들에게 제시하고 그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사진유도면담을 수행하였다. 위 구역들에 의견을 물어본 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A구역〉은 편의성이 높으나 위험한 곳으로 인식된다. 동물병원

두 곳과 용품점, 반려견 친화적인 가게들이 많으며 해방촌의 초입으로 다른 지역으로 가기에도 수월한 곳이라는 점에서 좋지만, 차들과 방문객들이 많아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외국인들은 이 근방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고, 외국인 이웃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편의시설도 많다는 점이 장점이 되어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분위기를 보이는 반면, "이 루트를 좋아한다고? 이거는 되게 특이한 사람이네. 위험한데"(K7) 와 같이 한국인들에게 이곳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A는) 언덕이 많고 풀 같은 게 잘 없고 차랑 너무 근접해 있어서 왜냐하면 뒷골목에 풀 같은 거라도 있으면 뒷골목이라도 다니겠는데. 진짜 그냥 언덕 그리고 일반 시멘트 바닥 콘크리트 바닥 그런 거라서. 저 동물병원 갈 때 말고는 잘 안 가고요." (K3)

"A쪽 녹사평 쪽으로 내려가는 길은 조금 너무 위험해서 차들도 너무 잘 다니고, 위험해가지고. 그쪽 길은 강아지도 무서워하고 해서 좀 잘 안 다니는 것 같고요." (K4)

"A 지역은 집과 가깝기도 하고, 이 거리에 아는 사람들도 많아서 자주 마주치고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제 강아지가 어릴 때부터 잘 사회화되길 원해서 사람들이 많고, 소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그가 잘 행동할 수 있길 바라거든요." (F9)

"A 구역에는 반려견과 함께 갈 수 있는 카페나 작은 애견용품 가게들이 있는데, C, B, E 구역에는 그런 공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잘 이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F8)

"A 구역은 만약 더 많은 반려견 친화적인 식당이나 카페가 없다면, 그곳에서 산책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아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고 개들에게는 꽤 위험할 수 있어요." (F7)

"요즘 해방촌이 너무 핫해져서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기가 좀 너무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사람이 많아서. 인도는 되게 좁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한 명도 걸어가기 힘든 거리인데, 이제 강아지까지 데리고 가려니까 힘들어서." (K10)

〈B구역〉은 대부분 이용도가 낮지만, 평지가 그나마 존재한다는 평가도 있지만, 가팔라서 싫다는 응답도 있던 점에서 일부 구간의 평지에 대한 선호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책에 활용하더라도 후암동 방향으로 넘어가기 위한 경로로 활용되는 경우에 거치게 되는 경로였고, 소수의 정규 이용자들 역시 이곳에 집이나 일터가 있기에 산책

경로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거주지 근방이 산책 선호도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B 딱 여기만 평지예요. 솔직히 제가 힘들면 저는 그냥 여기로 가요. 제가 너무 힘들면 여기 가요. 여기의 이유는 편하게 애들도 할 수 있어요. 힘들게 막 안 하고,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고 적당히 나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공간도 조금 있고. 그리고 이제 조용히 돌아다닐 수 있고. 저는 여기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K7)

"제가 살고 있는 곳은 B 지역이라서, B 지역에서 이제 다른 곳들을 가봤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희 개랑 같이 다닐 때 좀 더 수월하게 다닐 수 있는 곳을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K1)

"B라는 공간은 그냥 저희 생활권. 완전 생활권인 거죠. 그러니까 집이나 직장이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자주 왕래하는 공간이고." (K2)

〈C구역〉과 〈E구역〉은 경사가 심해 산책로로 부적합하다는 의견도 많다. 하지만 그 경사로 인해 사람들이나 차들이 없다는 점이 오히려 장점으로 인식되어 조용해서 좋다는 반응과 심심하다는 반응이 나눠지고 있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은, 〈C구역〉에 대해 한국인들은 대다수가 부정적이지만, 외국인들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C구역〉) 그 언덕은 어느 길을 가더라도 빨리 지치게 합니다. 여름에는 심지어 개도 지쳐버릴 정도입니다." (F6)

"저는 C 지역을 좋아해요. 큰 언덕이 있지만, 사람이 별로 없고 교통량도 적어서요. 언덕을 올라가는 게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그만큼 한적해서 좋습니다. 개와 함께 산책할 때는 큰길보다는 작은 길을 따라가는 게 훨씬 더 좋죠. 그래서 저는 주로 언덕을 올라가서 멋진 전망을 즐기고 나서 다시 내려오는 걸 선호해요." (F3)

"(C는) 제가 주로 산책하던 곳이에요. 차가 없는 뒷골목들이 많거든요." (F5)

"저도 C 지역을 좋아하는데, 그곳은 차들이 적게 다녀서요. 그런데 차들이 다닐 때는 정말 빠르게 지나가요. 아마 과속방지턱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보도가 없어서 저는." (F10)

"C 이쪽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실 오르막길도 많고 또 좁은 길도 많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메인거리를 나가게 됐을 때는 워낙 자극적인 요소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뭔가 특별히 뭔가를 사야 된다거나 그런 게 아니면 웬만하면 잘 안 데려가고요." (K1)

"E가 제일 가팔라. 지금 여기에서 요거 공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는 이 정도로 길잖아요? 오거리까지. 근데 여기는 이 짧은 데 이렇게 올라가요. 이 공간은 아마 이거를 고르신 것 같아요. 위에 요 위에 여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는 다 계단입니다. 이 계단, 계단, 계단 여기는 도로로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계단, 계단, 계단 그리고 엄청 좁고." (K7)

"(E는) 뭔가 산책하기에 좋은 환경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르막길도 너무 많고, 걷기에 조금 지치는 구간들이 많아가지고." (K4)

"E가 약간 러닝 공간이 있어가지고 저는 되게 좋아해요. 유일하게 그나마 평지길이 조금 있는 구간이 있어가지고, 저는 러닝 많이 해서 그쪽으로 많이 다니긴 해요." (K9)

반면에 남산공원을 포함한 〈D구역〉은 거의 모든 참여자가 선호하는 녹지공간임을 확인할 수 있다.

"강아지가 엄청 좋아해요. 남산. 강아지 확실히 거기 흙이 많고 풀이 많기 때문에 되게 좋아하고." (K6)

"D 같은 경우를 제일 많이 다니는 것 같긴 한데, 이쪽에 좀 풀도 있고 해서 강아지들이 좋아해서 D 구역은 자주 가는 편이고." (K4)

"남산은 어쨌든 차가 별로 안 다니니까 완전히 그래서 여기를 주로 많이 가고, 사람도 산길은 힘들어서 잘 안 오시거든요. 그리고 산에서 만나는 분들은 어쨌든 좀 더 개를 예쁘게 봐주시는 거 같고, 그래서 제일 많이 가는 곳이고." (K8)

"분명히 D 구역이 개들에게는 가장 좋은 선택이에요. 개들은 자연을 좋아하니까요." (F7)
"D 구역이 아마도 가장 좋은 곳인 것 같아요. 남산은 너무 넓고 푸르고 아름다워서 가장 좋은 산책을 해요." (F2)
"남산공원이 정말 중요한 요소였어요. 만약 그곳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서 살지 않았을 거예요. 개와 함께 살기 어려웠을 테니까요." (F1)

2) 마을 흔적 여행길

다음으로 아래의 두 사진을 제시하고 연구 참여자들에게 흔적 여행길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요청했다. 이 길의 존재는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많았으며, 표지판을 봤으나 지도를 따라서 가볼 생각이나 이 길이 좋은 산책코스가 된다는 생각을 한 예는 없었다. 대부분 참여자는 현재 존재하는 3가지 흔적 여행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제 생각에는 이 루트들은 사람들을 위한 것 같아요. 상점과 식당이 있는 경로들이라 개 산책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네요." (F9)

"본 적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냥 지나쳤던 것 같아요. HBC의 주요 구역들을 소개하는 표지판이라고 생각해요 … 일부 경로는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반려견과 함께 일부 경로를 걷는 것을 즐길 것 같아요.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언덕과 교통량이 문제입니다." (F8)

"사실 우리는 이미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산책) 같아요. 주로 이쪽을 산책하는데, 우리 집이 이 근처에 있어서 뒷길을 자주 이용하거든요. … 특별히 이 길을 목적지로 삼고 걷기보다는, 그냥 우연히 걷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지판이 명확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트레일을 하러 오는 것을 보기 어려워요." (F6)

특히 한국인들은 이 흔적 여행길들이 방문객의 나들이나 여행을 위한 지도나 지침 정도로는 의미가 있지만, 긴 시간 거주해 온 주민들과 반려견들에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젊은 사람들이 왔을 때는 조금 그냥 맛집이나 이런 데 있는 데를 찾아가는 것 같아서 (강아지 산책로로) 뭔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K4)
"동네 사람들은 그냥 이제 편안, 딱히 이런 게 없을 때도 갈 수 있다. 그냥 원하는 대로 다녔으니까. 그것보다는 이제 강아지 데리고 놀러 오는 주말에 놀러 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소개할 때는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K5)
"전혀 도움이 안 되죠. 별로 그래. 사람을 위한 약간 … 저는 동네 사람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어디에 뭐가 있는지 근데 이제 여기를 처음 방문하거나 여기에 그냥 한 번 한두 번 와본 사람들은, 그냥 대충에 그냥 로드맵을 확인하는 정도." (K6)

"굳이 갈 의사가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지나치긴 했을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저기 강아지랑 다니다가 골목을 워낙 많이 다니니까 여기저기를, 근데 갈까 굳이 내가 이 코스를 따라서 갈까?" (K2)

특히 이 길들은 다문화 흔적 여행길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산책로로 딱히 선호되지 않는 B와 〈C구역〉에 위치하고 있기에, 이 구역들의 단점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 즉, 좁고 가파르며, 차량과의 사고위험 등으로 안전하지 않다.

"사실은 이거 말씀하신 이 표지판 많지 않거든요. 많이 안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처럼 하면은 이거는 강아지들이나 가는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 빠지는 길 보이는 것처럼 표시하실 텐데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적합할는지는 모르겠어요. 오히려 할 수 있는 길들은 강아지와 함께 살 수 있는 길들은 조용한 길이 더 낫다. 왜냐하면, 이런 복잡한 길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강아지들이 이 산책로로 많이 쓰인다고 해서. 여기를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저는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K7)

자료: 시사경제신문, 2017, 해방촌 여행길 통해, 역사의 흔적 찾는다.

[그림 6-2] 사진유도면담에서 제시된 해방촌 흔적 여행길 마스터플랜

자료: 연구자 직접 촬영, 2024

[그림 6-3] 사진유도면담에서 제시된 해방촌 다문화흔적 여행길 표지판

3) 작은 정원

이어서 해방촌 정원박람회의 흔적인 작은 정원들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향을 수렴하기 위해 위의 지도와 사진들을 제시하고 연구 참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참여자들의 평가를 종합해 보면, 이 정원들은 없는 것보단 낫지만 반려견들이 활용하기에 모호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개들에게는 그냥 앉아서 다른 개들을 보는 게 아니라, 뛰어놀 공간이 필요하기"(F6) 때문이다.

> *"이곳의 작은 정원들과 녹지공간들이 참 좋아요. 개들에게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우리의 개처럼 냄새를 맡는 것이 중요한 종족에게는 특히요. 하지만 어떤 계단이나 벽 옆에 있는 공간은 사실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더 많은 작은 정원과 녹지공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F1)*

> *"인간에게는 좋지만, 개를 위해 설계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개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어요, 특히 소형견들은요. … 개에게는 별로 유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말했듯이 개와 인간의 타협점 같아요. 우리에게는 좋지만요." (F2)*

"이런 녹지는 사실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렇게 필요한 공간이 아닌 거죠. 그냥 보는 공간이지, 여기에서 머무는 공간은 아니니까." (K2)

"나무만이라도, 나무 주변만이라도 갈 수 있게끔 … 그렇게 하면은 애들은 들어갔다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지만 아까 같은 경우에는 애들한테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공간이죠" (K7)

"강아지가 걷고, 냄새 맡고, 소변을 볼 수 있겠죠. 기회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높이가 너무 높거든요 … 이건 지면과 같아요. 하지만 접근이 금지된 것처럼 보여요. 그냥 작은 꽃밭 같아서 여기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 같은데요." (F5)

참여자들은 이 공간이 반려견들의 놀이터로 쓰기엔 매우 좁고, 적절히 냄새 맡기(sniffing) 같은 놀이 공간이나 쉼터 정도로 활용할 수 있지만, 그마저도 너무 접근성이 낮아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이 공간이 누가 관리하는 것인지, 소유가 공공인지 민간인지 인식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연구자들 역시 이 공간이 정확히 국유지인지, 아니면 민간 소유의 땅에 조성과 관리만 하는 것인지 파악되지 않는다. 이 정원들은 적절한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과 다양한 식물들을 심어 반려견들의 휴식과 놀이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로 판단되었다.

"제 강아지들은 식물 냄새를 맡는 걸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다양한 식물이 있으면 개들이 더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 냄새를 맡는 것은 개들에게 큰 자극이 되고, 그들에게 중요한 놀이 방식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다양한 냄새를 맡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죠. … 다년생 식물을 심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예요. 저는 이미 비용을 들여서 만든 것이라면, 관리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튼튼한 토종 식물을 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심지 않아도 되는 식물들을 심는 것이 어떨까요?" (F3)

"이것을 개발하려고 생각 중이라면, 냄새가 다양한 식물들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냄새가 다양한 식물들, 개들이 냄새를 맡는 것이 긴 산책보다 더 나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개들을 진정시키고, 개들이 더 잘 쉬게 해주죠. 그리고 그게 개들의 관절에도 더 좋다고 해요. 많이 걷지 않아도 지쳐서 쓰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볼 가치가 있을 거예요." (F4)

"여기가 사유지인지, 뭔가 공유지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그래, 그냥 냄새만 맡아~ 풀 냄새만 맡아~ 가자' 약간 그런 편인 거죠" (K3)

더불어 이러한 작은 정원들에서 반려견들의 소변 문제가 갈등의 소지가 될 가능성도 보인다.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문제인데, 이런 정원에서 반려견들이 소변을 누는 것이라기보단, 실질적으로는 영역표시(marking)의 의미가 크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수준으로 냄새 등의 문제는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 여겼다. 그런데도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주민들과는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산책하는 개들은, 결국에 이게 오줌보다 마킹의 의미여가지고. 이렇게 막 엄청 냄새난다? 사람이 노상 방뇨하는 게 훨씬 더 싫어." (K8)

"저는 유럽에서 봤는데, 그러니까 강아지 배설물을 버리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다 못 버리게 하는. 길가에 그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 약간 되게 조그맣게 그런 나무 저런 나무가 있으면 나무 주변에만 이렇게 울타리를 짧게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네 여기가 강아지들 배변 공간이다. 약간 이렇게 물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냄새 문제나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모르겠지만." (K10)

자료: 나무신문, 2019, 서울 도심에서 만나는 가을, '2019 서울정원박람회'

[그림 6-4] 사진유도면담에서 제시된 서울정원박람회 안내지도

자료: 연구자가 직접 촬영, 2024

[그림 6-5] 사진유도면담에서 제시된 해방촌의 정원 사진들

4) 남산 생활체육시설

설문조사 참여자들이 개방형 질문에서 언급한 남산에 인접한 생활체육시설(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들의 오프리시 시설로의 리노베이션을 계획하였고, 아래의 사진들을 제시하면서 관련한 의견들을 물어본 결과 이 안은 모든 연구 참여자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남산 권역 내에는 여러 곳의 야외 체육시설이 존재한다. 주로 비어 있는 공간이 많지만, 일부 사용 시간에는 대부분 노인이 사용하고 있다. 해방촌에서 평생을 거주한 참여자의 진술에 의하면, 그마저도 예전에는 사용이 잦았지만 근래에는 사용하는 사람을 보기 어려울 정도로 방치되어 있다고 한다. 더불어 게이트볼장이 배드민턴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용자가 많다는 것과, 반려견의 침입을 이용자들이 매우 불편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보통 이용하는 시간대가 거의 운동하시는 분들은 정해져 있고, 비는 시간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이제 밤이나 아침 일찍 할 텐데. … 여기를 사실 조금 울타리만 해주셔도, 여기를 이제 좀 이용할 수 있게 해주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게 저희 보호자의 욕심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저희 보호자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강아지들이 키우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어느 정도 공공시설에 대해서 할애를 좀 해줄 수 있지 않냐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K2)

"(계획안 설명을 듣고) 너무 좋았어요 … 여기가 만약에 게이트볼장이 바뀐다면, 펜스만 잘 쳐준다면. 저는 진짜 완전 너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배드민턴장은 저 한 중학교 때 이후로 본 적이 없는. 여기 사람 있는 본 걸, 한 10년은 넘었던 것 같아요" (K3)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모임 있으셔서 아침하고, 저녁에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는 이제 운영이 잘 되고 있고.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않다라고 봐요." (K1)

"제발, 제발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약 개들이 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 어질리티 코스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산책로 같은 것도 있으면 좋겠죠. 개들이 그 길을 걸을 수 있게요. 그리고 이렇게 공을 던져줄 수 있는 공간도 있으면 좋겠어요. (크기에 따라 공간이 구분되는 것은 어떤가요?) 그럴 경우 공간이 줄어들어요. 저는 큰 개를 키우니까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해요." (F1)

"이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이곳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한 번 개를 목줄 없이 풀어본 적이 있었는데, 모퉁이 부분이 쉽게 도망칠 수 있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울타리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곳을 개들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많은 노인분들이 이곳에서 운동을 하시는 걸 보았기 때문에 확신은 없어요. 그래도 이곳을 개를 위한 공간으로 만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가까우니까요." (F7)

"이 공간은 충분히 크고, 뛰어놀기 좋은 곳이에요." (F6)

공간을 반려견 크기에 따라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형견 보호자, 중형견 보호자, 소형견 보호자가 모두 조금씩 입장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대형견 보호자들은 소형견 보호자들에 비해 크기에 따른 분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혹시 모르는 피해들에 대해 불편해하는 경향이 짙다. 소형견과 그 보호자들이 예민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대형견 보호자들은 소형견이 더 사납다고 판단하지만, 갈등이 일어날 때 대형견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예방적 차원에서 분리 조치를 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형견의 보호자로서, 이 친구는 사실 소형견. 사실 소형견 중에 조금 더 사나운 친구들이 많은 것 같고 제 경험. 그래서 사실 대형견에 대한 인식이 그냥 인식만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모르겠어요. 저는 소형견, 중형견, 대형견 굳이 나눠야 되나 싶기는 한데. 혹시 만약에 사고가 일어나면 너무 크게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게 좀 우려되기는 해요. 근데 잘 교육된 보호자랑 교감이 잘 되어있는 아이들이 온다면, 소·중·대형견 굳이 안 나눠도 되지 않을까?" (K5)

"강아지들끼리 사건 사고들이 없을 수가 없는데, 특히나 작은 강아지를 키우는 견주들은 큰 강아지들을 되게 무섭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강아지가 한 데 다 어우러져서 사이좋으면 모르겠는데, 뭐 아시겠지만, 애들도 놀이터하고 싸울 수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강아지들은 아무래도 이제 사람보다는 공격성이 있기 때문에, 다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강아지 놀이터)를 안 가게 된 이유도, 거기에서 강아지들끼리 싸움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저도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만들게 되면, 그래도 견종끼리 그러니까 체급끼리는 나누는 게 기본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K6)

"큰 개들을 위한 공간과 작은 개들을 위한 공간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 작은 개들이 큰 개들을 무서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작은 개들이 큰 개들과 싸우려고 하는 경우도 있죠." (F5)

이 공간에 필요한 요소들은 기본적인 예방접종과 행동에 문제가 없는 반려견들만 출입이 가능하게 하는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물리적 시설의 요소로 적절한 바닥재와 영역 확정과 안전을 위한 울타리, 음수시설과 화장실, 보호자를 위한 벤치 등이 있었다. 바닥재의 경우 나무조각과 흙, 자갈이나 우레탄, 인조잔디 모두가 제시되었으나 각자의 선호사항이 달라 일치하기 어려웠기에 가장 무난한 흙바닥이 적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더불어 민첩성 놀이가 가능한 시설(agility)이나 물놀이 시설 등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미국에서는 개의 행동에 문제가 있으면 강아지 공원에 데리고 갈 수 없어요. 반드시 예방접종을 맞고, 중성화 수술을 해야 하고, 행동 문제도 없어야 해요. 아무도 강제하는 사람은 없지만, 주인들이 알아서 잘 조절해요." (F10)

"예방접종이랑 이런 거를 반드시 한 강아지들만 올 수 있게 이런 관리도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K10)

"사실 강아지들한테 제일 좋은 건 잔디인데, 그게 관리가 어려워서 보통 인조 잔디를 깔아두는 곳이 많고, 공용으로 쓰는 무료의 개방형 반려견 운동장 같은 경우는 이런 흙바닥이 많아요. 근데 이런 흙바닥이라도 오프리시 할 수 있는 반려견 운동장이 생긴다면, 솔직히 너무 상관없을 것 같아요." (K3)

"우레탄 같은 바닥도 괜찮고 근데 유지보수가 덜 들어가는 면이 좋지 않을까요? 애들한테는 미끄러지지 않는 게 중요해요. 애들은 미끄러지면서 많이 다쳐서. 오히려 이 잔디도 사실 많이 미끄러지거든요. 미끄러지는 게 사실은 안 좋아요. 그래서 흙이나 아니면 아예 그냥 우레탄 같은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 인조 잔디 별로 안 좋아해요. 인조 잔디에서 많이 다치더라고요." (K7)

"울타리랑, 출입문이랑, 그늘막이랑, 급수대랑 그다음에 그 똥 버릴 수 있는 그런 똥봉투와 휴지통 정도." (K9)

"큰 개들을 위한 장애물 같은 장비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개 쇼에서 나오는 삼각형 모양의 장애물이나 점프할 수 있는 링 같은 것들이요." (F5)

"뭐 어질리티 같은 거 있잖아요. 강아지들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강아지가 뭐 많지는 않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뭐 그런 걸 해놓는다든지 진짜 강아지 놀이터처럼 꾸며놓으시면 … 울타리는

꼭 필요하고 배변 봉투 같은 거 보통 기본적으로 운동장 가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랑 만약에 의자 같은 게 설치가 좀 될 수 있겠다고 하면, 견주들이 좀 앉을 수 있는 의자?" (K6)

"어린이 놀이터처럼 다양한 질감의 바닥이 깔린 곳이에요. 놀이터는 부드럽잖아요. 그리고 물이 있는 곳도 좋아요. 일부 개들은 물속에 들어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또 개들이 쫓아다닐 수 있는 장난감이나 끈 같은 것도 있으면 좋고요. 개들은 그런 걸 아주 좋아해요. 그리고 뛰어넘거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장애물도 있으면 좋겠죠. 모래도 자주 좋아해요. 개들이 모래를 파는 걸 좋아하거든요." (F1)

또 안전과 관리를 위해 CCTV의 설치를 건의하기도 하였다. 사실 반려견 보호자들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공공예절(배변, 시설관리)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율성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관리자가 없다면 CCTV는 필요하다. 왜냐하면, 공공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진짜 놀러 온 사람들이 쓸 수도 있고, 사는 사람들이 쓸 수도 있는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를 정해지는 그런 문제도 되게 어렵기도 하거든요. 심지어 관리자가 있는 운동장에서조차 그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CCTV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K3)

자료: 연구자가 직접 촬영, 2024

[그림 6-6] 사진유도면담에서 제시된 남산의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5) 주민시설과 사설 건물의 활용

해방촌은 매우 빽빽한 건물 밀도를 가진 곳으로, 지역 내에 빈 곳을 찾아 반려견 친화 시설을 설계하기는 쉽지 않다. 공간이 거의 없을뿐더러, 충분한 공간의 넓이를 확보하기도 어렵고 지형적으로 제한점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해방촌 내에서 부족한 반려견 놀이시설이자 주민 매개 시설을 만들기 위해 건물의 옥상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었다. 특히 해방촌 하부지역에 위치한 공영주차장 건물은 남산공원과도 거리가 멀어 반려견 활동에 취약한 해방촌 하부지역 주민들에게 유익할 수 있고, 해방촌에서 가장 넓을 것으로 추정되는 민간 건물을 반려동물 복합 시설로 활용하면 이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위의 사진들을 제시하며 연구 참여자들에게 의견과 제안점을 물어보고 수집하였다.

먼저 주민시설과 민간 건물 옥상의 놀이 공간 활용, 반려동물센터 전환에 대해서도 대부분 찬성하고 있었다. 특히 공영주차장을 활용한 옥상 놀이터의 경우 소형견 보호자들의 선호도가 높았다.

"최고입니다. (엄지척 따봉 손 모양) 저런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죠. 일단 예약 시스템 같은 게 있어야겠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물 마시는 거. 음수대랑 그다음에 배변 버리는…" (K7)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다만 그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 옥상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 공간을 어떻게든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반려견과 함께 갈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곳이 어디든 사람들이 찾아갈 거예요." (F3)

"그들이(개들이) 정말로 많은 운동이 필요하다면 남산이 가까워요. 하지만 강아지들이 서로 만나서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으로는, 동네 안에서 매우 편리한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F2)

"옥상을 반려견 공원으로 활용하는 건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옥상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흙을 심어 유지하는 것이 어렵고,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런 공간이 없는 것보다는, 어떤 공간이라도 있는 것이 더 나을 겁니다." (F9)

하지만 야외 산책을 선호하는 대형견 보호자의 경우, 이 공간들을 활용할 의사가 높지 않았지만 중·소형견이나 집 주변에서 놀이터를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는 매우 만족도가 높은 시설로 인식되었다.

"남산이 있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개를 실내 공간에 그렇게 갖춰진 데 가는 게 효율적이지 않아서, 얘가 좋아하는 공간이 아니니까. 근데 소형견 친구들이나 애견 카페 이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는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들고." (K8)

"근데 좋기는 할 것 같은데, 근데 이미 산책을 만족스럽게 이제 남산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제 뭔가 굳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 (K1)

공간적인 제안으로는 옥상 공간의 경우 다양한 놀이 시설의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다. 더불어 높은 곳인 만큼 안전을 위한 울타리, 반려견의 발 보호를 위한 적절한 바닥재와 휴식 공간, 배변처리 등의 구비가 필요하다고 제시되었다.

"개들은 그곳에서 금방 지루해져요. 냄새를 맡고 나면 할 게 없으니까요. 공을 쫓을 수 있는 공간이나 어질리티 시설이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F1)

"많은 이용자들이 오랫동안 재밌게. 만약에 예약제로 하신다면 저도 갈 것 같거든요. 저희 같은 사람들도 내가 이때 이용을 했고 그럼 내가 뒤처리도 어떻게 해야되고 …" (K6)

"특히 이곳은 높고, 지면이 뜨거울 수 있으니, 반려견이 걸어 다니기에 안전하고 편안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바닥에는 카펫 같은 것을 깔고, 그늘을 제공하여 반려견이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또한, 식물 등을 배치해 놓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개들이 뛰어놀 수 있는 열린 공간이 있으면 정말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이곳은 중앙에 자리 잡고 있어서 접근성도 좋을 것 같고요." (F8)

"옥상 자체도 아마 이제 마감 처리를. 그러니까 거기는 인조잔디나 뭔가 이렇게 해야될 것 같고. 그늘막 같은 게 좀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날씨가 좋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여름이나 이럴 때는 그러면 아예 또 죽은 공간이 있잖아요. 이용하라고 만들어 놨는데. 겨울이나 그러니까 조금 이제 뭔가 햇빛을 가려준다거나, 비를 막아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긴 하고. 그리고 그럼 이제 배변처리를 할 수 있는 거를, 되도록이면 치우고 여기를 좀 관리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K2)

"그다음에 물 마시는 거. 음수대랑 그다음에 배변 버리는 거랑 그다음에 애들이 오줌 싸는 거는 좀 한쪽으로 모는 게 아무래도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바닥에서 그냥 쌀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결국엔 빗물이 내려가겠지만 오줌 싸는 곳은 따로 이렇게 그러니까 구역마다 있어야 하고 음수대는 지정 장소에서만 먹게끔 하고. 결국에는 깨끗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 것만 좀 유지만 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들어와서 잠깐 쉴 수 있는 공간? 밖에서 뛰어놀더라도 여름이나 겨울이나 잠깐 들어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인데 밖에 보일 수 있는 거. 그런 약간 쉬는 공간들이 필요하겠죠." (K7)

민간 건물의 반려견 지원센터로의 개조안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은 고국을 방문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로 부족한 호텔시설의 보완을 요청하였다.

"이 지역에는 애견호텔이 많지 않아요. 제가 아는 유일한 곳은 우체국 옆에 있는 동물병원이에요. 그곳에서는 애견호텔 서비스를 제공해요. 원래 애견 운동장이 있었는데, 지금도 운영 중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도 문을 닫았을 거예요." (F5)

"펫 호텔은 매우 유용할 것 같아요. 이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족을 만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강아지를 맡길 사람이 없어서 곤란한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 근처에 'OOOOO'라는 곳이 하나 있는데, 소형견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 공간은 이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에게 매우 유용할 것이고, 훈련에도 좋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곳에서 커피를 마시며 강아지를 훈련할 수 있을 겁니다." (F4)

"반려동물 교육 센터를 만드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일 것 같아요. 저렴한 반려동물 호텔처럼 운영되면 좋겠어요. 주인이 여행 가고 싶을 때 저렴한 비용으로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니까요. 현재의 반려동물 호텔들은 너무 비싸요." (F6)

더불어 이곳에서 다양한 기능이 복합적으로 포함되는 반려견 중심지로서 일종의 구청과 같은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제안도 있었다. 더불어 실내 운동장이나 목욕시설, 수영장 등으로의 활용도 제안되었다.

"해방촌의 모든 반려견 관련 활동의 중심지로 만들면,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종의 용산구청처럼 말이죠. 이곳에서는 배너, 광고, 소식지 등을 모두 볼 수 있고, 반려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견 학교나

호텔 같은 시설을 렌트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은 반려견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카페, 레스토랑, 바, 그리고 반려견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장소가 포함될 수 있죠. 그 중심에는 반려견 서비스 센터를 두는 겁니다. 또한, 이 공간에서 반려견 병원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건물을 임대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월 이용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F7)

"중간층에는 실내 운동장이어도 좋을 것 같아요. 실내 운동장 너무 덥거나, 비가 너무 내릴 때. 실내 운동장도 은근 많이 쓰는데 ··· 만약에 된다면 일부분에 강아지 목욕할 수 있게, 보통 목욕도 애들 kg마다 받거든요. 그래서 셀프 목욕. 셀프 목욕도. 그리고 그런 거죠. 이렇게 어디 조리실 깊은 싱크대 같은 그런 거랑 애들, 샤워 샤워기? 그다음에 뭐 샴푸는 일회용 포장해서 이거 얼마씩 사서 쓰게 하고, 에어탱크 애들 털 말리는 털 말리는. 그거나 혹은 이제 이렇게 에어드라이기가 있어요.··· 셀프 목욕하고 드라이하세요. 그것만 해도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이 동네에는 그런 게 잘 없어요. 솔직히 집에 없으니까, 다들 집에서 시키는 걸 텐데. 생각보다 보호자들이 밖에서 시키고 싶어 하거든요. 털이 어마무시하게 빠지고 난리니까. 밖에서 시킬 수 있으면 밖에서 시키자 주의일 거예요. 대체적으로 제 주변 친구들을 그래서 운동장이 있다면 그 옆에 목욕 시설이 있으면 나이스지 않을까 ··· 저는 사실 호텔링을 잘 안 하긴 하긴 하는데 여기 동물병원 바로 근처에 호텔링 하는 곳이 한 곳 있긴 하더라고요. 그 위에도 목욕시설이 생긴 걸 보긴 했는데 아직 거기는 이용을 안 해봤는데. 뭔가 호텔링 하는 것도, 여기 위에 공간이 실내 운동장이나 셀프 목욕시설, 플러스 공간이 넓고 좋으니까 호텔링하는 것도 생기면 좋을 것 같겠다 싶고. 이 공간 활용하면 갑자기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K3)

"약간 수영장. 강아지 수영장. 여기 용산에 가서 수영시킬 데가 없어가지고 진짜" (K10)

한편, 자영업자의 경우 이러한 시설이 본인의 영업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더불어 이미 존재하는 남산공원이나 민간에서 영업하는 업소들만으로도 충분히 필요한 부분을 채울 수 있기에 이러한 공간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기도 하였다. 더불어 비용적 측면에서 이 거대한 민간 건물을 매입하거나 임대하는 것이 세금 낭비라는 지적도 있었다.

"그렇게 따지면, 'OOO'(반려견 카페)나 가고. 딴 데를 가지. 차라리 그거보다 뭔가 반려견 동반이 되는 식당이나 카페를 좀 더 뭔가 이렇게, 계속 그 카페가 계속 영위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걸 만들어주는 게, 더 저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또 경기도 안 좋고. 개인적으로 자영업 하는 입장에서 어떠한 특정 공간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현존해 있는 카페나 식당들도 솔직히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잘 되면 잘 되겠지만 뭐 어려운 개인 소규모의 이런 가게들을 조금 좀 더 이렇게 뭔가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K9)

"이거는 현실적이지 않을 현실적이지 않은. 임대 비용만 몇천만 원인데 이게 ···" (K7)

자료: 연구자가 직접 촬영, 2024

[그림 6-7] 사진유도면담에서 제시된 해방촌 민간 건물 및 공영주차장 건물

07. 공간설계 및 프로그램 제안

1_물리적 공간설계

반려견을 통해 이웃들이 자주 마주치고, 반려견들이 자주 서로의 냄새를 맡고,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인사를 나누고 친해지는 것이 이웃 간 교류 촉진의 첫 번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해방촌의 물리적 공간, 특히 가파른 경사의 거주지 도로 등을 새롭게 공사하는 것은 어렵고, 현실성도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인도와 차도의 분리가 불가능하고, 가파른 지리적 환경으로 인해 산책 선호도가 낮아 산책로를 형성해도 유명무실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더군다나, 경험 연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반려견과 보호자들의 산책 경로는 늘 같지만 않으며, 반려견의 자유로운 이동이 더 중요시된다는 지점에서 특정한 경로를 반려견 산책로로 설정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 *"00(반려견)랑 산책할 때는 그냥 그가 가고 싶은 데로 가게 둬요. 우리가 그 길을 고수할 것 같지는 않아요. 00는 자기만의 지도를 가지고 있어요." (F1)*

> *"개들도 같은 경로를 다니다가 지루해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장소를 찾아가고 싶어져요. 아마도 제 상황이 대부분의 사람들과 조금 다를 것 같긴 하지만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개가 원하는 대로 같은 경로를 다닐지도 몰라요." (F4)*

따라서 이 연구의 물리적 공간설계는, 부족한 놀이 공간을 해소하고 그곳에서 자연스러운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지점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자연스럽게 같이 놀고, 부모들도 자연스럽게 말을 섞어가며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것과 같다.

"반려견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교류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능한 한 녹지 공간을 제공하고, 반려견들이 탐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F8)

"저희는 운 좋게도 반려견이 어릴 때부터 다른 개들과 어울리며 자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긴 해요. 그래서 반려견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사람들이 퇴근 후에 그곳에 가서 반려견을 자유롭게 놀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F7)

"유일하게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건 개를 데리고 있는 사람들끼리죠. 개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개들이 서로 냄새를 맡고 놀 때 상호작용이 생기죠. 그래서 그런 상호작용을 촉진하려면, 일종의 야외 체육관 같은 게 필요할 거예요. 개들을 위한 장소가 말이죠. 꼭 '어질리티 코스'일 필요는 없지만, 개들이 점프하거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그런 공간이 있다면 사람들끼리 더 쉽게 대화할 수 있을 거예요. 인간과 개가 함께 할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F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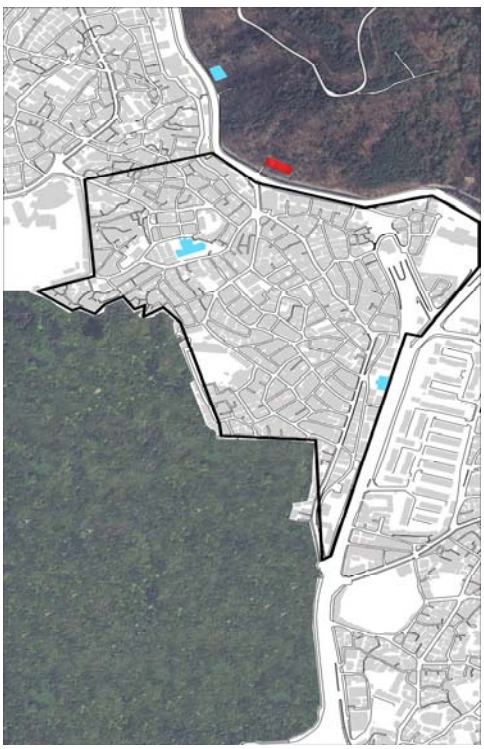
따라서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두 곳의 건물을 설계에 활용하고자 한다. 첫째는 녹사평 방향의 공영주차장을 중·소형견을 위해 옥상 놀이터로 개조하는 것이다. 둘째는 오거리 인근의 민간 건물을 공공 반려동물 지원센터로 개조하는 것을 가정한 훈련 및 교육시설, 호텔, 실내 놀이장 등과 더불어 거대한 옥상을 예약제 놀이터로 구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 가장 많은 산책 경로로 선택되는 남산 구역에서 해방촌과 인접한 곳에 위치한, 방치된 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장을 대형견 놀이터, 중·소형견 분리 놀이터로 계획해 자유롭게 목줄 없이 뛰어다닐 수 있는 환경을 제시할 것이다.

그 외에, 해방촌 내 지역에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작은 정원들이나 비교적 한적한 공간을 중심으로 반려견 전용 휴지통(용변 처리), 음수대, 휴식 및 용변 공간을 부가적으로 고려하였다.

(1) 남산 중·소형견 놀이터

사진유도면담 결과, 해방촌과 인접한 남산의 배드민턴장들과 게이트볼장의 반려견 놀이 공간 전환은 모두가 환영하였고, 대·중·소 크기에 따른 분리, 적절한 바닥재, 시설

등을 요구하였다. 이곳의 위치는 해방촌에서 남산으로 올라가는 방향, 용산2가동 주민센터 공영주차장 바로 건너편이며 아래 지도에서 적색으로 표시된 부분이다. 이곳의 배드민턴장과 게이트볼장의 면적은 대략 566.55m²로, 구체적인 길이는 세로 14m, 가로 35m 정도로 측정된다.



자료: 연구자 설계안, 2024

[그림 7-1] 남산 중·소형견 놀이터의 위치

본래 용도는 같은 장소 내에 한 구역은 배드민턴장, 한 구역은 게이트볼장이다. 이러한 남산 권역 내 여러 야외 체육시설은 주로 비어 있고, 일부 시간대에만 사용되며, 그 사용자는 대부분 노년층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예전에는 이러한 시설들이 더 자주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방치되어 사람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진술이 많다. 둘 중 게이트볼장이 배드민턴장보다 상대적으로 이용자가 많으며, 게이트볼 이용자들이 반려견의 침입을 불편하게 여기는 점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사실 산속에 있는 생활체육시설 공간은 계절적으로 활용도가 낮다. 특히 기상의 영향을 받는 배드민턴이나 소프트볼은 본래 실내운동에 더 적합하며, 노년층의 활용이 높다는 점을 고려했

을 때 해방촌 내부에 적절한 공간을 실내 체육시설로 제공하고, 대신 이 공간을 반려동물 친화적인 놀이터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자료: 연구자 설계안,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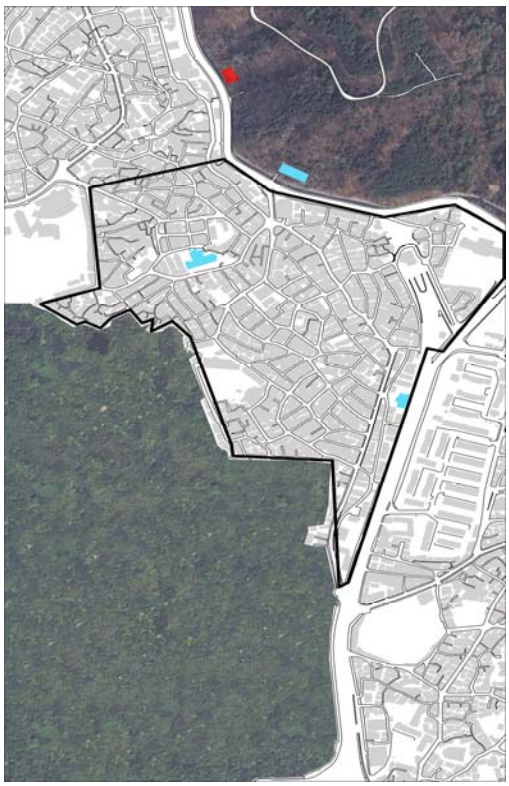
[그림 7-2] 남산 중·소형견 놀이터 설계안

앞서 면담에서 반려견 크기에 따라 공간을 구분하는 것에 대한 보호자들의 다양한 입장이 드러났다. 대형견 보호자들은 소형견 보호자들에 비해 크기에 따른 공간 분리가 필수적이라고 보지 않지만, 소형견 보호자들이 대형견에 대해 불편함을 느낀다는 점에

서 분리에 동의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대형견 보호자들은 소형견이 더 사나운 경향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갈등 상황에서 대형견이 불리하게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현했다. 이러한 이유로 대형견 보호자들은 예방 차원에서 분리된 공간을 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이 공간은 중·소형견을 위한 놀이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그 경계선은 현재 두 운동 종목 시설의 경계와 달리 균형적으로 절반씩 나눠 계획하였다.
가장 우선하여 연구 참여자들은 반려견 출입이 가능한 오프리시 시설의 필수 요소로 예방접종과 행동 문제가 없는 반려견만 출입할 수 있는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공공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예방하려는 조치로, 많은 참여자가 이에 동의했다. 또한, 반려견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데 있어 적절한 물리적 시설이 중요하다고 언급되었다. 제안된 물리적 요소로는 안전 울타리, 바닥재, 음수 시설, 화장실, 그리고 보호자를 위한 벤치 등이 있었다.
바닥재에 대한 의견은 다양한 선호가 있었지만, 일치된 의견을 도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일부 참여자들은 흙바닥을 가장 적절한 대안으로 제시하였으며, 나무조각, 자갈, 우레탄, 혹은 인조 잔디와 같은 대안들도 논의되었다. 그러나 관리의 용이성과 반려견의 안전을 고려할 때, 흙바닥이 가장 무난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한편, 참여자들은 반려견 운동장의 안전 관리를 위해 CCTV 설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려견 보호자들이 공공장소에서 요구되는 기본 예의와 예절을 항상 지키지 않기 때문에, 자율적인 관리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CCTV는 사고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시설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2) 남산 대형견 놀이터

연구 참여자들에 의하면 원칙적으론 반려견들의 공간에서 소·중·대형견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지만, 사고 발생 시 대형견이 더 큰 피해를 당하거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분리의 필요성을 부분적으로 인정하였다. 또한, 보호자와 반려견 간의 교감이 잘 이루어졌을 때 크기에 상관없이 함께 어울릴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결국,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반려견이 함께 놀 수도 있지만, 반려견들 간의 갈등, 나아가 보호자들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체급에 따른 공간 구분이 필요하다. 특히 앞선 면담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 대형견 보호자들은 일종의 피해의식이 있다. 반려견 크기 구분에 대해 상대적으로 중립적이지만, 사고 예방을 위해 분리 조치의 필요성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료: 연구자 설계안, 2024

[그림 7-3] 남산 대형견 놀이터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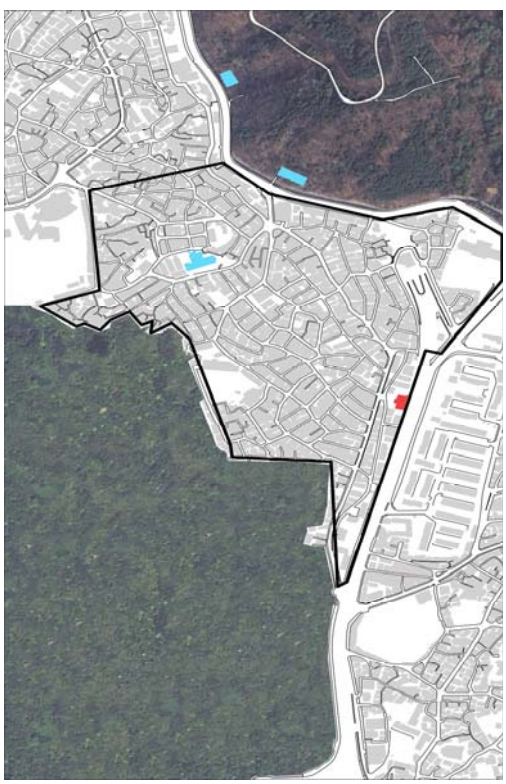
따라서 대형견들을 위해 가장 넓은 배드민턴장 시설을 대형견 놀이터로 설계하였다. 이 공간은 앞의 배드민턴 및 게이트볼장에서 후암동 방향으로 2분 정도 거리에 있어 해방촌에 매우 인접하고 한적하며, 현재도 공공화장실 등 적절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개조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곳의 위치는 해방촌에서 남산으로 올라가는 방향, 용산2가동 주민센터 공영주차장 바로 건너편에서 후암동 방향으로 위의 지도에서 적색으로 표시된 부분이다. 이곳의 면적은 대략 88.36m², 세로 7m, 가로 18m 정도로 측정된다.

자료: 연구자 설계안, 2024

[그림 7-4] 남산 대형견 놀이터 설계안

구체적인 설계안은 전반적으로 앞의 중·소형견 놀이터 설계안과 같은 맥락을 가진다. 크기와 상관없이 연구 참여자들은 반려견들이 활동하는 공간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사항으로 울타리 설치, 출입문 관리, 급수대, 배변봉투와 휴지통, 그늘막 등을 제시하였다. 이는 반려견과 보호자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필수 요소라는 점에서 크기와 상관없이 설계에 필수적으로 고려하고자 한다. 대형견 보호자들은 어질리티 코스와 같은 대형견을 위한 장애물을 설치하여 반려견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 대형견은 물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물놀이 시설 등의 추가적인 시설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이러한 시설이 반려견의 신체 활동을 증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 외의 면담 사례들을 종합했을 때, 중점적으로 설계에서 특히 행동 관리 및 물리적 안전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3) 공영주차장 옥상 놀이터



자료: 연구자 설계안, 2024

[그림 7-5] 공영주차장 옥상 놀이터의 위치

자료: 연구자 설계안, 2024

[그림 7-6] 공영주차장 옥상 놀이터 설계안

해방촌은 공간적으로 매우 제한된 지역으로, 반려견 친화시설을 설계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건물 밀도가 높고 지형적 한계가 많아 충분한 공간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약을 넘어 해방촌 내에서 반려견 놀이시설과 주민들이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사진유도면담에서 건물 옥상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해방촌에 위치한 공영주차장 건물의 옥상을 반려견 놀이터로 전환하는 안이 제시되었으며, 이는 소형견 보호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곳의 위치는 녹사평역에서 해방촌으로 들어가는 입구 부분, 해방촌과 녹사평을 이어주는 육교로 연결되는 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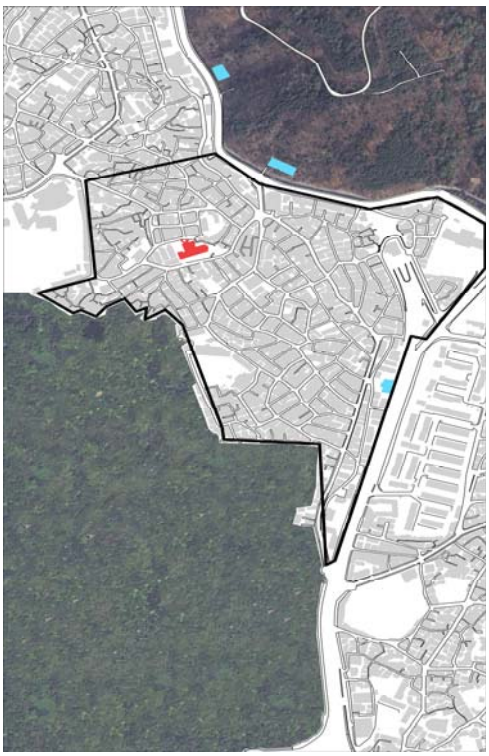
굴다리 근방으로, 위의 지도에서 적색으로 표시된 부분이다. 가로 8m, 세로 27m, 총면적은 약 152.9m² 정도이다. 이곳은 〈A구역〉에 속하지만 바로 근처에 상대적으로 소외된 〈C구역〉과 〈E구역〉이 맞닿아있다. 선호도가 높은 남산권역 〈D구역〉이 대부분 높은 경사지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방 세 구역의 중·소형견 보호자들에게 접근이 편리한 교류장소로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 참여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옥상 놀이터는 소형견 및 중형견 보호자들에게 적합한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중형견과 소형견 보호자들은 집 주변에서 반려견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옥상 시설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으로는 예약 시스템과 음수대, 배변 처리 시설, 보호자들을 위한 휴식시설과 그늘막 등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중요한 설계 요소로는 안전을 위한 울타리, 적절한 바닥재, 휴식 공간 및 배변 처리 시설이 제안되었다. 또한, CCTV 설치를 통해 공공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참여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해방촌 내 옥상을 활용한 반려견 놀이터는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주민들이 교류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중·소형견 보호자들에게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 반려동물 지원센터

해방촌에서 가장 넓은 민간 건물을 반려동물 복합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대부분 반려동물 지원센터 전환에 찬성하는 견해지만 대형견 보호자들은 남산과 같은 넓은 야외 산책 공간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한 점에서 전술한 공영주차장 옥상 놀이터는 대형견들이 활용하기에는 그 면적이 충분하지 않고, 대형견 보호자들의 선호도 역시 낮다는 점에서 이 민간 건물 옥상이 대체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곳의 위치는 해방촌 오거리에서 후암동종점 방향 언덕 아래로 내려가는 부분, 신흥시장 건너편에서 아랫방향으로 데크를 따라 걷다 보면 나오는 건물로 아래의 지도에서 적색으로 표시된 부분이다. 이 건물의 옥상면적을 기준으로 건물의 면적은 약 1,037.07m²로 측정된다. 설계안에서 제시되는 옥상 놀이터의 경우 대략 세로 15m, 가로 65m로 측정된다. 이곳은 산책경로 설문조사 상 〈B구역〉과 〈C구역〉의 경계이며 해방촌을 통과하는 마을버스가 정차하는 경로상에 있어 주민 모두에게 접근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연구자 설계안, 2024

[그림 7-7] 반려동물 지원센터의 위치

사진유도면담에서 이 시설에 제시된 의견들을 살펴보면, 참여자들은 이 건물 옥상 공간이 충분히 크고 접근성이 좋으므로, 그늘막, 식물 배치, 쉴 수 있는 공간 등의 구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더불어 반려견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어질리티 시설이나 공을 쫓을 수 있는 공간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곳 옥상 공간은 특히, 개별적인 공간으로 분리되어 예약하여 사용하는 형태로 계획하였다. 전술한 면담 내용에서도 반려견들의 성격에 따라, 모든 반려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용 놀이터 등에 가지 않는 경우도 많다. 사회성이 떨어지는 개들은 다른 개들과 함께 지내기 어렵고, 공격성으로 인해 반려견 및 보호자 갈등의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별적인 공간이 필요한 반려견들을 위해 독립적 공간들을 제시하고, 예약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상대적으로 무작위적인 교류 촉진은 어렵지만, 이러한 옥상 오프리시 공간 역시 주민 간 교류 공간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면담 사례들을 살펴보면, 아무리 사회성이 떨어지는 개들도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조금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비슷한 성격의 반려견과 보호자들이

서로 깊은 교류를 나누는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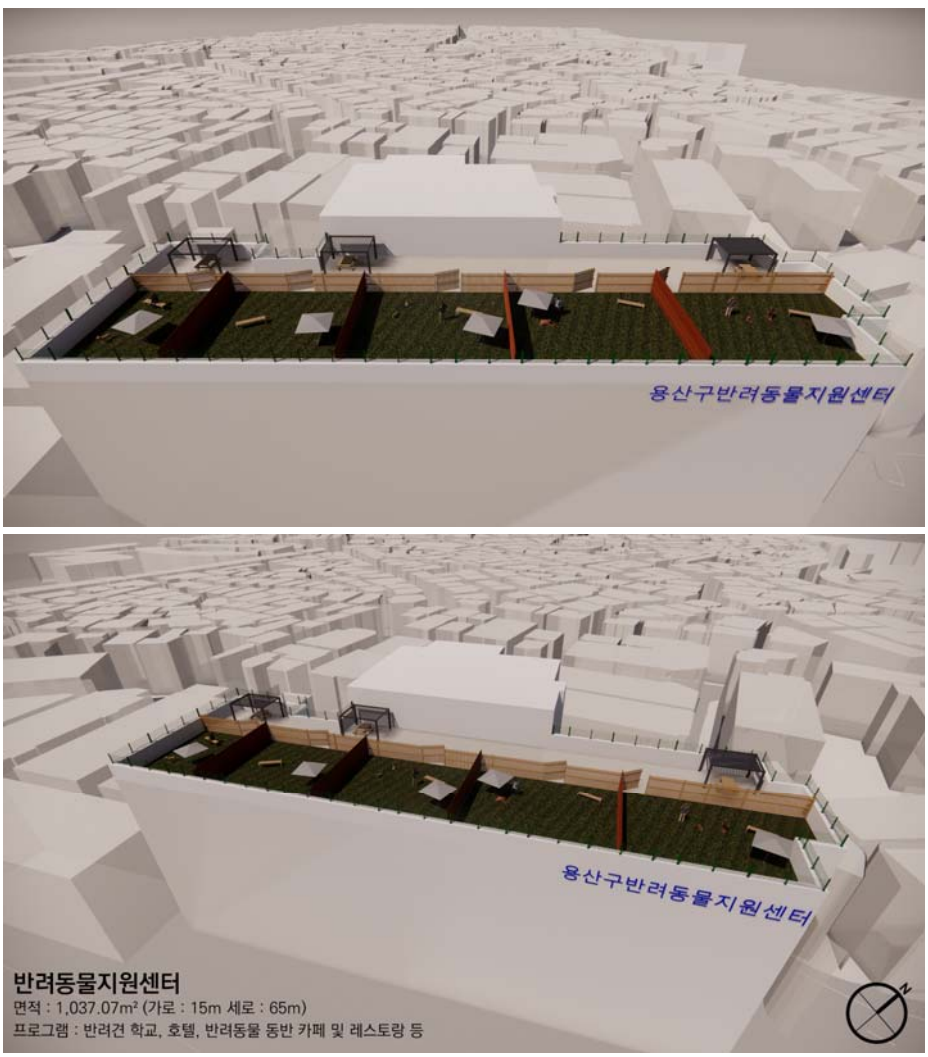
"저는 사실 여러 명이 오프리시를 하는 공간에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 저 친구가 그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보통 단독으로 빌려요. 아마 애들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문제이긴 하겠지만. 사회성이 좋은 친구들은 그냥 가겠죠." (K2)

"저희 강아지는 가기 힘들거든요. 사회성이 부족해서. 근데 이제 사회성이 좋은 친구들한테는 되게 좋은 장소가 될 것 같긴 한데 ··· 만약에 그렇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근데 제 생각에 오히려 그게 더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여기에서 한 번씩 싸움이 나기 시작하면, 또 이제 소문이 나면 또 어느 순간 이걸 이용 안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겨요. 왜냐하면 저기(놀이터)도 제가 봤을 때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이용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강아지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거나,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견주들끼리도 멀어지고, 또 어떤 분들은 소문을 내고 막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커뮤니티에. 근데 만약에 요기를 예약제로 이용할 수 있으면, 이제 어떤 친한 그룹들끼리 가서 놀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굳이 요기를 견종을 나눌, 그니까 소·중·대로 나눌 필요 없이 그냥 예약하면은 누구든 이용할 수 있게 하시면. 저는 오히려 그게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예약하려면 어떤 애플리케이션이나 어떤 홈페이지 시스템이 분명히 필요하니까, 그게 만약에 여기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렇게 이용을 해도 되게 좋을 것 같긴 해요." (K6)

"일단 예약 시스템 같은 게 있어야겠죠. ··· 그래서 이제 조금 벽을 두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넓은 공간에 팀 단위로 했을 때, 4팀이나 다섯 팀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5팀의 작은 공간을. 5팀 부스죠. 5개의 부스를 작은 부스를 마련을 해줘야지, 그 안에 우리 짐들도 놓고. 왜냐하면, 견주들 보면 짐이 되게 많아요. ··· (공용물건) 있으면 더러워지고 관리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다 갖고 오셔야 돼요." (K7)

그밖에 이 건물의 반려동물 지원센터로서의 개조안에 관해 연구 참여자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를 종합하면, 특히 반려견 호텔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인 참여자들은 고국 방문 등의 이유로 반려견을 맡길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려견 호텔의 확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주민이 많은 해방촌에서 반려견은 가족을 만나기 위한 장기적인 돌봄 공백의 위험이 있다. 현재 반려동물 호텔들이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많고 불편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공공 반려견 호텔은 적절한 비용으로 공공적 시설로 제공한다면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

된다. 이와 함께, 연구 참여자들은 반려동물 교육 센터나 훈련장과 같은 복합적 기능을 갖춘 시설을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반려견들을 통한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려견과 그 보호자들에게 적절한 책임감과 실천이 부여될 필요가 있으며, 그 방법이 공공적 교육과 훈련이 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교육과 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통한 교류 역시 반려견 보호자들 간의 무작위적인 교류 촉진과 주민공동체 형성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여러 면담 사례를 통해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자료: 연구자 설계안,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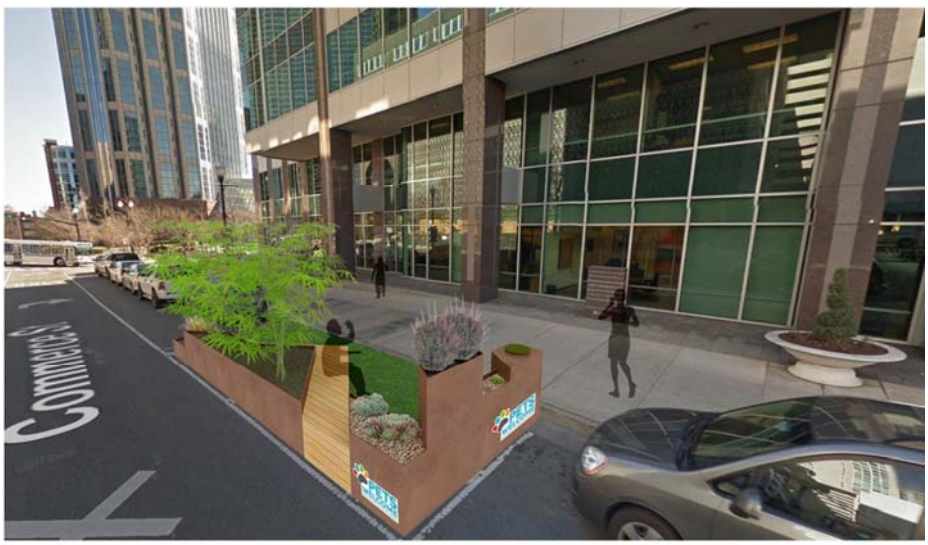
[그림 7-8] 반려동물 지원센터 설계안

더불어, 해방촌의 반려견 지원센터가 해방촌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모든 반려견 활동의 중심지로 활용되도록 다양한 기능을 가진 시설들의 설치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시설이 반려견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예: 반려견 학교, 호텔, 반려동물 동반 카페 및 레스토랑, 반려동물 동반 피트니스 센터 등)를 제공하고, 정보와 소식을 교류할 수 있는 반려견들의 구청이나 동사무소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해방촌이 위치한 용산구가 서울에서 인구 대비 반려동물이 가장 많은 자치구이지만, 반려동물 공공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용산구 반려동물 지원센터는 필요성이 높다. 더불어 이 지역이 가지는 여러 가지 상징성과 교통상 이점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을 위해 면담에서 이 건물 내에서의 실내 운동장, 목욕 시설, 수영장 등의 기능이 포함된 복합적인 반려견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역시 제시되었다. 이러한 기능들이 포함된 해방촌의 반려견 지원센터는 반려동물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구축하고 주민 간 교류의 확대를 통한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 *"공간이 마련되면 이곳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도 자동적으로 그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간은 반려동물 주인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F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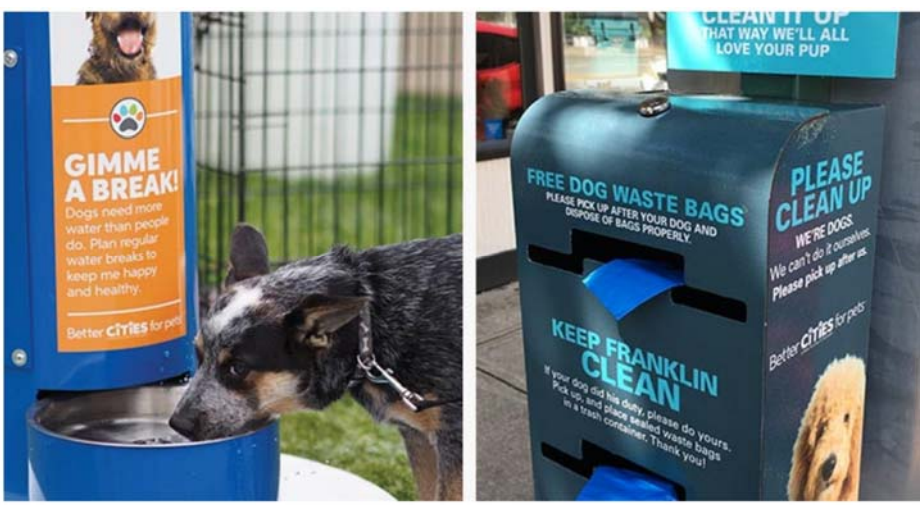
(5) 반려견 친화시설을 위한 작은 아이디어들

앞서 사진유도면담을 통해 이 연구에서 초기에 기대했던 작은 정원 활용계획은 연구 참여자들의 긍정적이지 않은 평가로 인해 활용설계를 진행하지 않았다. 다만 일부 정원들은 참여자들에 의해 그 자체로 기능할 수 있는 약간의 개선 작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서 관련한 해외 사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아래 그림과 같이 접근성이 좋아지는 개방적인 공간, 더불어 반려견과 보호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적절한 편의시설과 적당한 식물이 식재된 환경이 도심지에 있다는 것은 유용성을 가질 수 있다.
아래의 그림들은 반려견 친화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음수대와 배변봉투, 그리고 반려견 격리 공간(도그파킹)시설의 해외 사례이다. 면담에서 참여자들은 음수대와 배변봉투, 산책 중의 휴식이나 가게나 공공시설에 출입하기 위한 반려견 도그파킹 시설 등을 요구하였다. 특히 음수대의 경우에 현재 사람이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음수대 시설의 디자인으로는 반려견들이 활용하기 어렵고, 배변봉투를 정갈하게 배치하고 배포하는 것 역시 도시 미관상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배변봉투와 함께 배변처리를 위한 수거시설을 요청이 많아 수거통의 사례까지 포함해 제시해 보고자 한다.



자료: Better Cities for Pets, 2024

[그림 7-9] 미국 네쉬빌 시내의 Commerce street pilot parklet 렌더링



자료: Better Cities for Pets, 2024

[그림 7-10] 반려동물을 위한 툴킷(좌: 음수대, 우: 배변봉투함)과 안내판

자료: Direct Compost Solutions, 2024

[그림 7-11] 미국 뉴욕의 반려견 분변 수거통

자료: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 2024

[그림 7-12] 목줄거치대와 그늘막을 제공하는 뉴질랜드의 베이베어 쇼핑센터

2_프로그램 계획

물리적 공간설계 외에도, 반려동물과 함께 건강한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도 중요하다. 프로그램을 통한 올바른 반려견 문화의 형성은 반려견과 보호자의 관계를 증진할 뿐 아니라 반려견의 사회성을 개선하는 기능을 가진다. 이렇게 사회성이 향상된 반려견들은, 같은 개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에서의 문제가 줄어든다. 또 올바른 반려견 지식과 예절을 가지는 보호자들은 지역사회의 반려견으로 인한 부정적인 사건들을 감소시킬 것이며, 배려에 기반한 상호 긍정적 주민 공동체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연구 참여자들의 사례들을 확인해 보면, 지자체 등이 제공하는 반려동물 동반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효과적인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하다. 즉, 공공에 의해 제공되는 프로그램들을 통해 주민들이 자주 만나면서 공동체 의식 및 지역에 대한 책임감이 성장하였음을 설명한다. 따라서 반려견 순찰대, 반려동물센터에 의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수시로 제공해 자주 마주치면서 올바른 반려견 문화와 태도 등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 교육이나 순찰대, 함께 그림그리기 등의 활동 외에도 외국처럼 강아지의 밤(doggy night), 강아지 운동회 등 일회성 행사를 자주 진행하는 것 역시 지역사회 행사로서의 의미와 교류 촉진의 역할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교육 프로그램

해방촌에서 반려동물을 통해 주민 간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반려동물 교육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요구와 실질적인 지원을 기반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앞서 연구 참여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반려견 교육의 중요성은 단순한 훈련을 넘어 사회화, 보호자 간 교류, 반려견 행동 문제해결 등을 포괄하는 프로그램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즉, 이들 프로그램을 통해 갈등을 줄이고, 주민들과 반려견 간 자연스러운 만남을 꾸준히 유도하여 주민공동체가 형성되고 반려견으로 인한 여러 가지 지역사회 갈등을 축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고려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에 의해서 운영되는 반려동물 교육 프로그램은 반려견 보호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주민센터나 동물사랑센터와 같은 지역 시설을 통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반려견 보호자들은 서로 교류할 기회를 얻고, 지역 내 반려견 커뮤니티가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러

한 활동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보호자들이 공통된 관심사를 바탕으로 유대감을 형성하고, 반려견 관련 문제해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둘째, 행동 문제와 사회화에 초점을 맞춘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보호자들은 반려견 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행동 문제가 있는 반려견에 대한 훈련과 사회화 프로그램이 유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교육프로그램이나 전문가 훈련이 고비용으로 접근성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지역민을 위한 단기 강좌나 세미나 형식으로 제공도 가능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보호자들이 비용 부담 없이 쉽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반려견의 문제 행동을 예방하거나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자료: 서초동물사랑센터, 2024

[그림 7-13] 서초동물사랑센터 교육 프로그램들

셋째, 공공 반려견 교육의 제공에 있어 지역에 기반한 동물병원과의 연계 프로그램이 효과적일 수 있다. 한 연구 참여자는 반려견 관련 정보나 교육이 필요할 때 신뢰할 수 있는 출처로 동물병원을 언급했다. 이렇게 지역 내에서 많은 보호자들엑 신뢰받고

친숙한 동물병원과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은 보호자들에게 높은 신뢰성을 가지며, 라포를 통해 교육에도 더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 등록, 예방접종, 광견병 예방 등의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면서, 보호자들이 더욱 쉽게 교육에 참여하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지역사회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가능한 방안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넷째, 반려견과 보호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반려견 동반 체육관에서 피트니스 프로그램이나 반려견 이름표 제작 활동 등과 같은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보호자 간 교류를 촉진하고,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에게 필요한 예절을 자연스럽게 익히는 것이 가능하다. 또 반려견과의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반려견 보호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반려견 보호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반려동물 친화 공간에서 운영될 교육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와의 협력, 비용 접근성, 전문가와의 연계, 그리고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종합적인 반려견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보호자들이 해방촌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삶을 더 안정적이고 풍요롭게 하며, 지역사회 반려동물 문화도 발전될 것이다.

"구 차원에서, 구나 아니면 주민센터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서초구 되게 많거든요. 동물사랑센터? 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많이 운영을 많이 하더라고요. 뭔가 피트니스나, 강아지 이름표 공식 활동 하는데, 그런 작은 활동들에서 만나는 보호자들끼리의 그런 교류가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강아지 그리는 거에서도 느꼈고. 용산구도 약간 그런 좀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강아지 데리고 할 수 있는 활동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거의 없고 사실 제가 참여해 본 것도 강아지 맵이 거의 유일한 활동이었는데 이런 게 좀 있으면 어떨까." (K10)

"많은 강아지 주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강아지 훈련을 완벽하게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만약 강아지 훈련 교실 같은 게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F2)

"행동 문제를 가진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이 좋을 것 같아요. 강아지를 위한 훈련뿐만 아니라 사회화도 가능하니까요. 그런 프로그램은 유용할 거예요." (F5)

"반려견의 행동에 대한 교육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전문가 훈련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세미나나 단기 강좌 같은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F8)

"저도 강아지를 지금까지 키우고 있지만, 처음에 기를 때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그러니까 막 그런 개통령 막 이런 유튜브 보고. 근데 유튜브에도 되게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혼재되어 있잖아요. 어떤 그런 예를 들면 강아지 등록하는 거 칩도, 제가 가는 동물병원 이런 데다 정부에서 만 원에 해주는 그 지원 제도 같은 그것도 있고, 광견병 주사도 무료로 놔주고. 막 적극적으로 나라에서 하니까 저도 가서 하고, 막 저한테 저희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도 막 동물등록 어떻게 하셨어요? 하면 제가 '거기 가면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으니까 하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그런 사소하지만 그런 것들도. 그 동물병원이랑 뭔가 연계해서 하는 것도 되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동물병원이야말로 이제 그 동네 사는 분들이 가장 자주 신뢰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훈련이 됐든. 어떤 아주 중요한 어떤 이런 인포를 줘야 되는 게 있든. 병원이랑 연계해서 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데에서 어떤 그런 정보를 접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좀 신뢰성이 높아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연계하는 프로그램도 좋을 것 같아요." (K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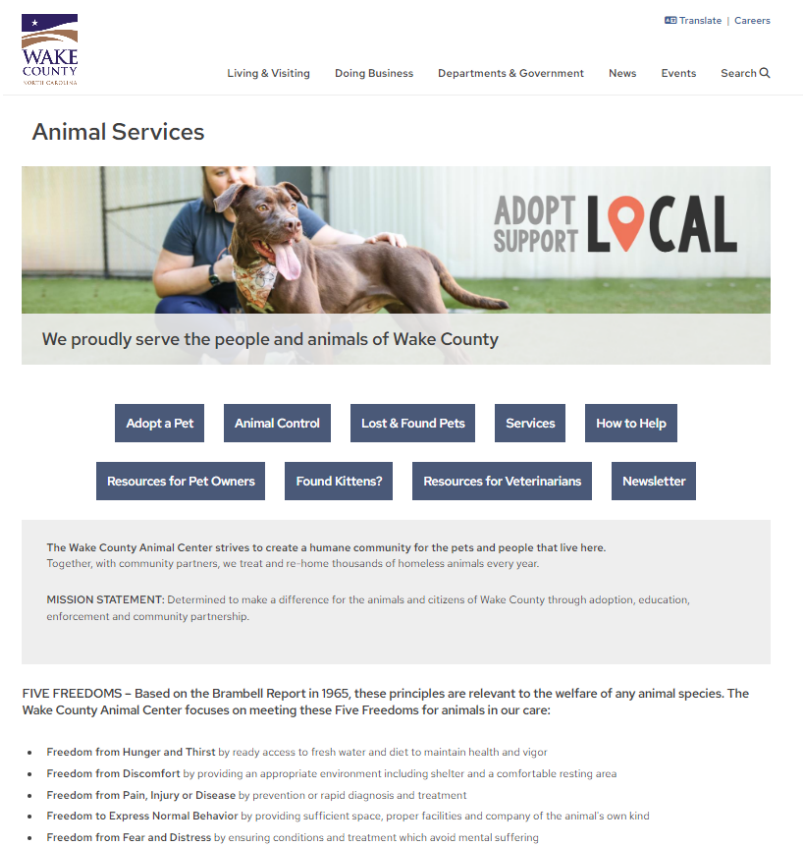
(2) 반려동물 커뮤니티 앱과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 제공

주민 매개적 공간계획과 설계에 있어 반려동물 친화적 환경 구성은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디지털 인프라와 지역사회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반려동물 교육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몇 가지 핵심 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 외국인 연구 참여자 중에는 온라인 사이트를 정보처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관리가 되지 않아 오래된 정보 혹은 잘못된 정보를 취득해 곤란을 겪는 경우도 보고되었다. 반려동물에 친화적인 공간과 시설, 그리고 반려동물 관련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앱이나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것은 보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 친화 매장, 공원, 레스토랑 등에 대한 정보를 지도 형식으로 제공하고, 이를 통해 보호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은 반려동물 주인들뿐만 아니라, 비 반려동물 보호자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 형성의 장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과 비 반려동물 보호자 간의 상호작용이 촉진되고, 지역사회 내의 반려동물 친화적 환경이 익숙해지면서 강화되는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

둘째, 반려동물 보호자 간의 소통과 교류를 증진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할 필

요성이 있다. 보호자들이 서로의 반려견 놀이 일정을 맞추고, 지역 내 반려동물 친화 공간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플랫폼은 보호자들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반려견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기능을 가진다. 따라서 보다 참여적이고 협력적인 지역 사회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이를 통해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교환하며, 반려동물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의 전수가 이루어지는 공동체 장이 마련된다. 나아가 이러한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위에서 계획한 시설 예약이나 사용에 있어서 활용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자료: Wake County, 2024

[그림 7-14] 미국 웨이크카운티 반려동물 서비스 사이트

셋째, 지역 상점 및 사업체와의 연계를 통한 반려동물 친화적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 지역 상점들의 반려견 친화도나 특징 등을 소개함으로써, 반려견 보호자들이 더 쉽게

필요에 따라 적절한 업소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점이나 레스토랑에서 반려동물 친화성을 알리는 간판이나 홍보물을 배치하여, 지역 주민들이 해당 상점이 반려동물을 환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소개해 주는 전술한 애플리케이션이나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직관적으로 소개해 준다. 이를 통해 보호자들은 지역 내에서 반려견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지역경제와 연계된 반려견 친화적 제3의 장소 비즈니스 모델이 활성화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지역 내 반려동물 친화적 여건은 디지털 인프라와 민간 비즈니스 등 물리적 환경을 결합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애플리케이션 및 웹사이트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보호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 상점 및 사업체와의 연계가 가능하며 반려동물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반려동물 보호자들에게 반려견과 함께하는 도시생활에 필요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사회를 더욱더 참여적이고 협력적인 공간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해방촌 관련 앱이나 웹사이트가 있다면, 반려견 관련 활동이나 반려견 친화적인 시설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웃들, 특히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도 함께 참여해 지역 사회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상점 주인들도 반려견 친화적인 환경을 알리기 위해 간판 등을 밖에 배치하여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요. 해방촌은 오래되고 좁은 공간이 많아서 상점을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러한 정보를 애플리케이션이나 커뮤니티 센터를 통해 전달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더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F7)

"약간 펫프렌들리 매장을 좀 이렇게 소개하는 지도 같은 거를 … 그게 저는 되게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거 그게 저는 제일 좋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바로 피부에 와닿았거든요. 그걸 보고 바로 갈 수 있네. 그럼 가야겠다. 인스타에도 이게 올라왔을 보면, 바로 가야겠다 약간 이렇게 돼서 그게 제일 저는 피부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K9)

"저는 한국의 반려동물 주인들을 위한 소셜미디어 웹사이트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페이스북이나 옛날 싸이월드처럼, 반려동물 주인들이 서로 소통하고 개들의 놀이 일정을 잡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웹사이트를 만들고 있었고, 아직도 작업 중이에요. 그건 무료로 제공하려고 했어요. 그 웹사이트가 이웃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한국 전역에서 반려동물 주인들이 반려동물 친화적인 레스토랑이나 사업체, 반려동물 브랜드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제 목표였죠. 사실 이미 앱은 만들어졌지만, 아직은 완전히 실행하지 않았어요." (F6)

(3) 반려견 친화적 지역행사

반려견 친화적 지역행사는 관료적으로 접근하면 형식적인 오락 행사 정도로만 이해될 수도 있다. 하지만 해외의 사례들에서 이러한 행사들은 반려견 보호자들 간의 사회적 교류와 커뮤니티 형성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이 부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반려견 행사를 구성하기 위한 몇 가지 핵심적인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단발성이라도 모임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여자들이 제안한 '도기나이트(doggy night)'와 같은 정기적인 교류모임은 보호자들이 반려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행사는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지며, 보호자들이 일상적인 산책 이상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유도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지정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정기적인 모임은 연구 참여자들의 숙원과 같은 반려견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보호자들이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게 될 것이다.

자료: Stereeeterville Doggy Halloween, 2024

[그림 7-15] 미국 스트리터빌의 반려동물 핼로윈 파티 포스터

둘째, 반려견을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자면, 반려견과 함께하는 도가(doga:dog+yoga) 프로그램, 반려견 체육대회, 반려견 산악회 등의 활동은 반려견과 보호자가 동반 활동을 통해 유대감을 강화할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활동은 다른 개와 보호자들을 만나는 접점이 되어 반려견들 간의 사회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단순히 반려견을 위한 놀이 활동이 아니라, 보호자들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보호자들이 반려견의 행동과 사회화를 돕는 반려견 행동 전문가의 교육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지역사회와 연계된 행사를 기획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강아지의 날'이나 'HBC dog week' 같은 행사들은 지역 주민들과 보호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반려견 코스튬 파티, 반려견 간식 경연대회, 펫 프렌들리 야시장 등과 같은 행사는 보호자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외부 방문객을 촉진해 관련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더불어, 이러한 행사를 통해 상품이나 경품을 제공함으로써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특히 계절적 혹은 주제별 특화 행사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핼로윈과 같은 특정 시즌에 맞춰 반려견 코스튬 파티를 열거나, 여름철에는 반려견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물놀이 행사를 개최하는 등의 주제별 행사는 반려견과 보호자 모두에게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주목도가 높은 행사들을 통해 반려견과 함께 공존하는 것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보호자들이 지역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반려견 친화적 지역행사는 지역사회의 반려견 보호자들이 연대하고 교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기능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정기적 모임,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단기적 행사 주간이나 주제별 행사를 통해 반려동물 친화 공간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반려동물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 *"금요일 밤에 개 주인들을 위한 모임을 조직하는 것? 예를 들어, 사람들이 개를 데리고 와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지정된 시간 같은 것요. 그런 곳이나 비즈니스에서 '개들의 밤(doggy night)' 같은 것을 열 수 있을 거예요." (F2)*

> *"견주들이 공원에서 '개의 밤'이라는 모임을 시작했는데, 이런 모임이 더 많아지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개와 함께하는 클래스나 모임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개를 산책시*

키는 사람들은 그냥 산책하고 가는 경우가 많아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짧거든요. 그래서 모임을 하거나 개 주인들이 서로 더 오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유가 많이 없어요. 개들이 놀 수 있는 조용한 공간에서 주인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상호작용이 더 활발해질 것 같은데요." (F8)

"저희는 진짜 어떻게 보면 강아지 체육대회 같은 걸 한다는지. 그런 게 그냥 모이기 되게 쉽잖아요. 오늘은 쉽게 말해서 해방촌에 있는 견주 모임 강아지 모임, 애기 반려견 모임이라고 해갖고 그냥 이걸 그냥 만들어놓고 사람들 참여하세요. 그럼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커피 주고 ··· 강형욱 같은 사람이 나와서 오늘은 강아지가 뭘 해볼 거예요, 심지어 강아지와 함께하는 요가 프로그램 뭐 해갖고 같이 누워서 뭐 해볼까? ··· 만약에 하게 된다면 프로그램하게 되면은 강아지들과 함께하는 공놀이. 그러면 이제 우리 강아지들이 다른 강아지들과 한 공간에 있으면서 우리끼리만 놀지만, 그래도 다른 강아지들이 같이 있으면 애들이 약간 신경을 계속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 좀 사회력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사회성이." (K7)

"아니면 어떤 데이를 만들어서 그때 어떤 이벤트를 하거나. 그런 것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가끔 여기 이태원 보면은 막 노래 자랑 같은 거 해요. 근데 그게 은근히 가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동네 사람들끼리 하는 거라 상품도 괜찮아요. tv도 주고. 노래자랑 추석을 전후로, 설 전후로도 막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뭔가 강아지의 날처럼, 이태원, 해방촌 동네에 거주하는 거기 등록되어. 용산시에 등록되어 있는 강아지들을 대상으로. 뭔가 그런 어떤 데이를 진행하는 거" (K6)

"(영국에서) 때때로 강아지 코스튬 파티가 열리곤 했어요. 강아지들이 다양한 코스튬을 입고 와요. 한 번은 닥스훈트 주제의 코스튬 파티가 있었는데, 작은 소시지 강아지들이 다양한 코스튬을 입고 있었어요. 아주 귀여웠어요. 한국에서는 그게 잘 안 통할 것 같아요. 하지만 핼로윈 때는 사람들이 강아지를 꾸미죠." (F5)

(4) 반려견 정기 교류 활동

주민 간 교류가 촉진되는 제3의 장소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단체활동이 유익한 접근이 된다. 현재도 진행 중인 활동 중에는 대표적으로 서울문화재단과 용산구청이 해방촌에서 진행하는 'HBC 강아지 맵'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2년 차를 맞이하면서 몇몇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바 있고,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대표적인 교류 활동으로 자라잡고 있다. 이 행사는 용산구에 거주하는 반려견 보호자들이 정례적으로 만나 자신의 반려견 그림을 그리고, 반려견 신상과 산책경로 등을 표시한 지도를 제작해 배포한다. 이 활동에 참여한 이들의 의견을 종합하

면, 기존에 몰랐던 새로운 관계 맺음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반려견과 보호자들을 이해하는 의미 있는 기회이자 이웃 관계를 확장하는 기반을 열어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정기 교류 활동은 이렇게 지역사회와 보호자들 간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구체적인 정기교류 활동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지역 주민과 반려견 보호자 간의 연결을 강화하는 행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반려견을 매개로 이웃과의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을 고려하면, 반려동물을 보호자들 간 지역 내에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반려견 보호자들이 자기 집이나 상점에 반려동물 환영 로고를 붙이고, 반려견 산책 중인 보호자들이 물을 제공받거나 짧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일반적인 서울의 주거지역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개방적인 사고의 한국인도 많은 해방촌이라면 이러한 실험적 교류 활동도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다.

자료: 연구자가 직접 촬영, 2024

[그림 7-16] 해방촌 강아지 맵 포스터와 지도

둘째, 사회적 책임과 공공의 안전을 결합한 반려견 행사를 도입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 곳곳에서 활동 중인 '반려견 순찰대'는 반려견 산책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안전 유지에 기여하는 중장기적인 프로그램이다. 반려견 보호자들이 강아지와 함께 동네를

산책하며 공공시설의 안전 문제를 점검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신고하는 커뮤니티 순찰 개념을 해방촌에 한정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이를테면, 순찰대 개념을 가지고 '해방촌 반려견 자율방범대', 지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봉사하는 '해방촌 강아지 부녀회', 아침 등굣길 등의 안내를 강아지와 함께 돕는 '해방촌 녹색강아지회' 같은 활동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산책이나 놀이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며, 지역 주민과 보호자들이 공동의 목표를 공유함으로써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자연스럽게 반려견과 보호자가 공동체 책임감을 기르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환대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셋째, 문화적이고 예술적인 요소를 포함한 반려견 교류 활동을 통해 공동체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다.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로 반려견과 관련된 전시나 이벤트를 계획하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보호자들과 반려견 접촉을 꾸준히 유도하면서 예술적·문화적 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정서적으로도 도움이 되면서 이웃 관계의 점진적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참여자들이 언급한 강아지 맵과 같은 활동들을 활용하여 반려견 보호자들이 특정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모이는 교류활동이 정례적으로 정착될 필요가 있다. 이는 보호자 간의 교류와 상호작용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반려견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반려견 전용 사진전이나 산책 중 만난 반려견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아카이브 활동, 반려견에 관한 이야기들을 책으로 만드는 활동 등을 통해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반려동물을 통한 제3의 장소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반려견을 매개로 한 지역사회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과 공동체 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정례적이면서 오래 유지되는 방식의 교류 활동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과 보호자 간의 관계를 강화하고, 반려동물이 중심이 되는 다양한 문화적 경험과 사회적 책임을 공유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반려동물 친화적인 도시 속 주민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 *"교류의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기준이 조금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저는 강아지 맵 때문에 좀 더 커졌죠. (강아지맵 동료들) 뭔가 느낌을 보자면 강아지 맵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해방촌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강아지를 하면서 더 좋아졌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강아지를 반려하면서 이 동네가 좋아졌고. 강아지를 하면서 사람들을,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사람인 거잖아요. 이 동네에 살면서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이라는 게, 공통점이 또 생긴 사람을 알게 되니까.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K3)*

"그거(강아지맵)를 하고 또 전시도 했었잖아요. 그 영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나다가 OO를 알아봐주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K4)

"강아지 산책할 때, 그냥 살고 있는 동네 주변에 가서 불편한 점이나, 시설물의 안전 같은 거를 신고할 게 있으면 신고 산책하는 겸 동네 안전도 약간 살펴보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다음 산책하면서 주취자가 예를 들어 갑자기 길에서 자고 있는 주무시고 계신 주취자가 발견하는 경찰에 신고한다든지 하고, 이게 용산구가 지금 한 18마리 정도가 있거든요. 용산구에 강아지가.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순찰 같은 것도 하고 ··· 저희 다 순찰복도 있거든요. 강아지들 순찰복이 있어가지고 이 순찰복 입혀가지고. ··· 보통은 평상시에 꼭 옷을 입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다니면서 조금 더 순찰대로서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산책을 하는 거고" (K10)

"해방촌에 특정 로고를 디자인해서 반려견을 환영하는 가정에는 그 로고를 문에 붙이게 하는 거죠.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집이 반려견을 환영하는 곳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개와 함께 교류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런 식으로 이웃 간의 상호작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저희 집은 반려견 환영해요, 물도 제공해 드려요'라는 표시를 달아놓고, 산책 중에 목이 마른 개 주인이 그 집에 들러서 물을 마실 수도 있겠죠. 이상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렇게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F7)

자료: 서울특별시, 2023

[그림 7-17] 서울 반려견 순찰대 모집 포스터

08. 맺음말

1_연구 요약

이 연구는 도시재생지역에서의 제3의 장소 형성 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해방촌 일반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을 문제해결의 대상으로 하여 경험적 연구를 진행하고 그를 바탕으로 한 공간적 설계의 아이디어를 도출하였다. 특히 여러 도시재생사업지의 문제점인 도시재생이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주민의 참여와 연대가 부족하다는 점, 해방촌의 경우 지형적 한계로 이웃이 함께 모이는 거점이 없다는 점과 해방촌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한 결과물이 주민 공동체의 연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간이 되지 못한다는 지점에서 파편화된 주민들을 연결할 방법을 고민하였다.

이러한 배경 위에서 이 연구는 오늘날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하고 해방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반려동물을 매개체로 삼아 주민을 연결해 보고자 하였다. 2024년 기준으로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552만 가구, 대한민국 인구 5,175만여 명 중 1,262만여 명 정도가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통계조사의 결과(중앙일보, 2024)를 두고 보면 인구의 5분의 1가량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반려동물 친화 공간은 이제 도시계획 및 설계에서 주요한 관심 영역으로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 지점에서 이 연구는 미진한 국내의 반려동물 친화 도시 설계 연구에 기여하는 지점이 있다.

이 연구가 제시하는 설계안은 반려견을 통한 주민 매개 공간으로서 반려동물 놀이터를 해방촌 곳곳에 설치하는 것과, 반려동물 지원센터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공용 공간은 지역 내 학부모들끼리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되고 공동체가 성립되듯, 새로운 주민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즉 반려동물을 통해 서로 알지 못하던 지역 주민 간 연결을 시도하고, 이웃을 근간으로 하는 지역사회의 구축 및 생활환경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나아가 물리적 시설에 기반한 마을 고유의 반려견 프로그램(i.e. 교육과

훈련; 단체활동과 행사 등)을 제안하였다. 이렇게 반려동물 친화적 주민 공간설계를 통해 지역의 외부적 여건 개선과 치안 유지, 추후 이를 기반으로 한 마을 사업으로의 발전과 더불어 외부인의 유입을 통한 상권 개선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반려동물을 매개로 하는 제3의 장소는 보드리야르와 바우만이 지적한 “소비 환경을 구경하고 즐기면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직관을 실험하면서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는(박창호, 2011: 62)” 공간으로서 발전 가능성이 있다. 즉, 해방촌 특유의 분위기와 더불어 다양한 반려동물 친화 공간을 거점으로 반려견들이 오고 가는 친근하지만 특별한 분위기는 외지인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만하다. 이렇게 방문한 손님들은 공공 반려동물 친화 공간뿐만 아니라 해방촌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개선된 상권으로의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의 수익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서 설계안 도출 과정의 핵심은 주민이 주인이 되는 공간에서 주민이 온전히 향유하는 반려견과 보호자의 공간을 보장해 준다는 것이다. 즉,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제공된 주민의 공간에서 반려견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경직된 주민 간 교류를 촉진하고, 이것과 연결된 다양한 효과를 일으켜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만족을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꾸준히 만족을 불러일으키는 일련의 경험이 지역 공동체에 대한 효능감을 제공한다. 아울러 지역 애착과 만족도 상승은 자연스럽게 지역 주민의 소속감과 애향심을 증진하게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이 마을 공동체가 유지되면서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꾸준한 동력의 근원으로 자리를 잡게 되길 희망한다. 결국, 이러한 선순환 경로의 형성만이 낙후된 지역의 생기를 불어넣는 연쇄적인 재생작용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_반려동물 친화 도시를 위한 제언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친화 도시를 형성하기 위한 제언으로 이 연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먼저 반려동물 친화 도시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 제공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문화적 변화가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반려견을 키워본 적이 없는 연구자들은, 반려동물에 대한 피상적인 지식과 예측으로 이 연구를 계획하고 수행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방촌에서의 반려견 보호자들과 접촉하며 반려견과 인간, 도시의 관계를 성찰하며 조금씩 그 미묘한 지점들을 파악하게 되었다.

"제가 이 질문을 처음에 쭉 받았을 때, 이거는 그냥 정말 개를 키우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질문이 할 수 있는 질문이다라는 걸 많이 느낀 게. 근데 문화 자체가 완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사소한 거지만 외국은 나가면 큰 개들도 줄 안 하고 다녀도 그게 막 공포스러운 상황이 없어요. 왜냐면 그 자격이 되는 사람이 자격이 되는 개를 키우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으니까 크면 무조건 물림 사고 이런 거만 뉴스에 나오지, 큰 개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걔가 왜 물었는지 이런 건 없잖아요. 근데 그런 인식 자체가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주 사소한 것부터 그렇게 조금씩 주변 환경이 바뀌어야 되는 거라. 뭔가 하나를 딱 했다고 해서 확 바뀌는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K8)

"그러니까 아주 현실적인 답변으로는 그런 공간보다는 우리가 그러니까 그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산책을 하면 이제 평소 때 그런 공간이 필요하고 우리가 이 지금 평소에 생활하는 곳이 편하지 않다라는 걸 또 의미하니까, 그럼 우리가 그걸 더 편하게 더 이 생활 공간을 운영하기 더 즐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인데. 그거는 이제 그런 교육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교육이 더 필요한 반려견 문화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유는. 이제 보호자들이 생각했을 때 이 친구들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모습을 상상했을 때 이 친구들이 더 행복할 거다라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물론 그것도 맞겠지만 그것보다도 상호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이 친구랑 내가 얼마나 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공간에서 사람들이랑 더 자유롭고 더 편하고 불안해하지 않은 마음으로 더 즐길 수 있는 생활이 필요한데, 그거를 즐기기 위해서는 걸림돌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내가 다니는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편하게 내가 인사하고, 편하게 두려움 없이 데리고 다닐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보장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런 공간이 필요해, 저런 공간이 필요해라고 이제 다른 옵션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K1)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에서 나타난 핵심적인 문제는 단순히 반려견을 위한 공간 부족에 있지 않다. 연구자들이 공간을 제공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초기의 생각은, 실질적인 현상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상태에서 매우 관료적, 관습적이면서 시혜적인 사고 방식으로 접근했던 지점임을 부인할 수 없다. 효율적인 정책과 물리적 기반 시설 제공이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것이라는 단순한 접근으로 바라보면, 전혀 현실적이지 않고 실용적이지 않기에 결국 효과가 없는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자기성찰적 연구 과정을 통해 연구자들은 반려동물과 보호자, 그리고 지역사회 내부의 관계와 상호작용의 질이 반려동물 친화적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물을 종합한 반려동물 친화 도시의 조건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먼저, 첫 번째로 반려견 보호자와 비보호자 간의 상호작용 개선이 필요하다. 반려동물 친화 도시는 반려견 보호자들만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보호자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자유롭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비 보호자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주민들도 반려동물과 그들의 보호자를 두려움 없이 수용하고, 보호자들 역시 다른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불편함 없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호 간의 예절과 공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의 제공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닌 것이다.

다음으로 두 번째, 반려동물 문화에 대한 교육 강화와 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 이 연구의 내용에서 계속하여 등장하듯 한국 사회에서는 반려견의 크기에 따른 편견이나 오해가 존재하며, 그것은 오직 문화적 변화만이 해결의 실마리가 된다. 크기와 상관없이 반려견을 키우는 보호자들은 반려견의 행동을 이해하고,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관리에 대한 교육을 통해 반려견의 행동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아무나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도록 공공에 의한 규제가 필요하다. 연구 참여자들이 주장하듯, 허가제나 보유세 등의 방식으로 반려동물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에게만 그 자격을 부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무책임한 반려동물 보호자는 반려동물의 생명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들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동시에, 반려동물을 소유하지 않는 주민들도 반려동물과의 공존 방법에 대해 교육받음으로써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맹견이 아니라도 무조건 큰 개는 입마개를 해야 한다는 등의 개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 의한 사고에 집착하는 상황에서는 반려견이 주민 간 교류의 매개보단 갈등의 매개가 될 뿐이다.

마지막 세 번째, 반려동물을 고려한 공간적 계획과 설계가 필요하다. 반려동물 친화적인 도시를 단기적으로 조성하기는 어렵다. 한 가지 정책이나 공간 제공만으로는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며, 도시 전체의 환경 변화와 문화적 인식 전환이 지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작은 요소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오가는 음식점이나 카페 등의 등록이나 허가를 위한 법제적 준비, 반려동물이 공공장소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 도그파킹(dog parking) 장비나 안전한 대기 공간을 제공하는 것, 공간설계에 있어 반려동물과 동반한 주민들과 반려동물을 싫어하는 주민들의 적절한 분리 등 섬세한 공간적 배치와 안배가 이루

어져야 한다. 늘어나는 반려동물의 수를 고려했을 때, 반려동물 친화 도시의 계획과 설계는 이제 실질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이는 반려동물 보호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반려동물과의 공존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결국, 반려동물 친화 도시는 단순히 반려동물 전용 공간을 늘리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회적 상호작용 촉진과 문화적 변화를 함께 추구하는 방향에서 정책적으로도 적절한 방식으로 규제를 적용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 나아가 주민공동체 기반의 반려동물 교육 프로그램, 반려동물 보호자와 비 반려동물 보호자와의 관계 개선, 그리고 점진적인 환경 변화를 통해, 반려동물과 사람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도시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연구에서 해방촌과 그 일대 지역을 연구하며 확인한 바와 같이, 반려동물과 사람 모두에게 매력적인 도시는 모든 사람이 오고 싶은 곳이며, 한번 살게 되면 떠나고 싶지 않은 곳이 된다는 점을 떠올려볼 필요가 있다.

“한번 살아보세요. 이 동네 매력에 빠지실 거예요.” (K6)

참고문헌

김혜연, 2024, "반려견 가구와 비반려견 가구의 공생을 위한 중소형 아파트 공용공간 계획",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87권, 99-107.

문근이·류호창, 2013, "'제3의 공간'으로서 카페의 공간연출 전략에 관한 연구: 길(street)문화가 형성된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2권 5호, 68-74.

박창호, 2011, "소비수단의 변화와 사이버공간의 소비문화 이해 – 맥도날드화에서 디즈니화의 사회로", 「담론201」, 11권 2호, 43-73.

송진경·이형숙·이정연, 2022, "반려견 산책 및 운동을 위한 근린환경 인식 및 만족도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50권 4호, 53-62.

정민영, 2024, "반려동물 관련 갈등 해소를 위한 도시환경 개선방안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35권 3호, 49-62.

한지영·한혜련, 2023, "서울시 반려견 놀이터의 공공공간 디자인 특성",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32(6), 19-25.

Abbott, Andrew. 1997, "Of Time and Space: The Contemporary Relevance of the Chicago School." *Social Forces*, 75(4), 1149-82.

Bigante, Elisa., 2010, "The Use of Photo-Elicitation in Field Research." *EchoGéo*,

Barina-Silvestri, M., Díaz-Videla, M., Delgado-Rodríguez, R., 2024, "Pet parenting: A systematic review of its characteristics and effects on companion dogs", *Journal of Veterinary Behavior*, In Press, Journal Pre-proof

Bauman, A. E., Russell, S. J., Furber, S. E., & Dobson, A. J., 2001, "The epidemiology of dog walking: Anunmet need for human and canine health", *Medical Journal of Australia*, 175(11-12), 632-634.

Coleman, K. J., Rosenberg, D. E., Conway, T. L., Sallis, J. F., Saelens, B. E., Frank, L. D., & Cain, K., 2008, "Characteristics of Dog Walkers", *Prevendted Medicine*, 47(3), 309-312.

Collier, John, Jr., 1957, "Photography in Anthropology: A Report on Two Experiments",

American Anthropologist, NewSeries, 59(5), 843-859

Evenson, K. R., Shay, E., Williamson, S., & Cohen, D. A., 2016, "Use of Dog Parks and the Contribution to Physical Activity for Their Owners", *Research Quarterly for Exercise and Sport*, 87(2), 165-173.

Harper, D., 2002, "Talking About Pictures: A Case for Photo Elicitation." V*isual Studies*, 17 (1): 13-26.

Ham, S. A., & Epping, J., 2006, "Dog walking and physical activity in the United States", *Preventing Chronic Disease*, 3(2), 1-7.

Rogers, J., Hart, L. A., & Boltz, R. P., 1993, "The Role of Pet Dogs in Casual Conversations of Elderly Adult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3(3), 265-277.

Shaw, P. A., 2020, "Photo-elicitation and photo-voice: using visual methodological tools to engage with younger children's voices about inclusion in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 Method in Education*, 44(4), 337-351.

Serpell, J., 1991, "Beneficial effects of pet ownership on some aspects of human health and behaviour", *Journal of the Royal Society of Medicine*, 84(12), 717-720.

Kase, Y., & Koda, N., ,2024, "User behaviors in a community-based multifunctional urban park with dog friendly area", *Behavioural Processes*, 219.

Koohsari, Mohammad J., Yasunaga, A., Shibata, A., Ishii, K., Miyawaki, R., Araki, K., Nakaya, T., Hanibuchi, T., McCormack, Gavin R. & Oka, K., 2021, "Dog ownership, dog walking, and social capital",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ommunications*, 8, 126.

Lesthaeghe, R., 2014,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a concise overview of its development",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11(51), 18112-18115.

Middle, I., 2019, "Between a dog and a green space: applying ecosystem services theory to explore the human benefits of off-the-leash dog parks", *Landscape Research*, 45(1), 81-94.

Thomas, David R., 2006, "A General Inductive Approach for Analyzing Qualitative Evaluation Data", *American Journal of Evaluation*, 27, 237-246

Volsche, S., 2021, "Pet Parenting in the United States: Investigating an Evolutionary Puzzle", *Evolutionary Psychology*, 19(3), 147470492110382.

早川 洋子, 荒尾 孝, 2017, "青年期から中年期の成人における犬の飼育状況と健康関連QOL との関係", 「人間生活文化研究」, 2017巻, 27号, 47-56,

농림축산식품부, 2020,「2020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보고서」, 농림축산식품부.

서울특별시, 2017, 「해방촌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서울시보 제 3409호.

서울특별시, 2017,「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해방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서울특별시.

Jacobs, J., 1961,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Random House.

Oldenberg, R., 1989, *The Great Good Place*, Da Capo Press.

Relph, E., 1976, *Place and Placelessness*. London: Pion.

Tuan, Y. F., 1977. *Space and Place: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김현정, 2024.02.05., "반려가구 552만 시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하려면",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6870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6870

한명현, 2024.07.23., "서울 원룸 평균 월세는 70만원", 한국경제신문,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72335861

현금희, 2017.11.08., "해방촌 여행길 통해, 역사의 흔적 찾는다", 시사경제신문, https://www.sisa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7437

김오윤, 2019.10.02., "서울 도심에서 만나는 가을, '2019 서울정원박람회'", 나무신문, https://www.imwood.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513

이정윤, 2020.01.03., "[도시재생뉴딜 현주소④] 도시재생 대표 주자 해방촌·성수동은?..."거창한 이야기"",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851796

이진한, 2021.03.30.,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지자체들, 고독사 예방 반려동물 나눠주고 유기동물 분양 나서",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ociety/9809790

이학범, 2024.06.06., "국내 반려동물 시장규모 8.5조원 추산…2032년에는 21조원", 데일리벳, https://www.dailyvet.co.kr/news/industry/214784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 https://publicdesign.kr/brd/board/925/L/menu/926?brdType=R&thisPage=1&bbIdx=643&searchField=&searchText=

서울균형발전포털, https://uri.seoul.go.kr/

서울특별시 내손안의 서울,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7446

스트리터빌 도기 할로윈, https://www.facebook.com/streetervilleDoggyHalloween/?_rdr

서초동물사랑센터, https://www.seocho.go.kr/site/animal/ex/bbs/List.do?cbIdx=439

Better Cities for Pets, https://www.bettercitiesforpets.com/

Direct Compost Solutions, https://directcompostsolutions.com/composting-dog-poop-compostable-bags/

작은연구 좋은서울 2024-06

도시재생지역에서 반려동물을 통한
제3의 장소 형성하기
- 해방촌에서의 반려견 친화공간 설계

발행인 오 균
발행일 2024년 12월 20일
발행처 서울연구원
비매품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이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

비매품

www.si.re.kr
www.youtube.com/@seoulinstitute
www.instagram.com/si_theseoulinstitute
www.facebook.com/SeoulInstitute